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업 목표	규범 윤리학을 ○○윤리학, □□ 윤리학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1. ○○윤리학 ·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예〉 덕 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등 2. □□ 윤리학 · ㉠ 〈예〉 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

- ① 도덕적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②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규명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③ 윤리적 관습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서술을 중시한다.
- ④ 도덕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간주한다.
- ⑤ 현실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을 중시한다.

2. (가)의 관점에서 그림 (나)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종교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행복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 종교는 자신의 실수와 과오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 사이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 ①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을 통해 도덕적 위기를 극복한다.
- ②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종교적 신념의 단일화를 추구한다.
- ③ 종교의 다원성을 존중하며 다른 종교를 용인하려고 노력한다.
- ④ 종교는 분쟁의 근원이므로 점진적으로 폐기하려고 노력한다.
- ⑤ 자기 종교 안의 모든 것이 선하고 참이라는 믿음을 강화한다.

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개인들 간의 갈등과는 달리 집단들 간의 갈등은 합리적인 설득으로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은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보 기 >

ㄱ.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양심의 역할을 부정한다.
ㄷ. 사회 정의는 정책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된다.
ㄹ. 집단의 이기적 요구와 개인의 도덕성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性)을 이윤 추구에 이용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을: 성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성의 상품화는 더 이상 금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갑: 제 생각에 당신의 주장은 ㉠

- ① 성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② 성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③ 성이 지닌 쾌락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 ④ 성도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성적 취향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사상에 대해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프로메테우스는 과학을 통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났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 한다.

(나)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기초해 자연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을 활용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무한히 증대할 수 있다.

- ① 과학은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공헌해야 한다.
- ②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③ 과학은 정치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 ④ 과학자는 객관적인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과학의 진보를 위해 연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6. 그림 (나)는 어떤 서양 사상가의 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가)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구 상에는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무엇일까?

(나)

제2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이 시민적 체제는 원초적 계약의 이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모든 법률상의 입법이 근거해야만 하는 공화제이다.

제1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

제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제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추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민주적인 세계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 ②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
- ③ 강대국 간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정립해야 한다.
- ④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법을 폐지하고 자연법을 강화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권력을 폐지해야 한다.

7. (가)의 A, B 사상의 관점에서 그림 (나)의 주장을 지지할 경우 그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A: 개인은 국가라는 운명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뿌리이며 삶의 터전인 조국의 이익을 우선 시해야 한다.

B: 우리는 모든 인간의 권익을 윤리적으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의 원칙은 피부색, 성별, 국적 등의 차이를 넘어 모든 인류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

- ① A: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
- ② A: 지구촌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
- ③ B: 수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
- ④ B: 미래에 발생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원조를 해야 한다.
- ⑤ A, B: 보편적 인류애의 원리에 입각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

8.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자: 선생님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셨지요.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형사적 처벌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상가: 형사적 처벌은 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사형 제도의 존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사형 제도는 ㉠

- 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② 공공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 ③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 ④ 범죄자도 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 ⑤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존치되어야 합니다.

9. 갑, 을 사상가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성인(聖人)의 도(道)는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천하 만물의 감정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세속의 음악은 모두 음탕하고 상스럽다.

을: 리듬과 하모니는 영혼의 내부에 우아함을 심어 주고 영혼을 활기치게 만든다. 음악을 올바르게 교육받으면 사람의 정신이 우아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된다.

< 보 기 >

ㄱ. 음악은 도덕적 교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

ㄴ. 음악을 독립적인 순수 예술로 존중해야 하는가?

ㄷ.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가?

ㄹ. 음악의 미적 가치는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형과 아우는 부모가 남겨 준 몸을 함께 받았으니, 한 몸과 같은 것이다. 한 몸의 사지(四肢) 중에서 어느 한 편이 병든다면 어찌 편안함을 얻겠는가? 형제끼리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감히 상하게 하거나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몸을 세워서 도리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떨쳐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 ① (가)는 형제간은 장유(長幼)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 ② (가)는 형제애의 근원과 효의 근원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 ③ (나)는 신체의 건강함과 부모에 대한 효가 무관하다고 본다.
- ④ (나)는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가), (나)는 효가 덕스러운 행실[德行]의 근본이라고 본다.

16.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자연을 고려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을: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단지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 ① 갑은 인간을 위해 생태계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자연보호가 인간의 도덕성 완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③ 을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고 본다.

17.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옛날 성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귀와 눈을 자신의 귀와 눈으로 삼아 민의를 모두 파악하였으며, 모든 백성들을 왕의 잘못을 고치도록 간언(諫言)하는 관리로 여겼다.
 (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 보 기 > —

ㄱ. (가)는 통치자를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한다.
 ㄴ. (나)는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동의에서 찾는다.
 ㄷ. (가), (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ㄹ. (가), (나)는 정책 결정자인 국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에 대해 내릴 도덕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모든 사물에는 자신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도토리 목적이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 도토리는 한 그루의 나무와 다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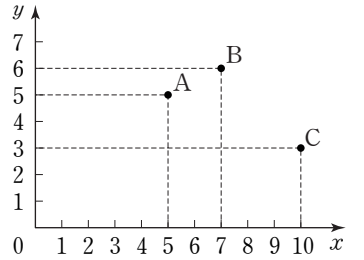
— < 문제 상황 > —

최근 난치병 치료를 위해 줄기 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거나, 실험이 완료된 후에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① 배아는 인간이 될 존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② 과학 발전을 위한 순수한 연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③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④ 배아는 신성한 생명권을 갖지 않으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다.
 ⑤ 배아 기증자를 수단으로 취급하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

19. (가)의 갑, 을 모두가 (나)의 그림과 관련하여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갑: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나)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두 사람뿐이고, 가능한 분배 방식 A, B,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 y 라고 가정하자.



-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
 ④ A,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⑤ A,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

20.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나)	[가로 열쇠] (A):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우선한다는 의미의 사자 성어. (B):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는 의식에서 나온 불교의 '사랑'. [세로 열쇠] (A): …… 개념.

— < 보 기 > —

ㄱ. 학문과 수양을 통해 대의명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ㄴ. 개인적 이익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였다.
 ㄷ. 의리 정신에 입각하여 충서(忠恕)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ㄹ.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정치를 이상으로 여겼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윤리학은 이제 ‘하늘의 별’을 고찰할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명 윤리, 성 윤리,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 즉,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엄밀히 탐구해야 한다.

< 보 기 >

ㄱ.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한 관습들의 특징을 조사하고 기술한다.

ㄴ. 현대 사회의 실천적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ㄷ. ‘선하다’, ‘옳다’ 등과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ㄹ. 우리가 따라야 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규범을 정립한다.

- (가)

(나)

① ㄱ ㄴ

③ ㄴ ㄷ

⑤ ㄷ ㄹ
- (가)

(나)

② ㄱ ㄷ

④ ㄴ ㄹ

2.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낙태는 인간 존재인 태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대전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소전제: ㉠

결론: 낙태는 옳지 않다.

- ① 잠재적 인간인 태아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② 태아는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므로 인간 존재로 볼 수 없다.

③ 낙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도덕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④ 태아는 수정과 동시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존재이다.

⑤ 사회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인간 존재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3. 다음 글에 나타난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나무를 단지 나무로 보면서도 동시에 나무 이상의 나무로 보기도 한다. 앞의 나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나무로 속(俗)에 속하며,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나무로 성(聖)에 속한다.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고, 접촉하고, 사랑한 모든 것은 ‘성(聖)의 드러남’이 될 수 있다.

- ① 성스러움보다 인간성의 실현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②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실의 삶 속에서 성스러움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④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성스러움을 만나지 못한다고 본다.

4. ㉠에 들어갈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을/를 행할 때에 갓과 의복, 신발을 세 번 바꾸는 것[加禮], 조심스럽게 술을 받아 마시는 것[醺禮], 자(字)를 부여하는 것[字冠者禮]은 어렸을 때의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지위와 관계를 얻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중략)… 여자가 비녀를 꽂는 것은 남자가 갓을 쓰는 것과 같다. 남녀의 구별을 위해 거처하는 곳을 당(堂)과 실(室)로 구분한 것은 성현(聖賢)의 세밀한 생각이다.

- 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의례이다.

② 성장한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의례이다.

③ 성인(成人)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의례이다.

④ 자신의 근원인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이다.

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혼(魂)을 이어 주는 의례이다.

5. 다음 글에 나타난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의 기술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스럽지 않은 방식으로無理하게 얻으려고 한다. 과거의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바람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맡겼지만, 수력 발전소는 강물의 흐름을 발전소에 맞추어 버렸다. 즉,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 그 강은 발전소의 요구에 맞추어 수압 공급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 ① 현대의 기술이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제공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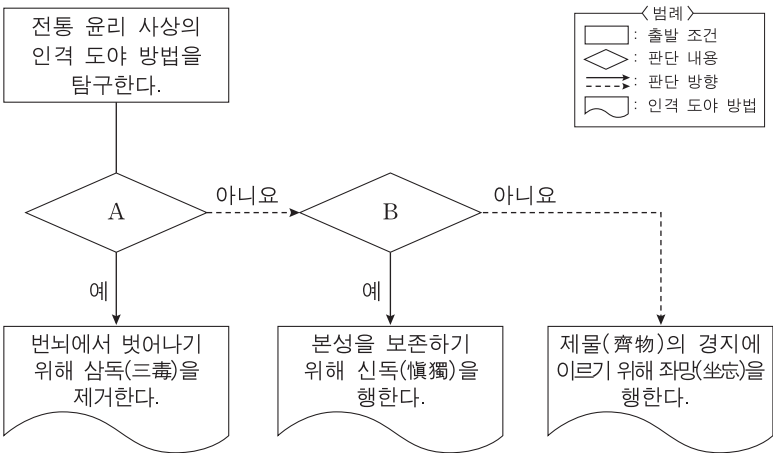
② 현대의 기술이 사회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③ 현대의 기술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의 기술은 그 자체로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본다.

⑤ 현대의 기술이 자연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변질시킨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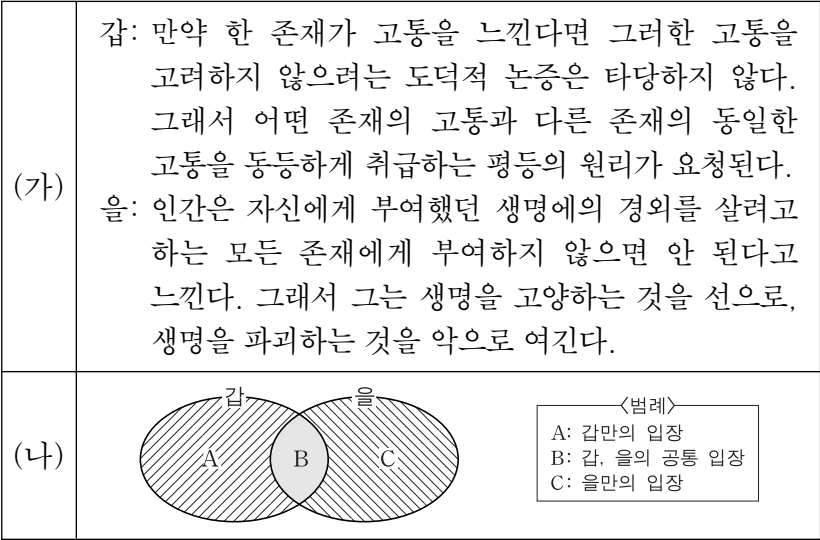
6. 그림의 A, B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 ㄱ. A: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따르는 삶을 지향하는가?
 - ㄴ. A: 연기(緣起)를 깨닫고 대중을 구제하는 삶을 지향하는가?
 - ㄷ. B: 수양을 통해 사덕(四德)이 구현된 삶을 지향하는가?
 - ㄹ. B: 물과 같은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삶을 지향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 ㄱ. A: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 ㄴ. A: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 ㄷ. B: 인간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ㄹ. C: 자연 안의 모든 존재들은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효(孝)에 대해 서술하시오.

아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효(孝)는 인(仁)의 근본이다.

● 학생 답안

위의 사상에 따르면, ㉠ 효는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과 존경의 마음으로 모든 행위의 근본[百行之本]이다. 이러한 효의 정신은 가족 윤리와 사회 윤리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 동기간(同氣間)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도 효의 정신과 상통하며, ㉢ 다른 사람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효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효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 몸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것[立身揚名]을 효의 출발점으로,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不敢毀傷]을 효의 마침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땅한 도리로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현대 정보 사회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판옵티콘에서는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둘레에 죄수들의 방을 배치한다. 여기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감시자는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 < 보 기 > —
-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ㄴ.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 ㄷ.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 ㄹ. 정보 소통에서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해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정의를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지만, 개인은 이타성을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는 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①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 ② 개인의 양심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③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다.
- ④ 개인들이 양심적이라도 사회가 항상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 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은 집단 속에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11. 다음 서양 사사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의 A가 선택할 분배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 상황>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x, y, z 세 명뿐이고, 이들은 모두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 x, y, z 중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A는 다음 표에서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분배 방식 \ 구성원	x	y	z
d1	2	9	13
d2	5	6	8

* 표의 수치는 d1, d2의 분배 방식을 통해 x, y, z가 각각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이다.

- 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d1을 선택한다.
 ②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 주므로 d1을 선택한다.
 ③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적으므로 d2를 선택한다.
 ④ 각자의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d2를 선택한다.
 ⑤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므로 d2를 선택한다.

12. (가), (나)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인드라마는 끝없이 큰 그물로서 이음새마다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이 자리 잡고 있다. 구슬들은 혼자 빛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구슬의 빛을 받아야만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나)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아 모든 것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커다란 풀무*의 바람통처럼 비어 있으나 다함이 없다.

* 대장간에서 불을 지피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

—————< 보 기 >—————

ㄱ. (가)는 만물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한다고 주장한다.
 ㄴ. (나)는 자연을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파악한다.
 ㄷ.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ㄹ. (가)는 인간과 자연의 엄격한 분리를, (나)는 합일을 추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을: 기업은 그러한 목적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소외된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해.

갑: 기업이 법을 준수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야.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을: 그렇지 않아. 기업은 법의 준수 그 이상의 도덕적 의무가 있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도 해.

- ① 기업은 경영 활동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②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③ 기업은 이윤 추구 활동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가?
 ④ 기업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⑤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가?

14.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왕(先王)이 인정(人情)에 비추어 예악(禮樂)을 만들었다. 예(禮)는 백성의 마음을 절도 있게 하고, 악(樂)은 백성의 마음을 화평하게 한다. …(중략)… 예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악을 극진히 해서 마음을 다스리면 곧고 양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 ① 예술은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가?
 ② 예술은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가?
 ③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④ 예술은 선(善)보다 미(美)를 중시해야 하는가?
 ⑤ 예술은 사회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15.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와의 가상 대답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자: 선생님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상가: 삶의 목적은 절제된 생활을 통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쾌락이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상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

- ① 영혼 불멸의 삶에 대한 약속이므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②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신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④ 고통 속에서 삶이 소멸하는 과정이므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⑤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16.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보

○○○○년 ○월 ○일

㉠

언론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은 아니지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들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시민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이를 명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언론을 ‘자유’라는 측면과 더불어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 ①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 ③ 언론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 ④ 언론은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 ⑤ 언론은 취재와 보도, 편집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17. 다음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국제 관계 이론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영국은 하나의 강대한 국가가 출현해 대륙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본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 때문에 영국은 어떠한 국가도 대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외교 정책의 목표로 삼아 국제 질서의 안정을 꾀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은 러시아의 힘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기도 하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3국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 러시아와 손을 잡기도 하였다.

- ① 세력 균형을 통한 국제적 분쟁의 억제를 강조한다.
- ② 세계 정부의 수립을 통한 국제 평화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③ 비동맹 외교 정책을 통한 국제적 갈등의 해결을 중시한다.
- ④ 법률적 제재 수단을 통한 국제적 분쟁의 해결을 중시한다.
- ⑤ 강대국들의 상비군 폐지를 통한 국제 평화의 실현을 추구한다.

1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다른 민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종, 국가 등의 구별을 넘어서 관용과 협력의 태도를 가져야 해.

갑

을

- ① 갑은 민족의식과 소속감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 의식을 중시한다.
- ② 을은 민족의 객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보편적 공동체를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혈연 중심의 배타적인 민족 정체성을 강조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수용한다.
- ⑤ 갑, 을은 민족 구성원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중시한다.

19.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을: 농부는 밭일에 정통하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며 공인(工人)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관리는 이 일들을 하나도 못하지만 예(禮)에 정통하기에 이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 < 보 기 > —

ㄱ. 갑은 모든 직업에 대한 개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중시한다.

ㄴ. 을은 각자의 직업 활동에서 전문성의 발휘를 중시한다.

ㄷ. 갑, 을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질문과 관련하여 (나)의 세로 낱말 ‘(A)’ 모델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나)

		(A)			
	(B)				
		(C)			

[가로 열쇠]
(A): 만용과 비겁에 치우치지 않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B): 세속오계를 만든 승려인 ○○법사
(C): ‘말’ 또는 ‘이성’이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이주민만 모여 살 수 있는 집단 거주지를 조성한다.
- ② 이주민의 언어도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③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육 기관을 설립한다.
- ④ 이주민의 음악과 우리 음악을 중합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
- ⑤ 이주민이 자신들의 전통 예법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갑, 을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오늘날 삶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따라서 윤리학은 생태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윤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해. 즉, 윤리학은 이론 지향적이 아니라 실천 지향적이어야 해.

을: 나는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따라서 윤리학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선하다'는 말이 참, 거짓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과학적 명제처럼 검증 가능한 성질의 것인지를 물어야 해.

— < 보 기 > —

- ㄱ. 특정 시대의 관습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ㄴ.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ㄷ.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을 엄밀히 분석한다.
 ㄹ.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법칙을 정립한다.

- | | | | |
|-----|---|-----|---|
| 갑 | 을 | 갑 | 을 |
| ① ㄱ | ㄴ | ② ㄱ | ㄷ |
| ③ ㄴ | ㄷ | ④ ㄴ | ㄹ |
| ⑤ ㄷ | ㄹ | | |

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괴로움[苦], 괴로움의 원인[集], 괴로움의 사라짐[滅], 그리고 괴로움의 사라짐으로 인도하는 방법[道]을 바른 통찰지로 보는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나)	[가로 열쇠] (A): 나를 나답게 만들어 주는 연속적이고 독자적인 특성. ○○정체성 (B): 어떤 원인으로부터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인과적 □□성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질서 체계이다.
 ②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禮法)의 기준이다.
 ③ 우주의 근원이며 원리인 도(道)가 구현된 질서이다.
 ④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망(網)이다.
 ⑤ 인간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물리적 대상이다.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론인이 사전 보도 금지의 약속을 위반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특종 기사를 보도한다면 그는 일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기는 하지만 보도 이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언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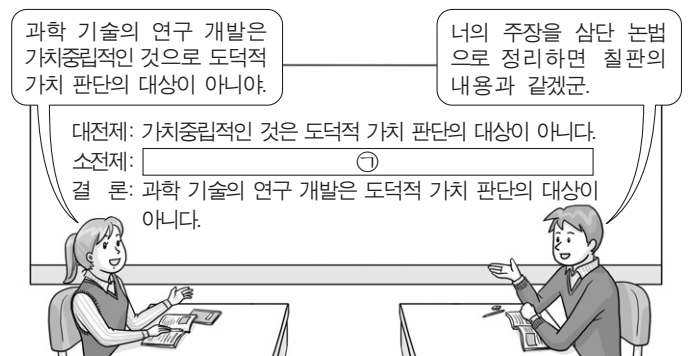
- 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
 ② 취재, 편집 및 보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오보로 인한 피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하여 보도해야 한다.
 ⑤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다음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채소와 과일을 차려 놓고 술잔에 술을 따라 그릇에 부은 다음 두 번 절한다[降神拜禮]. 이것은 신령을 맞이하는 예(禮)이다. …(중략)… 부모의 얼굴빛과 음성을 잊어서는 안 되며 그 마음과 뜻을 늘 간직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몸이 다할 때까지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평생 상(喪) 중에 있다고 한다.

- ①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의례이다.
 ② 능력과 덕망 있는 자를 관직에 추천하는 의례이다.
 ③ 성인(成人)으로서 새 이름[字]을 부여받는 의례이다.
 ④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고 공경을 표현하는 의례이다.
 ⑤ 마을의 수호신에게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5.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학 기술은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③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④ 과학적 사실 판단은 도덕적 가치 판단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⑤ 과학 기술의 연구 대상과 도덕의 탐구 대상은 서로 구별된다.

6. (가)의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주장을 (나)의 학생 발표로 요약할 때, A, B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살해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한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 을: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만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 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나)	학생 x: 갑은 “사형 제도는 A ”라고 주장합니다. 학생 y: 을은 “사형 제도는 B ”라고 주장합니다.

— < 보 기 > —	
ㄱ. 범죄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치되어야 한다.	
ㄴ. 범죄자도 생명에 대한 권리를 지니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ㄷ.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한다.	
ㄹ. 범죄자도 교화를 통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A	B		A	B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 정부가 근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을: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할 것이다.

(나)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A

예

B

아니요

C

예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가?
- ② B: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
- ③ B: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 ④ C: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
- ⑤ C: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

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수업 목표 | 국제 관계 이론을 ○○주의, □□주의, △△주의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 학습 내용 | 1. ○○주의<br>• 법률적·도덕적 수단을 통한 국제 사회의 갈등 조정을 중시한다.<br>• 중심 개념: 집단 안보, 국제법, 국제기구<br>2. □□주의<br>•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0 50px;">㉠</span><br>• 중심 개념: 국가 안보, 자력 구제, 세력 균형<br>3. △△주의<br>• 국가 정체성의 구성을 통한 국제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강조한다.<br>• 중심 개념: 규범, 인식, 상호 작용 |

- ① 군사력의 증강과 동맹을 통한 국제 분쟁의 억지를 강조한다.
- ② 개별 국가를 규제하는 세계 정부를 통한 분쟁 해결을 중시한다.
- ③ 국가 사이의 힘과 그 분포보다는 관념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 ④ 민주적 법치 국가의 확산을 통한 국제 평화의 실현을 중시한다.
- ⑤ 권력의 극대화와 국가 이익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우선시한다.

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나는 낙태가 임신한 여성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선택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을: 나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보다는 태아의 생명이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명 옹호주의'를 지지한다.

○ 학생 답안  
낙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자신의 삶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제로 낙태를 찬성한다. 이에 비해 ㉡ 을은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을 전제로 낙태를 반대한다. 갑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 여성은 남성처럼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는 주장이 있으며, 을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 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되어 생명권을 획득한다는 주장이 있다. 갑, 을의 입장을 정리하면 ㉤ 갑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을은 태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주장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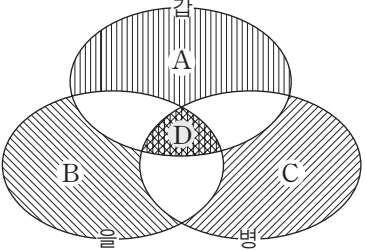
1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좋은 음악이라면 유덕한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에 내재된 미(美)는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시(詩)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예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예술이 도덕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술의 극치가 도덕의 극치와 서로 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예술이 미(美)보다 선(善)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p> <p>을: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자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p> <p>병: 인간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때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 < 보 기 > —

ㄱ. A: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적으로만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ㄴ. B: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ㄷ. C: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ㄹ. D: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인간의 노동은 본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 된다.                                                                       |
| (나) |  <p>영화 '모던 타임즈'의 주인공 공인 찰리는 조립 라인에서 나사를 조이는 단순 작업만을 반복한다.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되고 파편화된 인간의 노동이 기계의 동작에 맞춰진다.</p> |

- ①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분업을 강화해야 한다.  
 ②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③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여 사유 재산의 축적을 추구해야 한다.  
 ④ 신이 부여한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⑤ 자발적 노동을 통해 노동의 본래적 가치의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

13. 다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 동서독 주민들은 통일 이전의 상이한 체제에서 비롯된 사고방식과 정서의 차이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서독인은 동독인을 가난하고 게으르다는 의미인 '오씨(Ossi)'로, 동독인은 서독인을 거만하고 잘났다는 의미인 '베씨(Wessi)'로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 ① 남북한의 조속한 통합을 위해 외형적인 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② 국제적 합의를 통해 남북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③ 정치·군사적 방식을 통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수립해야 한다.  
 ④ 동북아 다자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⑤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여야 한다.

1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도(道)에 뜻을 둔 사람은 인(仁)으로 늘 자신을 삼가 허술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인을 해치는 일이 없다.                                                                 |
| (나) | <p>○ 사람이 있고 난 뒤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가 있고 난 뒤 부자(父子)가 있으며, 부자가 있고 난 뒤 ㉠ 이/가 있다.</p> <p>○ ㉠ 은/는 비록 몸이 나뉘어 있지만 같은 기운을 타고난 존재이므로 행실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p> |

- ① 서로 항렬을 달리하는 종적(縱的)인 관계이다.  
 ②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③ 다른 성(姓)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관계이다.  
 ④ 장유(長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관계이다.  
 ⑤ 가족 내의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관계이다.

15. 다음 글은 신문 사설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일보 ○○○○년 ○월 ○일

㉠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물이나 전기와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물이나 전기 없이 며칠을 견디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도나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수도와 전기를 끊어 버리는 일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은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머물게 될 것이다. …(중략)…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① 정보 사유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의 산출에 힘써야 한다  
 ②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의 독점적 정보 관리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정보 공유화로 인해 발생한 책임의 분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도(道)는 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제후나 국왕이 이 도를 지킬 수 있다면 천지 만물이 장차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
| (나) | ㉠. 그러면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삶을 살 것이다.<br>㉡. 그러면 물처럼 서로 다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

|   | ㉠                | ㉡                |
|---|------------------|------------------|
| ① | 인위(人爲)적인 가치를 버려라 |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라  |
| ② | 오로지 예(禮)만 듣고 보아라 | 옳고 그름을 엄격히 구분해라  |
| ③ |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라 | 일체의 탐욕과 집착을 버려라  |
| ④ | 사사로운 마음[私欲]을 비워라 | 타고난 사단(四端)을 확충해라 |
| ⑤ | 거경(居敬)으로 덕을 함양해라 | 자타(自他)를 한몸으로 여겨라 |

17. 그림은 토론 장면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신 수영복이 기록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 경쟁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영 선수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기록 단축은 선수 자신과 관중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따라서 전신 수영복을 금지하지 말고 소재와 두께를 통일하여 선수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갑      전신 수영복 착용, 무엇이 문제인가?      을

— < 보 기 > —

- ㄱ. 갑은 스포츠에서 순수한 신체적 탁월성의 발휘를 강조한다.  
 ㄴ. 을은 스포츠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운영될 것을 강조한다.  
 ㄷ. 갑은 스포츠에서 경쟁 요소를 수용하고, 을은 배제한다.  
 ㄹ. 갑, 을은 스포츠를 공정한 조건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 장벽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는 민족이야. 우리는 언어, 역사, 혈통 등에 기초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해.

을: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인류 공동의 위협인 테러와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종과 국가의 구별을 넘어서 관용과 협력의 정신을 추구해야 해.

- ① 갑은 민족의 객관적 요소를 바탕으로 민족적 일체감을 중시한다.  
 ② 을은 민족 구성원과 국가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③ 갑은 타민족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을은 포용적 태도를 강조한다.  
 ④ 갑은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을은 민족 문화의 특수성을 추구한다.  
 ⑤ 갑, 을은 민족의식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19.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중략)…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 < 문제 상황 > —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 부정의와 계층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정의 실현과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 보 기 > —

- ㄱ.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세요.  
 ㄴ.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고려하세요.  
 ㄷ.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을 해결하세요.  
 ㄹ.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청렴은 목민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이며 모든 덕(德)의 원천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히 여기고 지혜로운 자도 이를 이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보배로 삼는다.

을: 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만 한다. 또한 세상의 금을 탐해서도 호화로운 집에 기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오직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 < 보 기 > —

- ㄱ. 갑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ㄴ. 을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서 공사(公私)의 구별을 강조한다.  
 ㄷ.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 절제(節制)를 강조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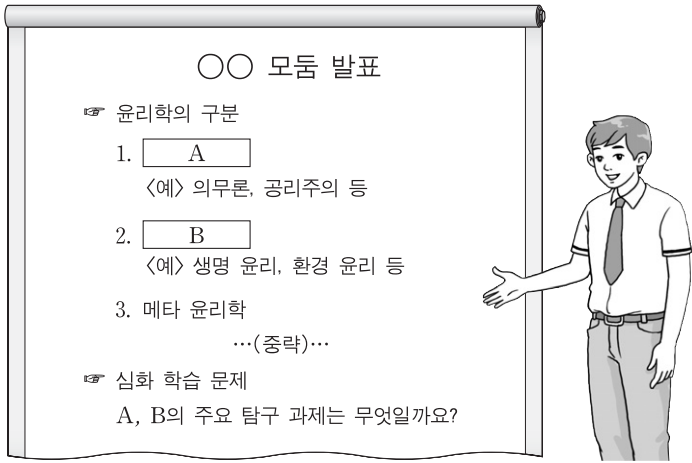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의 ‘심화 학습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사회 규범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 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도덕 법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ㄹ. 도덕 원리를 적용해 실생활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   | A | B |
|---|---|---|
| ① | ㄱ | ㄴ |
| ③ | ㄴ | ㄷ |
| ⑤ | ㄷ | ㄹ |
- |   | A | B |
|---|---|---|
| ② | ㄱ | ㄷ |
| ④ | ㄴ | ㄹ |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집단들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형성된다.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집단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다.

- ①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양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② 사회 구조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 ③ 정치적 강제력은 집단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 ④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 ⑤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다음 사상의 관점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발돋움하는 자는 오래 서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드러나지 못한다.
-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옳음은 그림에서 말미암고, 그림은 옳음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인(聖人)은 이들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天]에 비추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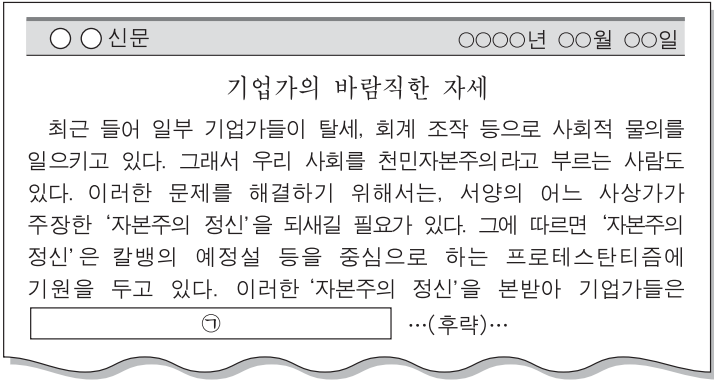
- ① 무위(無爲)의 원리를 실천하여 도덕적 본성을 확충한다.
- ② 욕심을 버리고 도(道)에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
- ③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 열반(涅槃)을 지향한다.
- ④ 신독(愼獨)으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간다.
- ⑤ 인위적 노력[僞]을 통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다.

4. 다음 글의 사상적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해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묻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과 분리된 궁극적 존재의 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그 궁극적 존재에 속하여 있음과 동시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이 모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궁극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거부해야 한다.
- ② 인간은 성스러운 삶보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인간은 감각적 경험을 진리의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초월성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어떤 존재에도 귀의(歸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5.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 ② 사치와 낭비 대신에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
- ③ 부의 축적을 지양하고 재산의 사회 환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배금주의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입각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6.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목적이 없거나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위해 모든 동물을 만들었다.  
 을: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자기 보존과 행복을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병: 대지는 단순한 토양이 아니며, 식물, 동물과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러한 생명 공동체는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려고 한다.

< 보 기 >

ㄱ. 갑은 을과 달리 기계론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생명을 이해한다.  
 ㄴ. 갑은 병과 달리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본다.  
 ㄷ. 병은 을과 달리 윤리적 고려의 대상을 무생물에게까지 확대한다.  
 ㄹ. 갑, 을, 병은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가)의 내용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는 방법에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자율적 규제’는 도덕적 행위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구조적 규제’는 일탈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의 의무화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비판의 내용>

A: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져 든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B: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나)

↑ 필요함

↑ 구조적 규제

↓ 불필요함

<범례>

갑, 을, 병, 정: 각각의 지점에 해당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

→: 비판의 방향

㉠, ㉡, ㉢, ㉣: 비판의 내용

- |                                                                                                                                       |                                                                                                     |
|---------------------------------------------------------------------------------------------------------------------------------------|-----------------------------------------------------------------------------------------------------|
| <p>A                      B</p> <p>① ㉠                      ㉡</p> <p>③ ㉢                      ㉣</p> <p>⑤ ㉤                      ㉥</p> | <p>A                      B</p> <p>② ㉦                      ㉧</p> <p>④ ㉨                      ㉩</p> |
|---------------------------------------------------------------------------------------------------------------------------------------|-----------------------------------------------------------------------------------------------------|

8. 다음은 서양 근대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자: 선생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격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리와 함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자율성이란 무엇을 의미 하나요?  
 사상가: 자율성이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돈이 필요해 장기 이식을 스스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상가: 그 행위는 ㉠

- 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우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② 장기 제공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③ 장기가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므로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장기 제공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⑤ 자연의 섭리에 위배되는 인위적 조작이므로 금지해야 합니다.

9. (가), (나)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이질적 요소가 유입되어 구심력이 약화되면 사회는 와해된다. 이질성을 제거하고 통합성을 강화해야 사회는 발전한다. 따라서 중심 문화가 소수 문화를 흡수해야 한다.  
 (나) 야채나 과일이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소스와 어울릴 때 맛있는 음식이 된다. 따라서 여러 문화가 각각의 정체성을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①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어울리면서 공존해야 하는가?  
 ② 소수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③ 중심 문화의 관점에서 문화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④ 소수 문화는 중심 문화 속에 편입되어 동질화되어야 하는가?  
 ⑤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보호해야 하는가?

1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사상가 갑, 을의 정치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신임을 얻으면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신임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

을: 주권 재민의 원리에 따라 개인은 평등하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권리를 지켜줄 때 나의 권리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 학생 답안

정치에 있어서 ㉠ 갑은 통치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 을은 공적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책무를 강조한다. ㉢ 갑은 통치자가 덕을 갖춘 것을 강조하고, ㉣ 을은 시민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지닐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 갑은 백성을 위한 덕치(德治)를, 을은 시민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둘 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과학에는 사회 집단의 정치적 관계, 가치관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과학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요구나 가치를 반영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과학자와 일반 대중이 함께하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가 절실히 요구된다.

— < 보 기 > —

- ㄱ. 과학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는가?  
 ㄴ. 과학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ㄷ. 과학은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 가치중립적이어야 하는가?  
 ㄹ. 과학 관련 논의에서 과학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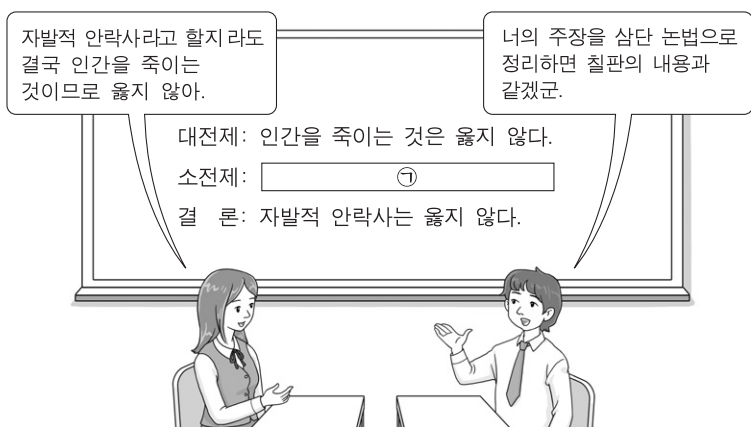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다음 전통 의례에 반영되어 있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혼은 혼인이라고 하는데, 혼(婚)은 ‘남자가 장가든다.’는 의미이고, 인(姻)은 ‘여자가 시집간다.’는 의미이다.  
 ○ 대례(大禮) 중 합근례(合簪禮)에서는 하나의 박을 쪼개 두 개로 만들어 술을 나누어 마신 후 다시 하나로 만든다.

- ① 부부의 관계는 이해타산적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② 부부의 역할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기초하여 정해져야 한다.  
 ③ 부부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위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④ 부부는 각자의 독자적 삶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⑤ 부부는 결혼 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18.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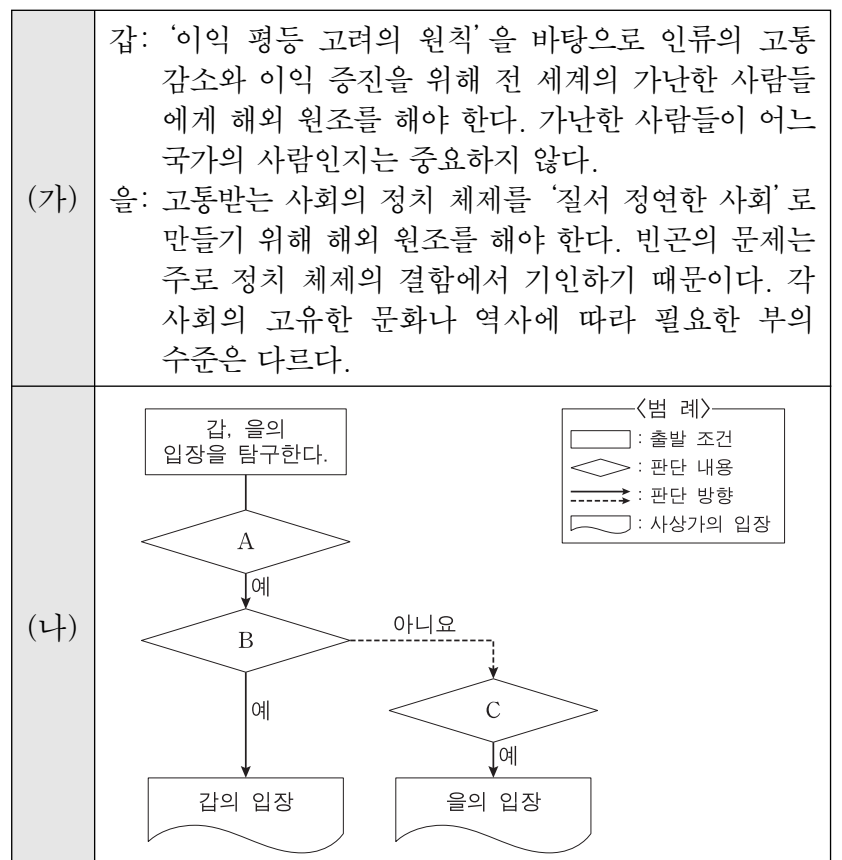
- ①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  
 ② 환자의 요구에 반하여 안락사를 시켜서는 안 된다.  
 ③ 환자가 뇌사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  
 ④ 시한부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스스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다.

19. (가)에 반영되어 있는 사상적 관점에서 (나)의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에게<br>넌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안쓰러워하지. 그런 마음을 측은지심(惻隱之心)이라고 해.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 ... (후략) ... |
| (나) | 체육 대회를 맞이하여 A가 속한 학급 학생들은 점심 시간에 모여서 단체로 응원 연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A는 점심을 먹은 후 쉬고 싶은 마음에 응원 연습에 참가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

- ① 좌망(坐忘)을 통해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하도록 해.  
 ② 서(恕)의 정신으로 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려 행동해야 해.  
 ③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정(禪定)을 닦아야 해.  
 ④ 친구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허심(虛心)의 태도가 필요해.  
 ⑤ 모든 친구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비(慈悲)의 마음을 지녀야 해.

2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해외 원조는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② B: 국가보다 개개인에 초점을 맞춰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③ B: 인류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④ C: 빈곤 문제 해결에서 사회 제도의 개선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⑤ C: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해외 원조의 수준은 동일해야 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1.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학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을: 윤리 문제는 ‘좋은’, ‘옳음’ 등과 같은 도덕 언어의 분석, 도덕규범에 관한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갑: 네 의견에 동의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을: 그렇지. 생명 윤리 문제, 정보 윤리 문제 등과 같은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날 윤리학은 ㉠

- ① 도덕의 규범적 근거로서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해.
- ② 인접 학문 영역과는 분리된 윤리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해.
- ③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해.
- ④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해야 해.
- ⑤ 구체적 도덕 문제에 도덕규범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해.

2.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 이행은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이다. 기업은 이익 추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기업의 어떤 행위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다.

을: 기업은 이익 증대를 위해 설립된다. 기업은 법과 해악 금지 원리의 준수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 책임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 소비자 등으로부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설립 목적을 실현할 기회가 많아진다.

< 보 기 >

- ㄱ.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목적인가?
- ㄴ.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 ㄷ. 사회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 책임 이행은 시장에 해로운가?
- ㄹ. 합법적 기업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쳐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가), (나) 사상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새벽에 잠을 깨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정돈한다. 마음이 세워졌으면 일어나 세수하고 단정히 앉아 몸을 단속한다. 이와 같은 수양으로 덕을 닦아 인의(仁義)를 지켜 나가야 한다.

(나) 여러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공(空)이라고 말한다.

- ① (가)는 홀로 있을 때 삼가는 태도[慎獨]를 강조한다.
- ② (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한 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친소(親疎)를 구별하는 사랑을 중시한다.
- ④ (가)는 삼독(三毒)의 제거를, (나)는 욕망의 절제를 강조한다.
- ⑤ (가), (나)는 사랑의 실천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를 것을 강조한다.

4.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전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전제: ㉠

결론: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 ①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 ③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 ④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속한다.

5.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시제(時祭)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집에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시제 전 사흘간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음악을 들으면 안 되고, 바깥출입도 자제하며, 오로지 마음속으로 시제 받으실 분의 모습만 생각하렴. 그래야만 그분의 모습을 보는 듯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정도로 정성이 지극하게 되어 시제 시에 신이 내려 오셔서 음식을 흠향하시게 되는 것이란다. ... (후략)...

- ① 남녀가 만난다는 의미로 하늘과 땅에 서약을 하는 의례이다.
- ② 아동을 벗어나 성인(成人)으로서의 긍지를 일깨우는 의례이다.
- ③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새로운 이름[字]을 부여받는 의례이다.
- ④ 모든 세대와 인간관계의 시초로서 가족이 성립하는 의례이다.
- ⑤ 생명의 근원을 확인하고 생명의 연속성을 갈망하는 의례이다.

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
|-----|-------------------------------------------------------------------------------------------------------------------------------------------------------------------------------|
| (가) |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德)에 어긋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예(禮)에 어긋난다.                                                                                       |
| (나) | 개체 생명은 가(家) 속에서 계승되는 집단 생명의 일부이다. 따라서 개인은 집단 생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 시작이다. 또한 ㉠은/는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다. |

- ① 부모를 부끄럽지 않게 해 드리는 것이다.  
 ② 부모가 모두 돌아가실 때에야 비로소 종료된다.  
 ③ 자손을 낳아 대(代)를 잇는 것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④ 부모를 삼가 모시고 그 뜻을 헤아려 실천하는 것이다.  
 ⑤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이름을 떨치는 것으로 완성된다.

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
|----|----------------------------------------------------------------------------------------------------------------------------------------|
| 갑: | 자기가 속한 종(種)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차별적 태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착취할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
| 을: |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

- ① 갑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② 을은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동정심을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④ 갑, 을은 인간 이외 존재의 도덕적 지위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본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자원의 공기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을 제약해서도 안 돼. 정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돼. | 정보는 자연의 공기가 아니라 산소통의 공기와 같은 것이야. 산소통의 공기를 쓰려면 그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정보 또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생산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해. |
|                                                                                          |                                                                                                      |
| 갑                                                                                        | 을                                                                                                    |

- ① 갑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정보 공유 금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갑: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br>을: 범죄 예방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強度)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범죄자의 사형 장면을 보는 것은 종신형과는 달리 범죄 억제에 일시적인 효과만을 갖는다. |
| (나) |                                                                                                                                                                                                                             |

- <보 기>

ㄱ. A: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형벌이다.  
 ㄴ. A: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 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ㄷ. B: 범죄자의 교화와 개선이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ㄹ. C: 사형 제도 존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회적 유용성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갑: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br>을: 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
|------------------------------------------------------------------------------------------------------------------------------------------------------------------------------------------------------------------------------------|

- <보 기>

ㄱ. 갑은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ㄴ. 을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ㄹ. 갑, 을은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가), (나)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과 땅은 사랑을 모르므로[不仁]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성인(聖人)도 사랑을 모르므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나)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며, 이 도를 닦아 나가는 것을 교화[敎]라고 한다.

- ① (가)는 인간과 하늘을 상호 독립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나)는 자연을 필연적 질서가 지배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이 목적론적 체계로 구성된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인(仁)과 같은 덕의 근원이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연기적(緣起的) 관점에서 자연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년 ○월 ○일

칼럼

최근 어떤 나라에서 한 언론사가 정부의 외교 기밀을 폭로한 기사를 연재했다. 이에 정부는 그 기사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보도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정부가 진실을 감추거나 국민을 속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란 점을 근거로 보도를 허용하였다. 이 판결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정한 정보 공개 기준이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은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권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보 제공이 바로 언론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 사회의 언론은 ㉠ …(후략)…

- ① 진실을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보도로 인한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 ④ 국익 관련 정보 보도에 언론의 자유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3. 다음 대화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구에서 특정 소재로 만든 배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스포츠에서의 경쟁은 공정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 배트를 사용하면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어 관중에게 더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스포츠는 놀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

그렇다 하더라도 각 선수가 사용하는 장비의 질적 차이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경기력이 향상된다면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는 선수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해. 왜냐하면 나는 ㉠ 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 ① 스포츠가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② 스포츠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활동이어야 한다
- ③ 신체적인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 스포츠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 ④ 개인의 노력 이외의 것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⑤ 경기력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불공정 경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14. (가)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비중이 줄어든다. 따라서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 (나) |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지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지의 고양에 의해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들이 조화를 이룰 것이다.   |

—————< 보 기>—————

ㄱ. 도덕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무시한다.

ㄴ.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 간에 모순이 지속됨을 간과한다.

ㄷ.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동일함을 간과한다.

ㄹ.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사회 부정의의 원인임을 간과한다.

- ① ㄱ, ㄴ② ㄱ, ㄷ③ ㄷ, ㄹ
- ④ ㄱ, ㄴ, ㄹ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국가들은 무정부 상태가 본질인 국제 관계 구조에서 생존을 위해 언제나 권력과 국익을 추구한다.

을: 국제 제도와 민주적 여론을 통한 국가 간 신뢰와 협력 확대가 국제 평화의 필수 조건이다.

병: 국가 정체성과 국제 관계 구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나)

국제 관계에 대한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 ㉡ B ㉢ C ㉣ D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입장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국제 관계에 대한 입장

—————< 보 기>—————

ㄱ. A: 국가를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하는가?

ㄴ. B: 국가 간 세력 균형이 안보를 위한 최적의 수단인가?

ㄷ. C: 국제 관계에서 보편적 도덕규범의 수립이 가능한가?

ㄹ. D: 행위자의 관점에 따라 국익의 내용이 변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ㄹ
- ④ ㄱ, ㄷ, ㄹ⑤ ㄴ, ㄷ, ㄹ



16. 다음 사상가의 예술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아름다움[美]은 대상의 완전함, 즉 정확한 비례와 균형에서 나온다. 진리[眞]가 완전하듯이 미 역시 완전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도덕적인 좋음[善]을 뜻한다. 한편, 예술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다. …(중략)… 예술가들로 하여금 선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게 하고 시민이 이런 작품에 익숙해지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품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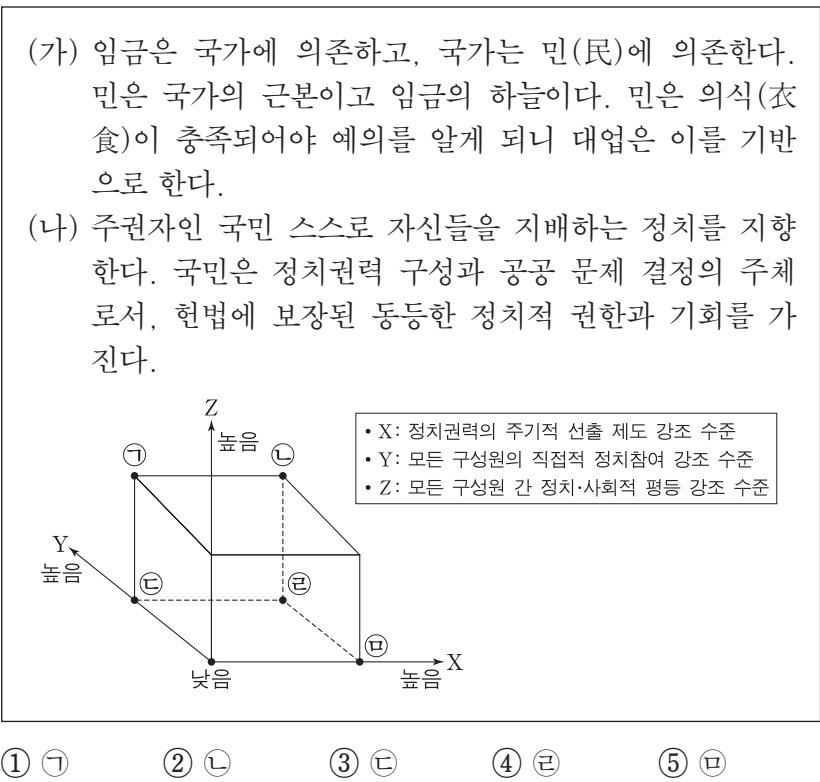
- ① 예술이 도덕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아름다움이 무질서한 대상에도 존재한다고 본다.
- ③ 예술은 사회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
- ④ 예술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가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난 아름다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1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민족은 근대화라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등장한 ‘상상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  
 을: 그렇지 않아. 민족은 고대 이래 혈연, 언어를 공유하는 실체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  
 갑: 민족은 혈연이나 언어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지에 기초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민족은 ‘매일 매일의 국민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는 비유도 가능해.  
 을: 민족은 대대로 이어진 원초적 유대로 결속된 집단이야. 그래서 개인이 자기 의지대로 민족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 ① 민족은 언제부터 어떤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왔는가?
- ② 민족이 등장한 근대 이후의 사회적 조건은 무엇인가?
- ③ 민족의 구성 요소는 근대화 과정에서 왜 변화하였는가?
- ④ 민족 구성원의 의지는 원초적 유대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 ⑤ 민족 형성이 민주주의 발전과 병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8.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19. 갑, 을이 〈사례〉속 A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을: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

〈사 례〉

A국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속세율과 비례적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예산을 증대하였다.

—〈보 기〉—

ㄱ.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  
 ㄴ.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므로 지지한다.  
 ㄷ.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지지한다.  
 ㄹ.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을 부정하므로 반대한다.

- |   |   |   |   |   |   |   |   |   |
|---|---|---|---|---|---|---|---|---|
|   | 갑 | 을 |   | 갑 | 을 |   | 갑 | 을 |
| ① | ㄱ | ㄴ | ② | ㄱ | ㄷ | ③ | ㄴ | ㄷ |
| ④ | ㄴ | ㄹ | ⑤ | ㄷ | ㄹ |   |   |   |

20.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과학은 사회적 적용을 전제로 한다. 과학은 연구 활동 및 그 결과의 활용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된다.

을: 과학은 과학적 진리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해악은 기술 개발자와 이용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과학 연구 활동은 윤리적 평가 대상이 아니다.

◎ 학생 답안

과학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 갑은 과학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보며, ㉡ 을은 과학 연구 결과의 활용이 도덕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 갑은 과학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지만, ㉣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규범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 갑, 을은 과학 연구 활동은 그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세기 들어 ‘윤리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 언어의 의미 분석에 몰두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이 윤리학은 (가) 을 주요 탐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도덕 언어의 분석이나 기존의 도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덕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안락사, 임신 중절 등과 같은 현실적 삶에 등장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학은 (나) 을 주요 탐구 과제로 삼는다.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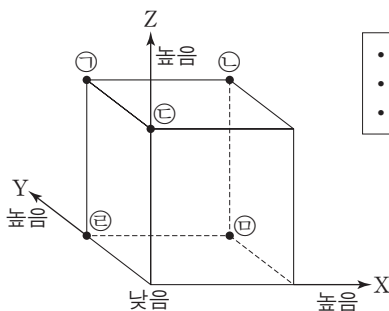
- ㄱ.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객관적 도덕규범을 정립하는 것
- ㄴ.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것
- ㄷ. 특정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설명하는 것
- ㄹ.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실천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 |     |     |     |     |
|-----|-----|-----|-----|
| (가) | (나) | (가) | (나) |
| ① ㄱ | ㄴ   | ② ㄱ | ㄷ   |
| ③ ㄴ | ㄷ   | ④ ㄴ | ㄹ   |
| ⑤ ㄷ | ㄹ   |     |     |

2.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므로 그것을 만든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심화할 수 있지만,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부여하며,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다. 만약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진화는 멈추게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 X: 지적 재산권의 보호 강조 정도
- Y: 정보의 공유재적 성격 강조 정도
- Z: 정보 격차의 완화 가능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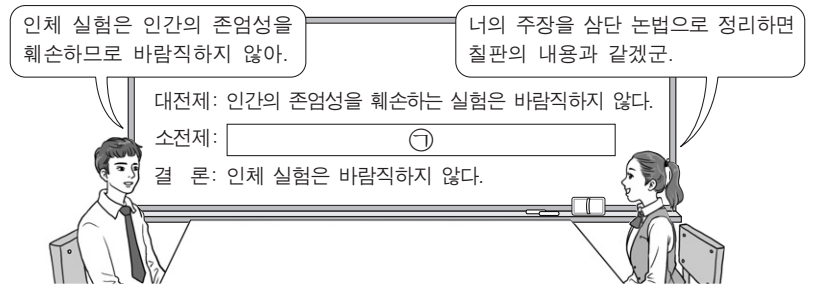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은 온갖 것을 섬길 뿐, 그것들과 다투는 일이 없다.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기에 도(道)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다투는 일이 없으니 나무람받을 일도 없다.

- ① 집착에서 벗어나 무욕(無欲)에 이르는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 ② 선천적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예(禮)에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자연 만물의 연기성(緣起性)을 깨달아 자비로운 삶을 추구한다.
- ④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독(愼獨)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위해 거경(居敬)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4.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인체 실험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초래된다.
- ②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 ⑤ 인간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나) 사상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 관리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나) 하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보시고, 하늘이 들으시는 것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들으신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

- ① 민생 안정과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가?
- ② 민의(民意)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중시하는가?
- ③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피치자의 의사(意思)에서 찾아야 하는가?
- ④ 통치자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피치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가?
- ⑤ 피치자는 통치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가?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을: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병: 형벌과 위법 행위 간에는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나)

사형 제도에 대한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graph TD
            A{A} -- 예 --> G1[갑의 입장]
            A -- 아니요 --> B{B}
            B -- 예 --> C{C}
            B -- 아니요 --> D{D}
            C -- 예 --> G2[을의 입장]
            D -- 예 --> G3[병의 입장]
            
```

<법 레>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 보 기 > —

ㄱ. A: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ㄴ. B: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인가?

ㄷ. C: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ㄹ. D: 사형 제도의 정당성은 공익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공손하라. 그것이 곧 인(仁)의 실천이다. 관대하라. 그것 역시 인의 실천이다. 공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을 것이다.

(나)

㉠은/는 동기간(同氣間)에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悌]하는 것이다. 뼈와 살은 비록 나뉘었으나 본래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을/를 실천해야 한다.

— < 보 기 > —

ㄱ. 향렬(行列)을 달리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ㄴ. 의(義)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ㄷ. 사회적 장유(長幼)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의 토대가 된다.

ㄹ.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孝)를 실천하는 길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남자는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하고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기러기[木雁]를 상 위에 놓고 공손히 절을 한다[揖]. ... (중략) ... 그 후 서로 절을 한 다음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새로운 사회관계를 이루게 된다.

- ① 후손들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통과 의례이다.
- ② 삼가 조상을 모시고 집안을 이어가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 ③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스승의 노고에 감사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④ 성인(成人)의 지위를 인정받아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의례이다.
- ⑤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관직에 추천할 때 행하는 의례이다.

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업의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을 없이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역 복지 사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음으로써 기업의 주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보 기 > —

ㄱ. 기업은 취약 계층의 삶의 수준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ㄴ. 기업은 사회로부터 얻은 이윤의 환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ㄷ. 기업은 사회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조직이어야 한다.

ㄹ. 기업은 이윤 증대를 위해서라도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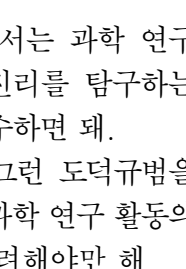
10.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과학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 따라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도덕규범만 준수하면 돼.

을: 과학자는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도덕규범을 지켜야 해. 아울러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과학 연구 활동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만 해.

갑: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과학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핵분열을 연구하는 것과 그것을 활용하여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야.

을: 아니야. 어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원자 폭탄의 제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의 복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해.



- ① 과학 연구의 결과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가?
- ②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는 인류의 복지와 무관한가?
- ③ 과학 연구는 참과 거짓의 탐구를 목적으로 삼는가?
- ④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도덕규범을 지켜야 하는가?
- ⑤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하는가?



11. 갑, 을 사상가의 직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하기에 쉬운 일만을 원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道)에 정통한 군자는 사람 들마다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어[別] 서로 어울리게 한다.  
을: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갑은 백성들의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을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직업 분담에서 예(禮)를, 을은 각자의 탁월성을 중시한다.
- ④ 갑, 을은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 ⑤ 갑, 을은 구성된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의 사명은 생명에 대한 경건한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 등을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최고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작가의 견해가 ㉠고 생각한다.

- ① 예술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술은 감정을 순화하여 인격 함양을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예술과 도덕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예술이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13.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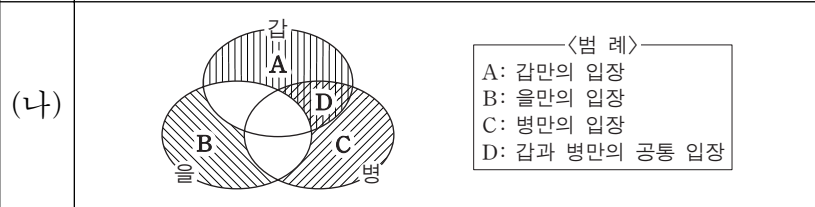
(가) 국수의 면과 국물이 주를 이루고 여기에 갖가지 고명이 얹혀 입맛을 돋우듯이, 다른 문화는 색다른 맛을 더해 주는 고명으로 자신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  
(나) 그릇에 담긴 다양한 야채가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이루듯이,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 (가)는 주류 문화를 전제로 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한다.  
㉡. (나)는 각 문화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중시한다.  
㉢. (가), (나)는 비주류 문화의 주류 문화로의 편입을 중시한다.  
㉣. (가), (나)는 다양한 문화를 전제로 한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환경 윤리적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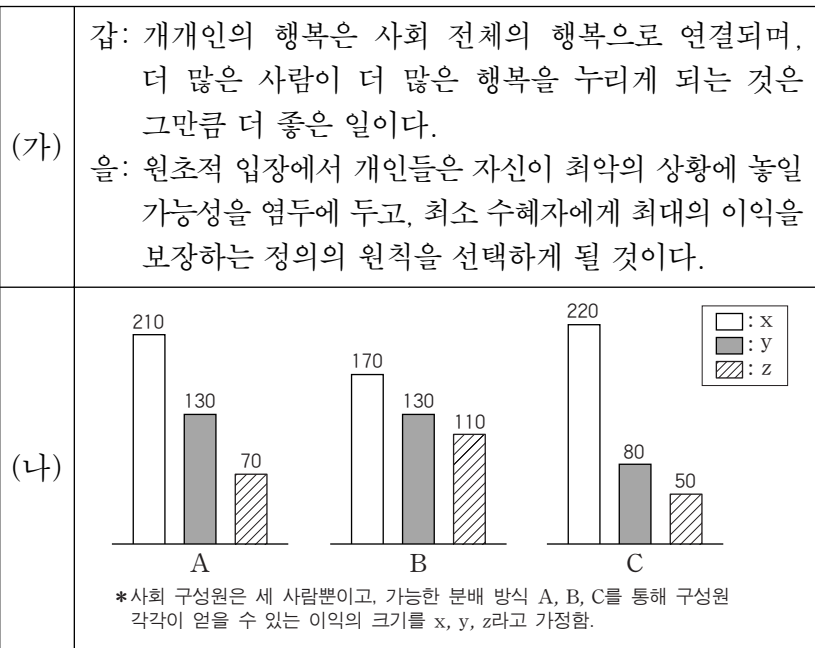
(가) 갑: 단지 호모 사피엔스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종차별주의적 발상이다. 꽤고 감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할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이다.  
을: 인간만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 관심을 초월한 새로운 의무, 즉 지구의 모든 존재에 대한 의무를 자신에게 부과한다.  
병: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A: 이성이 없지만 감각을 지닌 존재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B: 인간만의 이익 관심을 넘어선 탈인간 중심주의가 요청된다.  
㉢. C: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 D: 식물은 내재적 가치가 아닌 수단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15.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이 (나)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C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여 C보다 B를 지지한다.
- ② 갑은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C를 지지한다.
- ③ 을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
- ④ 을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 ⑤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여,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

16.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칼럼

언론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그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그가 큰 죄를 지은 범죄자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정당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중에 그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겠지만 그에게서 범죄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언론에 신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 …(후략)…

- ① 언론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언론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③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언론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⑤ 언론은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의 신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17. 다음 인터뷰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위로 달리던 선수가 아이를 피하려다 넘어졌을 때 왜 추월하지 않고 그 선수가 다시 레이스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까?

상대 선수는 적대적 경쟁자가 아닙니다. 상대의 불운을 이용해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1

2

3

4

그때 추월하는 것이 반칙은 아니었을 텐데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신체적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정당당한 승리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

- ① 제도화된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에 따라 경쟁을 해야 합니다.  
 ② 동등한 조건하에서 상대 선수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합니다.  
 ③ 경기에서의 놀이적 요소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④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⑤ 경기의 과정보다는 경기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국제 관계 이론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전쟁을 말하면서 전쟁의 비참함을 나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도 무지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심이 들어도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는 전쟁을 통한 이익이 전쟁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전쟁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 ① 강제력을 가진 세계 정부 수립을 통한 분쟁의 해결을 강조한다.  
 ②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국가 간의 분쟁 해결을 강조한다.  
 ③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정책이 분쟁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④ 전쟁을 도덕의 문제로 간주하여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한다.  
 ⑤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이해 부족에서 전쟁이 비롯됨을 강조한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충동에 의지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A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A는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기>

- ㄱ.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의 필요성을 깨달으렴.  
 ㄴ. 사회 갈등이 집단 간 권력 불균형에 의해 지속됨을 깨달으렴.  
 ㄷ.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 실현이 수월해짐을 깨달으렴.  
 ㄹ.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깨달으렴.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이것을 공(空)하다고 한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에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공하다.

(나)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化生],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하면, (가)는 ㉠ 자연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며, ㉡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나)는 ㉢ 하늘[天]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덕 원리의 원천으로 보며, ㉣ 하늘 아래 만물이 무위(無爲)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 (가), (나) 모두 자연 만물을 상의(相依)와 화해(和諧)의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가?’, 혹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옳은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사실들을 명확히 기술하고 그러한 사실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중립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에 중시하고 있다
- ③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도덕 관행에 대한 기술보다 삶의 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법칙이 시공을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 다음 글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문 ○○○○년 ○월 ○일

## 칼럼

최근 스포츠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올림픽에 참가한 A 선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A 선수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 출신의 선수로 국제 수영 연맹의 특별 초청을 받아 출전하였다.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은 결승점에 도착하였지만, 그는 아직 중간 지점밖에 오지 못했고 이미 체력이 다하여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다. 분명 그 자신은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나아갔다. 이러한 모습에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A 선수의 모습에서 스포츠의 의미는 ㉠에 있음을 알게 된다. …(후략)…

## < 보 기 >

- ㄱ. 불굴의 인내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 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
- ㄷ. 최선을 다함으로써 관중에게 감동을 주는 것
- ㄹ. 기술적 반칙으로 관중에게 재미를 주는 것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종이나 성(性)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 그른 것처럼, 우리 종(種)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평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통과 쾌락의 감수 능력이 이익 관심을 갖는 전제 조건이다.  
을: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선(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변화하는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種)을 재생산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 ① 갑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생태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 ③ 을은 자연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의 대상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생명을 인간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

4. 다음 사상의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고정된 자성(自性)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공(空)하지 않다고 하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번뇌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 털끝 하나에도 끝없는 대지와 큰 바다가 들어 있으며, 끝없는 대지와 큰 바다가 티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고통이 없는 해탈을 이루게 될 것이다.

- ①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멸(生滅)하는 관계의 그물[網]이다.
- ②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禮法)의 근거이다.
- ③ 인간의 이성으로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미성숙한 존재이다.
- ④ 인간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유기적인 무위(無爲)의 체계이다.
- ⑤ 인간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적 가치의 총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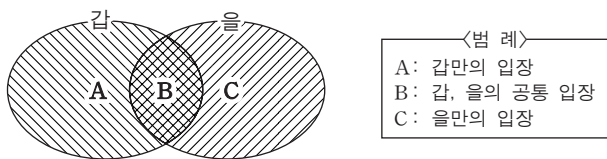
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만, 사회는 이기심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비도덕적이다.  
을: 원초적 입장에서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합리적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른 채 정의의 두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 ① 갑은 개인의 선의지가 없어도 사회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개인보다 사회가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당한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 본다.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p> <p>을: 법의 일반적 목적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악이다. 공리의 원칙에 의하면,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뿐이다.</p> |
| (나) |                                                                                                                                                      |

— < 보 기 > —

- ㄱ. A: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ㄴ. B: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다.  
 ㄷ. C: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ㄹ. C: 사형의 해악은 사형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오늘날 장기 이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실용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에 심폐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갑: 아닙니다. 뇌사를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람의 인격은 심장이 아니라 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뇌의 명령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존엄한 것입니다. 또한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판정이 악용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②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되는가?  
 ③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④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  
 ⑤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

8. 다음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인정(仁政)은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를 바로잡으면 토지를 바르게 분배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바르게 지급하면 나라가 기름지게 될 것이다.  
 ○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인(大人)이 하는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기 마련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 < 보 기 > —

- ㄱ. 직업 선택은 능력보다 선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ㄴ.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ㄷ. 통치자는 구성원의 생계 유지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ㄹ. 개인의 노동은 사회 구성원들의 운택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온난화 또는 테러와 같은 글로벌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무차별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범위가 방대하여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어떤 국가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위험 사회'의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꾸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원하기에 글로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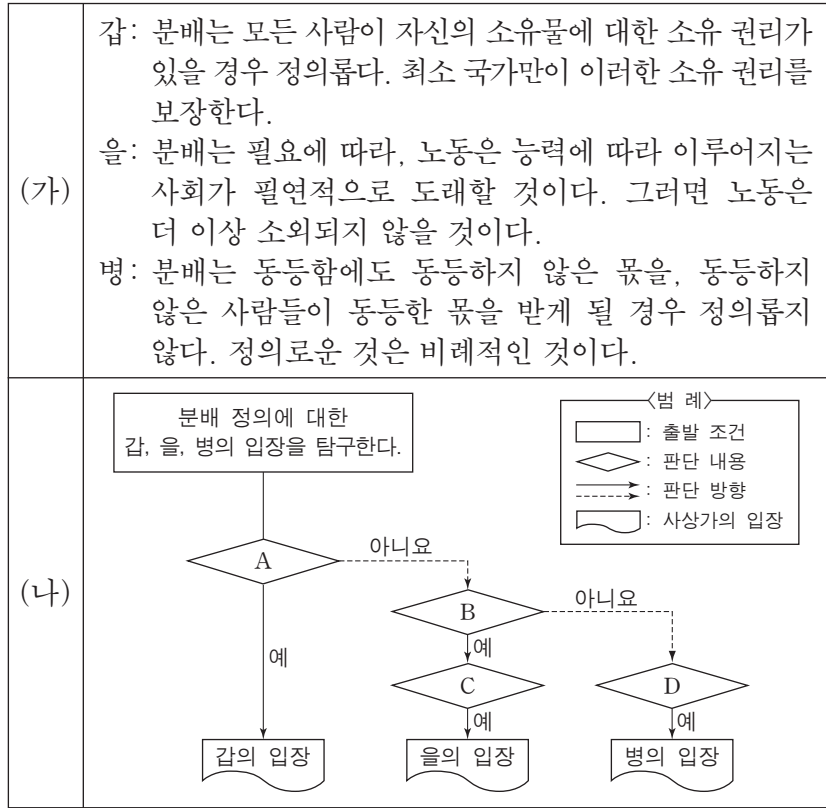
- ① 글로벌 위험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② 글로벌 위험은 인류 전체를 광범위하게 위협하고 있다.  
 ③ 글로벌 위험은 세계 시민주의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④ 글로벌 위험은 인류 공존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고 있다.  
 ⑤ 글로벌 위기의 대응 원칙은 이익의 최대화가 아닌 위험의 최소화이다.

1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사회악의 근원을 개인의 이기심에만 돌리는 것은 진부한 처방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 방법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의해 이윤 추구의 경쟁이 제한되는 비합리적인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 ①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② 기업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 결과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③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비합리적 관행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이윤 추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때 보장되어야 한다.  
 ⑤ 기업의 합리적인 활동에 의한 최대 이윤 추구는 보장되어야 한다.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  
 ㄴ. B: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  
 ㄷ. C: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  
 ㄹ. D: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 사상의 국제 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국제 관계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과 이익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야 국제 체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나)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오직 힘의 논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 관계는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국제 관계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국가의 정체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계속 변화한다고 보며,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 국가 간에 공유하는 문화, 역사와 같은 공동의 기반을 토대로 조화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반면 (나)는 ㉢ 국가 간에는 이익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가 있을 수 없으므로 국제 관계는 이기적 갈등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며, 국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 국가 간 인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중립적인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 (가), (나)는 모두 이익이 충돌하는 국제 관계에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의 필요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음악[樂]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으며 사람의 음성과 동작에는 성정(性情)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군자는 음악을 통해 도(道)를 얻음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욕망 채움을 즐거워한다. 도로써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워도 혼란하지 않으며, 욕망으로 인해 도를 잃으면 혼란해져서 즐겁지 않게 된다.

- 〈보기〉
- ㄱ. 인간의 성정과 무관한 음악은 있을 수 없다.  
 ㄴ. 음악은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ㄷ. 예법에 맞는 음악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ㄹ. 음악에 대한 도덕적 규제는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네가 다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단다. 옛 선현들에 의하면, 군자는 친족을 사랑하며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고, 만물에까지도 사랑이 미치게 해야 한다고 했단다. 이는 마치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겠지. 이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란다. ㉡을/를 행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증자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것을 보고 "비로소 걱정을 면했다"라고 안도했다고 하더구나. ... (후략)...

- 〈보기〉
- ㄱ. 음양(陰陽)의 조화를 통해서 형성된 횡적 관계의 미덕이다.  
 ㄴ. 사회적 역할에 맞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름을 떨칠 때 완성된다.  
 ㄷ. 조상에 대한 공경을 담은 전통적 제례(祭禮)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ㄹ. 혈연관계의 친밀함을 배제한 공평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리의 관점으로 설명하셨는데요, 진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4

하지만 그 소수 의견이 옳지 않다면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설령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인류는 ㉠

- ① 다수의 의견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② 기존의 진리가 지닌 가치와 의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③ 다수뿐만 아니라 소수마저 동의해야 진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④ 다수에 의해 확립된 의견이 진리의 표준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⑤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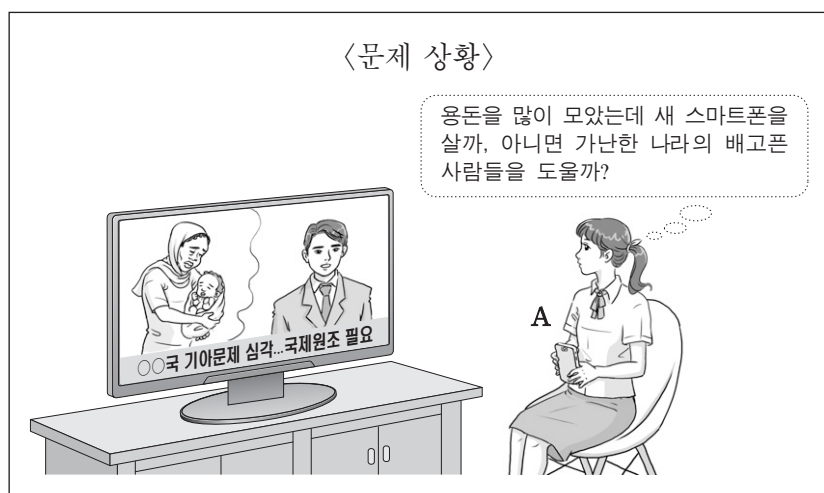
16.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p>덕이 있는 사람[德人]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며, 움직일 때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옳고 그름[是非], 예쁨과 미움[美惡]을 분별하여 가슴에 담아 두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모두가 흠족해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A)</td><td></td><td>(B)</td><td></td><td></td></tr> <tr><td></td><td></td><td></td><td>(C)</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br/>         (A):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br/>         (C):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함.<br/>         예) “제사 드리기 전에 목욕○○하렴.”</p> <p>[세로 열쇠]<br/>         (B): …… 개념</p> |  |     |  |  |  |  |  | (A) |  | (B) |  |  |  |  |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어짊과 의로움을 쌓아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는 노력이다.
- ② 사욕(私欲)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 ③ 선(禪)을 수행하여 아름다움의 가치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이다.
- ④ 자연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비우려는 노력이다.
- ⑤ 지속적인 경전 공부를 통해 성인의 도(道)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17.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를 얼마나 잘 겪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세계 모든 사람의 이익은 그 사람이 처한 국적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원조는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하렴.
- ② 원조는 자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함을 명심하렴.
- ③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임을 명심하렴.
- ④ 원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베푸는 자선 행위임을 명심하렴.
- ⑤ 빈곤은 해당 국가의 자체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함을 명심하렴.

1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1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의 도구적 측면만을 중시하고 의사소통적 측면을 간과하였다. 의사소통적 이성은 사회 집단이 자신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된다. 즉 그것은 ‘담론’의 상황에서 작동되는데, 이른바 ‘공론장’에서 논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
| (나) |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가?                                                                                                                           |

- ① 시민들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 ② 과학 기술 전문가 집단의 토론 결과만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③ 이익 집단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시민 사회보다 관련 국가 기관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⑤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다. 냉전 이후 서로 다른 문명에 속한 집단, 인접 국가, 핵심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문명 충돌은 종교와 같은 문화적 신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을: 문명의 차이로 발생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은 관용과 화합의 의지로 극복될 수 있다. 문명 간의 개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문명 충돌이 아닌 문명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① 갑은 동일 문명권의 국가들이 핵심국을 중심으로 결속한다고 본다.
- ② 갑은 평화를 위해 문명 간에 공유하는 가치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문명의 발전은 타 문명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은 분쟁의 원인이 문명의 이질성에, 을은 소통 단절에 있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을: 너는 윤리학이 당위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  
병: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면서 도덕 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 < 보 기 > —  
ㄱ. 갑은 각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강조한다.  
ㄴ. 을은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ㄷ. 병은 윤리학과 인접 학문들의 학제적인 연계를 중시한다.  
ㄹ. 을, 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은 물론이고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유전자에 대한 치료 목적의 의학적 간섭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개량을 위한 유전자 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에 의해 개량된 능력을 갖고 태어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얻어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생학적 조치를 통해 미래 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획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 ① 유전자에 대한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도 금지되어야 하는가?  
② 부모는 자녀 출산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는가?  
③ 부모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 미래 세대의 삶을 기획해야 하는가?  
④ 미래 세대의 능력 향상을 위한 우생학적 조치를 허용해야 하는가?  
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량된 미래 세대는 자유를 박탈당하는가?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삶이 일종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를 타인과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두 존재는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 있다.

— < 보 기 > —  
ㄱ.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ㄴ.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ㄷ.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ㄹ.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우리는 부패를 조장하는 관행을 법적 제재로 척결하려 노력해 왔지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는 사회적 자본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주로 신뢰, 규범, 관용 등 도덕적 자원들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공공 문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시민 결사체들을 통해 의견 대립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결과 반칙과 부패는 감소하고, 호혜성과 생산성은 증가합니다.



- 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청렴성과 연대의식을 함께 강화시킨다.  
②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결 조건이다.  
③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④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⑤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5.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이다. 나는 미미한 존재로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천지의 기운[氣]을 나의 몸으로, 천지의 이치[理]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
| (나) |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는[生] 까닭에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멸하는[滅] 까닭에 저것이 사멸한다.       |

- ① (가)는 만물이 지닌 생명력을 천도(天道)의 도덕적 표현으로 본다.  
② (나)는 만물의 변화는 물질적 요소의 이합집산일 뿐이라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천지를 가치중립적인 물리적 대상으로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천지를 질서가 없는 무위(無爲) 체계로 본다.  
⑤ (가), (나)는 만물을 연기(緣起)에 의한 상호 의존적 존재로 본다.





11.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 부친의 부고(訃告)를 접하고 눈앞이 캄캄했다네. 자네는 성복(成服)하기 전에 곡읍(哭泣)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기진(氣盡)하면 아랫사람에게 대신 곡을 하도록 하거나. 장사 지내기 전에는 정해진 때가 없이 곡을 하고, 졸곡(卒哭)한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번만 곡을 해도 된다네. ... (후략)...

- 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종적인 혈연관계가 소멸되는 의례이다.
- ② 자기 존재의 근원인 시조(始祖)를 추모하고 보은하는 의례이다.
- ③ 기성 사회로 통합되어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 의례이다.
- ④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한 존재에게 효(孝)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 ⑤ 남녀가 서로 결합하여 가계(家系)를 잇겠다고 서약하는 의례이다.

1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종교는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과학은 실험 영역에서 사실과 이론을 다룹니다. 도덕과 과학이 서로 구분되지만 충돌하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듯이, 종교와 과학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종교는 과학의 맹목적 환상과 잘못된 절대성을 정확하고, 과학은 종교의 오류와 미신을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변영할 수 있습니다.



- ① 갑은 과학이 종교를, 종교가 과학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을은 종교와 과학이 상보적인 관계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종교적 믿음이 과학적 사실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한 영역의 지식만 가치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

13. 현대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

을: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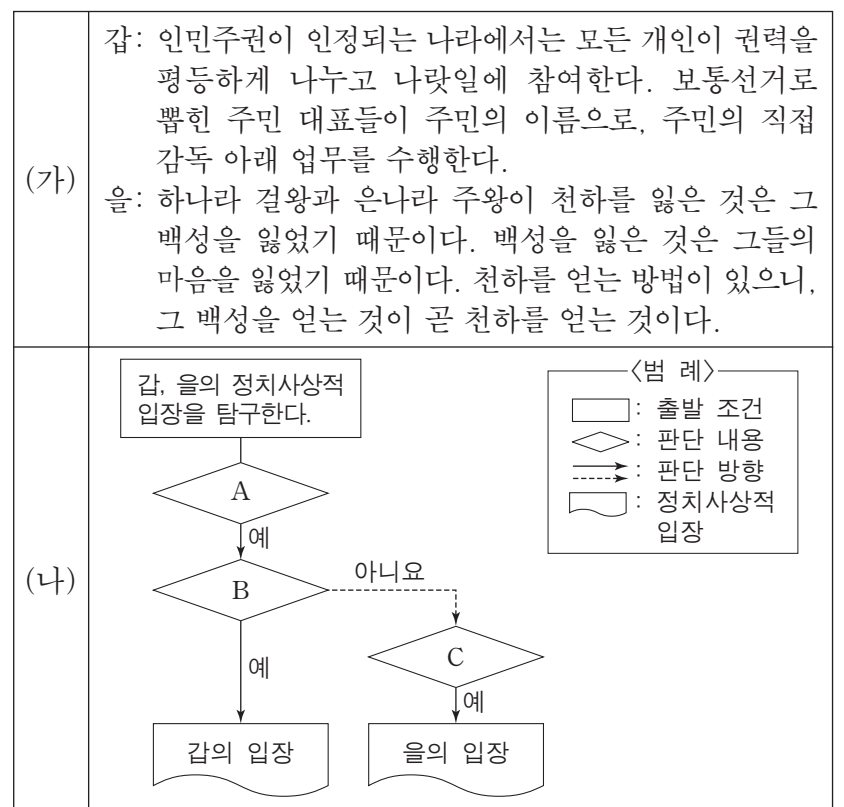
- ①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 ②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 도출된다고 본다.
- ⑤ 갑은 최소 국가를,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1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법을 준수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여 수익을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향한 기업인의 선의가 사회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경영을 통한 재무적 성과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인권, 환경 등의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공익 증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목적인 이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견해가 ㉠ 고 생각한다.

- ① 기업의 책임과 주주들의 이익 증진은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익이 양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공동선의 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기업의 공익 활동이 기업 경쟁력 상실의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합법적인 경영이 합리적인 이윤 추구의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15.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 ㄱ. A: 정치 권력은 피치자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ㄴ. B: 정책 결정에서 피치자의 복리(福利)를 추구해야 하는가?
  - ㄷ. C: 위정자는 피치자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 ㄹ. C: 가족 사랑의 원리[親親]를 정치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자신의 몸을 닦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한다[正心].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신의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誠意]. |
| (나) | 사람을 제대로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에 대해 알려하는가?        |

- ①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② 자신의 업(業)에 의해 또 다른 삶을 결정짓는 윤회의 과정이다.  
 ③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기(氣)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④ 고통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⑤ 불멸의 영혼이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과정이다.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예술은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예술가에게 윤리적 공감은 불필요하다. 아름다운 사물을 오직 아름다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을: 예술은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다. 예술은 오직 인류애를 위한 것이며, 예술의 목적은 미(美)도 아니고 쾌락은 더더욱 아니다.

— < 보 기 > —

- ㄱ. 갑은 예술에는 예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예술 활동에서 미적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선(善)을 증진하는 예술을 좋은 예술로 본다.  
 ㄹ. 갑은 예술의 독립성을, 을은 사회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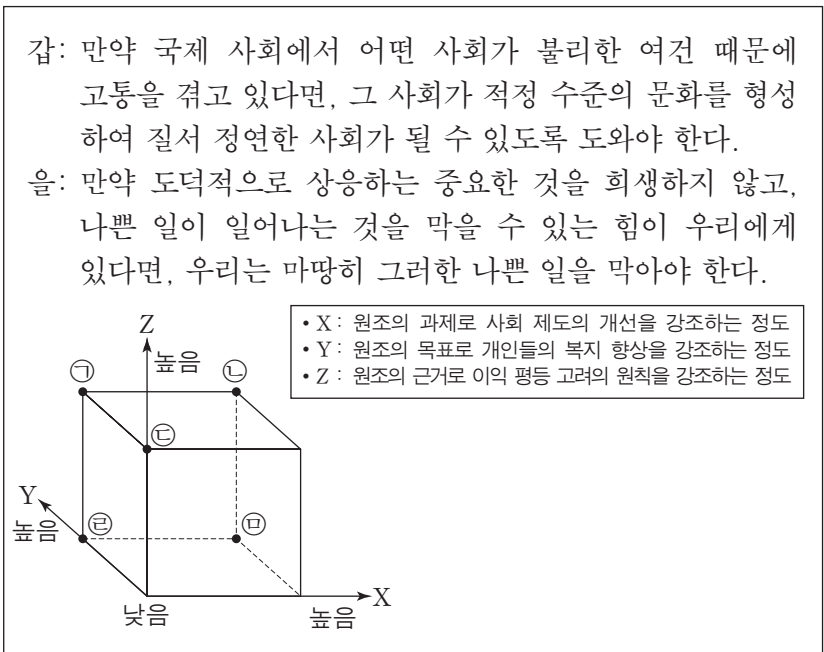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공화국으로 전환한 계몽된 자유 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호혜적인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평화를 확정해야 한다.

- ① 자유 국가들 간의 연방 단계에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②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  
 ③ 도덕적 입법의 한계를 세계 정부의 강제력으로 보완해야 한다.  
 ④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⑤ 세계 평화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나 정치적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

19. 갑 사상가에 비해 을 사상가가 갖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가)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p>친애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자는 현자(賢者)가 아니다. 이(利)와 해(害)를 구별하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 명성을 좇아 참된 자기를 잃은 자는 선비[士]가 아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A)</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br/>         (A): 엘리야데가 제시한 ‘성스러움의 드러남’이라는 개념<br/>         (B):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함’을 뜻하는 사자성어</p> <p>[세로 열쇠]<br/>         (A): ..... 개념</p> |  |  |     |  |  |  |  |  |  |  |  | (A)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좌망(坐忘)을 통하여 일체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 존재이다.  
 ② 지혜를 갖추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衆生)을 제도하는 존재이다.  
 ③ 사욕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 도덕적 인격을 완성한 존재이다.  
 ④ 덕과 형벌을 병행하여 왕도(王道)의 이상을 구현하는 존재이다.  
 ⑤ 허심(虛心)에서 깨어나 모든 망상과 번뇌로부터 초월한 존재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짓말은 나쁜가?’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답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과 같은 물음에 답하는 윤리학의 분야가 필요하다.

- 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 ②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 ③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 ④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 ⑤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2.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을: 기업은 주주, 소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병: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기업은 모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 ② 을: 기업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차등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병: 기업은 항상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④ 갑, 을: 기업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이외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 ⑤ 을, 병: 기업은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책임을 가진다.

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유전자 조작의 허용에 대한 논쟁에서 그동안 간과한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적인 유전자 개입이 인간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렇게 통제되어 태어날 인격체는 다른 자율적 인격체와 달리 원초적으로 동등하지 못한 채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우생학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합니다.



- ①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②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을 위한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치료 목적 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
- ④ 적극적 우생학은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과관계로 왜곡시킨다.
-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4.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들리지 않는 데에서도 항상 두려워해야 한다. 숨은 것처럼 잘 드러나는 것이 없으며, 미세한 것처럼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홀로 있을 때에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慎獨]이다.

- 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禮)를 실현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② 인의(仁義)를 버리고 자연의 소박한 덕을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③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心齋] 천리를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
- ④ 우주 만물의 무상함을 깨닫고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 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5. 해외 원조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원조는 만인이 공정하게 분담해야 할 전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남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를 기부하여 세계의 빈민을 도와야 한다.  
 을: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만민의 사회의 충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① 갑: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
- ② 갑: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 ③ 을: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④ 을: 국제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⑤ 갑, 을: 해외 원조는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 위반의 경우에는 의도적인 것과 비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규칙 위반이 모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을: 동의합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고의성이 없으니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의도적인 규칙 위반이라면 예외 없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갑: 아닙니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물론, 합당한 벌칙을 예상하며 승리를 위해 계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은 경기 규칙의 일부로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술적 반칙도 심판을 속이는 반칙과 마찬가지로 상대 선수를 오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①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② 심판을 속이는 반칙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③ 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인가?
- ④ 승리를 위한 전술적 반칙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 ⑤ 비의도적인 규칙 위반은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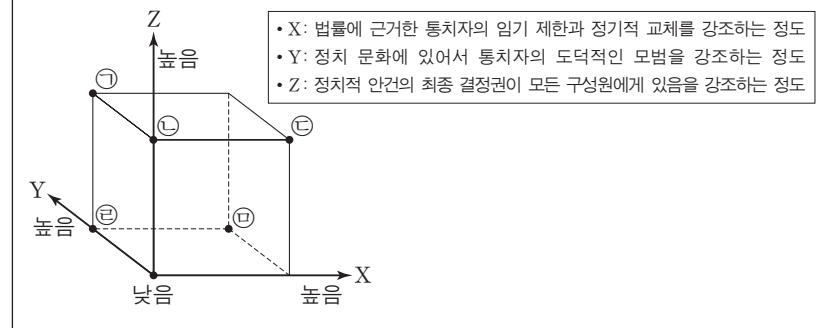
7.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p>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table border="1">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A)</td><td></td><td></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p> <p>(A):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p> <p>(B):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樂)의 값음. 인과○○○</p> <p>[세로 열쇠]</p> <p>(A): ..... 개념</p> |     |  |  |  |  |  |  |  |  | (A)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 ⑤ 무한한 복제·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8.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모든 시민은 최고 권력을 가지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다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군주가 백성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면 백성도 그의 기쁨을 기뻐하게 된다. 백성과 함께 기뻐하면서 천하에 왕 노릇 하지 못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 정신과 문화는 지속적, 체계적, 현세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에서 태어났다. 이 정신이 자본주의 윤리의 기초이다.  
 을: 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 ① 갑은 프로테스탄티즘이 세속적 삶을 위해 부(富)를 지향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노동을 통한 자본의 형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10.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무명(無明)에 가려진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서로 오가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모르기 때문이다.            |
| (나) | 삶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삶을 좋아함은 미혹(迷惑)이고, 죽음을 싫어함은 타향에 안주하여 고향에 돌아갈 줄 모르는 사람과 같다. |

- ① (가)는 죽음을 다른 존재로 윤회하는 고리가 단절된 상태라고 본다.
- ② (나)는 사후의 평온보다 현세에서 인(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죽음을 삶의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라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죽음을 흠어져 있던 기가 모인 상태라고 본다.
- ⑤ (가), (나)는 생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



11. 다음 가상 편지에 제시된 전통 의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그동안 댁내 가족은 모두 평안하셨는가? 자네가 보내온 소식을 접하고, 내게 문익한 그 의례 절차에 대해 간단히 답하겠네. 먼저 예(禮)를 올릴 좋은 날을 가려서 택하고, 그때가 다가오면 먼저 친척 중에 예법을 아는 부인[賓客]을 주례(主禮)로 청하고, 당일 주례가 도착하면 주부(主婦)인 자네가 몸소 맞이하게나. 주례가 자네 여식(女息)에게 비녀[笄]를 꽂아 주면 방으로 데리고 가서 준비된 의복을 입히게나. 이어 간단히 예를 올리면 주례가 자네 여식에게 새로운 이름[字]을 지어 줄 걸세. 그 후 사당의 조상에 고한 다음,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대접하면 된다네. 그러면 이로써 글을 맺으며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네.

- ①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이며 인생의 마지막 통과 의례이다.
- ② 죽음의 확인에서 시작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로 끝나는 의례이다.
- ③ 덕망과 학식을 갖춘 인재를 관직에 천거할 때 거행하는 의례이다.
- ④ 친족 관계를 벗어나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음을 알리는 의례이다.
- ⑤ 성인(成人)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알게 하는 의례이다.

12.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 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을: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 ①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다고 본다.
- ②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음악은 즐거움[樂]으로, 사람의 감정상 없을 수 없지만 도리에 맞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선왕은 천하를 크게 바로잡아 조화시키고자 예(禮)와 함께 음악을 제정했다.

을: 음식의 목적이 즐거움이 아닌 것처럼 예술의 목적도 즐거움이 아니다. 인간 상호간의 교류 수단인 예술의 목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있다.

— < 보 기 > —

- ㄱ. 갑은 예에 부합하는 미적 욕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ㄴ. 갑은 예술이 예술 안에서만 완벽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심미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예술 체험을 통해 도덕감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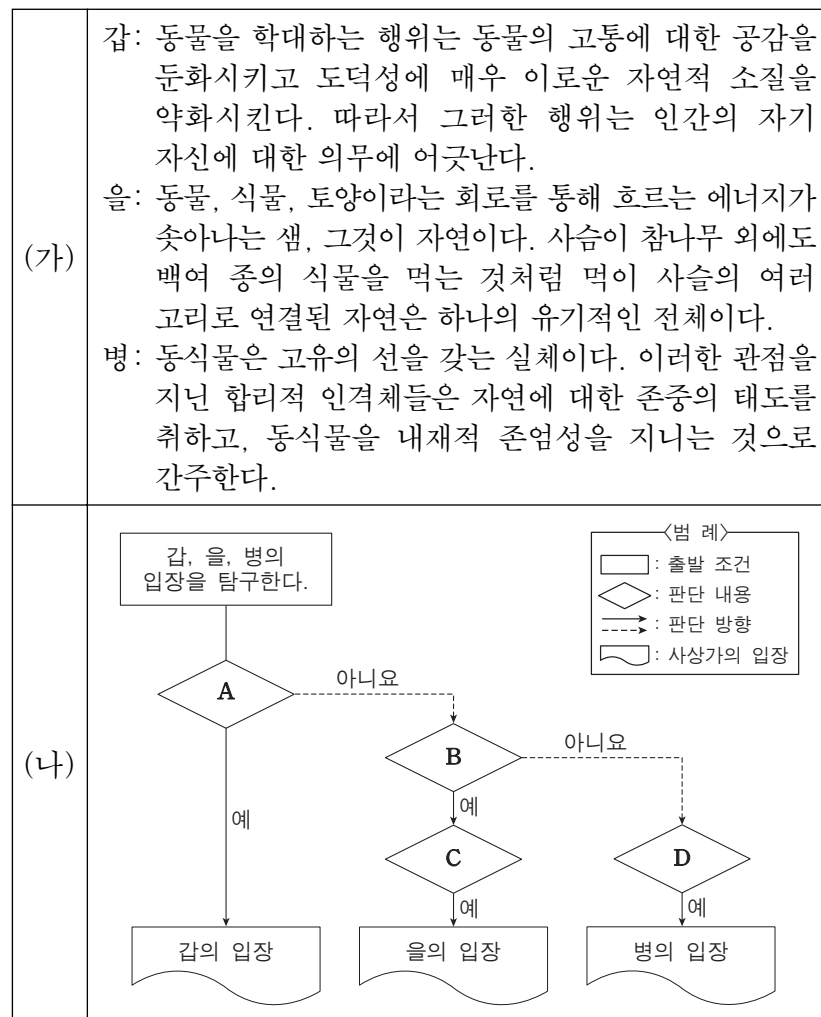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移轉)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가 된다.

-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
-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
-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
-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왜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인가?
- ② B: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가?
- ③ B: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이 개별 생명체의 존속보다 중요한가?
- ④ C: 무생물이라도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⑤ D: 인간과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등한가?

16. (가), (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본래의 마음[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다면 그 본성[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인지[天命]도 알 수 있다. |
| (나) | 사람은 땅을 법칙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칙으로 삼는다. 하늘은 도(道)를 법칙으로 삼고 도는 자연(自然)을 법칙으로 삼는다.                |

- ① (가)는 하늘이 인간 이외의 만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고 본다.  
 ② (나)는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인 가치가 만물 속에 내재한다고 본다.  
 ③ (가)는 (나)와 달리 하늘이 만물에 법칙을 주는 최고 존재라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하늘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절대 원리라고 본다.  
 ⑤ (가), (나)는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본다.

17.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 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 ① 국제적 사회 계약을 통해 연맹 체제를 단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② 개별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연맹 체제의 단계에서도 개별 국가의 주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④ 세계 시민법은 인류의 평화적인 교류 조건에 한정되어야 한다.  
 ⑤ 연맹의 확산을 통해 국제 사회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문명 간의 갈등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인접국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단층선 분쟁에서 발생한다. 각 문명의 핵심국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명 간의 전면적인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

문명 간의 갈등은 소통 단절에서 기인합니다. 세계의 역동성은 낯선 것과의 대결을 다층화하여 거부 본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정치와 무관하게 대화를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적 힘들로 인하여 문명 간 가치들의 교집합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을

- ① 갑: 핵심국들이 단층선 분쟁 억제를 위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② 갑: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동질성을 모색해야 한다.  
 ③ 을: 국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문명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  
 ④ 을: 세계는 개별 문명을 넘어 단일 문명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국제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정치 이념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br>을: 형벌은 최대 행복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형벌은 범법자에게는 교정과 무력화로, 다른 사람에게는 본보기로 작용하여 위법 행위를 방지한다. |
| (나) |                                                                                                                                                                            |

— < 보 기 > —

- ㄱ. A: 사형은 살인범을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다.  
 ㄴ. B: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  
 ㄷ. C: 형벌의 부과는 공리성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ㄹ. C: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다. 시장형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교환의 의미로만 주어야 한다고 본다. 비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주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은 환희의 경험보다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모두 사랑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생산적인 성격의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이 잠재적인 능력의 최고 표현이며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것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다.

- ①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② 사랑은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③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다.  
 ④ 사랑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⑤ 사랑은 능동적으로 활동하여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②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 ③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④ 도덕 언어의 분석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⑤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3.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4.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근심하겠는가? 만물은 하나이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추악한 것을 썩어 냄새난다고 한다. 썩어 냄새나는 것이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는 법이다.  
을: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삶도 아직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므로 분별되어야 한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 ③ 을: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제사 의례를 근절해야 한다.
- ④ 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로움에 힘써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을: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④ 을: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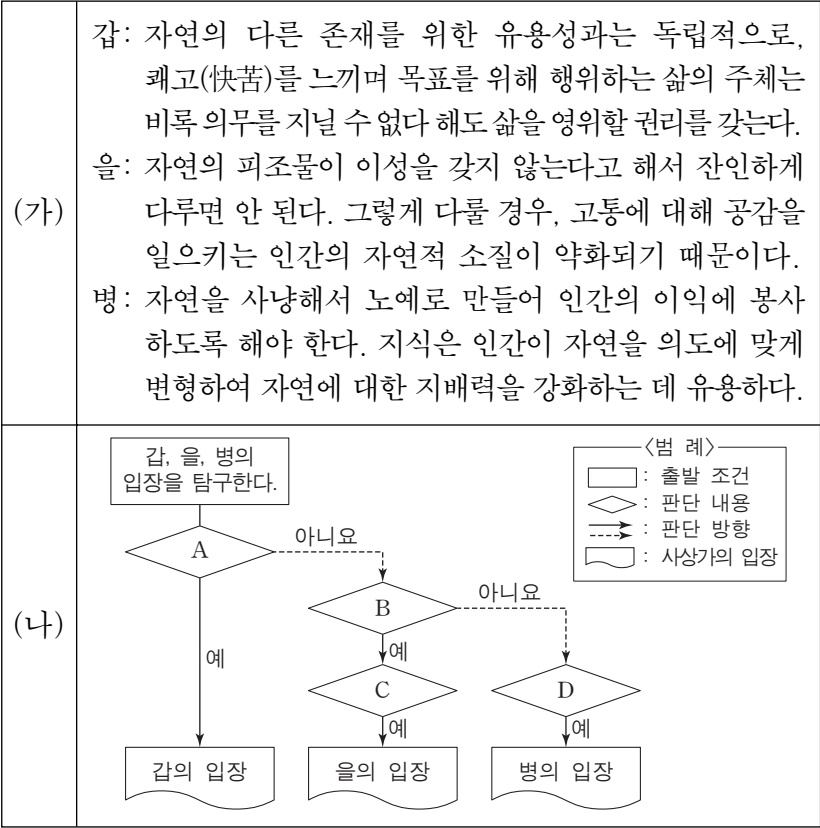
갑: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 < 보 기 > —

-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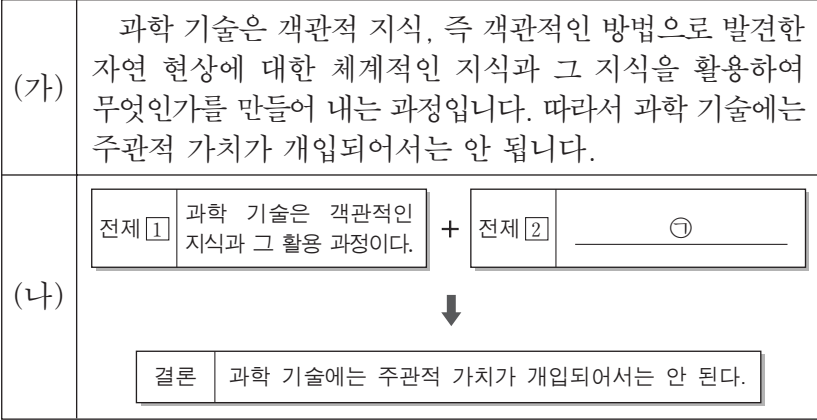


— < 보 기 > —

- ㄱ. A: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ㄴ. B: 자연 안의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ㄷ. C: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을 소유하는가?  
 ㄹ. D: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한다.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9.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요즘 언론에서 가정 내의 폭력에 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정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네.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 주는데,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처럼 효도는 봉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敬]이 바탕이 되어야 하네. 자애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네. 힘으로는 도(道)로 이끌 수 없으니, 내가 선택하고자 하면 상대방도 선택하지 않겠는가. …(후략)…

- ① 효의 정신적인 측면보다 물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② 자녀의 옳지 않은 행동은 강제로라도 교정해 주어야 한다.  
 ③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모두 자애에 속한다.  
 ⑤ 부모의 경제적 보살핌을 받기 위해 자녀는 효도를 행해야 한다.

10.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을: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이므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 < 보 기 > —

- ㄱ.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는가?  
 ㄴ. 사회 갈등의 해법이 권력 불균형 유지에 있는가?  
 ㄷ.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한가?  
 ㄹ.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1.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상황 S1~S4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                                                                                                                                                                                                                                                |
|-----|------------------------------------------------------------------------------------------------------------------------------------------------------------------------------------------------------------------------------------------------|
| (가) | <p>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p>                                                                                       |
| (나) | <div> <div>S1: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화 g를 취득했다.</div> <div>↓</div> <div>S2: 을은 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div> <div>↓</div> <div>S3: 병은 을에게서 g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div> <div>↓</div> <div>S4: 정은 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div> </div> <p>* 화살표(↓)는 상황(S)의 경과를 나타낸다.</p> |

- ① S1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② S1이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라면 S2도 그렇다.

③ S3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④ S4는 S3과 달리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다.

⑤ S4에서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1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갑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을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불평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X: 평등의 실질적인 측면보다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도
- Y: 과거의 차별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정도
- Z: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인종,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을: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씹씹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② 갑은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을은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를 금욕에서 찾는다.

15.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물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먹고 마시는 욕망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는 주로 지나친 쪽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은 양에 있어 자연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마땅한 것을 넘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을 폭식가(暴食家)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나칠 정도로 노예적인 사람이다.

- ① 먹는 행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② 먹는 행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③ 먹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취향의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④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⑤ 먹는 행위는 공동체의 동질감과 연대감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낯선 공간 안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거주(居住)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집 밖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집의 보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양극적 긴장과 관련된 양 측면은 모두 필수적이므로,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힌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거주는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안주(安住)이어야 합니다.



- ①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자기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 ② 인간은 자신의 거주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③ 인간의 거주 공간은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 ④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편안하고 친숙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 ⑤ 인간의 거주 공간은 외부로 지향하지 않는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1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p> <p>을: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간주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최소 국가뿐이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해야 한다.</p> <p>병: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p> |
| (나) |                                                                                                                                                                                                                                                          |

< 보 기 >

- ㄱ. A: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무 이행이어야 한다.
- ㄴ. B: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
- ㄷ. C: 원조의 대상은 질서 정연한 빈곤국가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 ㄹ. D: 원조의 최종 목표는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오차 없는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짓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을: 최고의 예술은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되며, 반항적이고 저급한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술은 이런 일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오직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예술이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도덕적 목적이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그림의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토론 주제: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적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 ① 갑: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 ② 갑: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 ③ 을: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
- ④ 을: 기후 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⑤ 갑, 을: 의무, 권리, 덕성 등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2. (가), (나)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덕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나이 칠십에 아이처럼 장난하며 색동옷을 입고, 물을 떠 당(堂)에 오르다가 일부러 넘어져 아이 울음소리를 내었으며, 부모 곁에서 새끼 새랑 놀며 기쁘게 해 드리고자 하였다.  
(나) 과실(過失)이 있으시면 기(氣)를 내리고 낮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성을 가다듬어 간(諫)한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

- ① 동기간(同氣間)에 서로 이롭게 하며 허물을 바로잡는 것이다.
- ② 양지(養志)의 마음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실천하는 것이다.
- ③ 친애와 경쟁을 바탕으로 권면하여 믿음[信]을 실천하는 것이다.
- ④ 수평적 관계에서 구휼(救恤)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⑤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라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다.

3.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정에는 각기 대응하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어떤 좋음[善]이 생기는 한 사랑하는 것이다. 즐거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완전한 우정은 덕에 있어 닮은 선한 사람들의 우정으로 이 경우에만 서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 자체로서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① 유덕한 성품을 갖춘 사람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 ② 이익과 쾌락에 기초한 우정은 호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이익과 쾌락만 추구하는 이들은 어떠한 우정도 맺을 수 없다.
- ④ 유덕하지 못한 이들의 우정에서는 어떠한 선도 생겨나지 않는다.
- ⑤ 모든 우정은 행위의 좋음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사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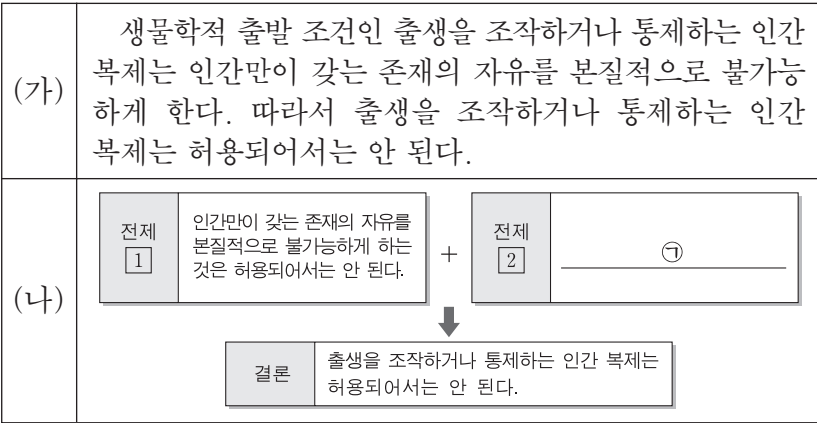
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몇 해 전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가 원한다면 자기 생명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걸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어. 이것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올바른 판결로 봐야 해.  
을: 인간의 생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잘못된 결정이야. 아무리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므로 자기 생명은 자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야.

— < 보 기 > —  
ㄱ. 갑: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ㄴ. 갑: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  
ㄷ. 을: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  
ㄹ. 을: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5.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복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기획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② 자연 발생적 출생만이 인간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 ③ 복제 인간은 자연 발생적 인간과 동등한 존재의 자유를 갖는다.
- ④ 개인의 자유보다 복제 인간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행복이 중요하다.
- ⑤ 인간 복제로 인해 인간 상호 관계는 지배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6.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五蘊)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觀] 한다.  
(나) 삶을 죽이고 초월하려는 자에게 죽음은 없고, 삶을 살려고 탐하는 자에게 삶은 없다. 태어나기 전의 근원을 보면 원래 삶도 형태도 기(氣)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가 생겨서 변해 형체가 되고 삶이 되었다가 변하여 죽어 가는 것이다.

- ① (가):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에서 도덕적 수행이 필요하다.
- ② (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 ③ (나): 기가 모여서 삶이 되고 기가 흩어져서 죽음이 되는 것이다.
- ④ (나):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⑤ (가), (나): 죽음은 그 근원을 성찰하고 지극히 애도해야 할 고통이다.

7. 다음 현대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국에 대한 무장 해제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정당한 목표이지만, A국의 대외적 위협은 전쟁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로 제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전한 이상, A국과의 전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정당하다. 첫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민간인 사상자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A국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수립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가?
- ② 무조건적, 무제한적 전쟁은 도덕적 정당화가 불가능한가?
- ③ 전쟁의 정당성 논의는 전쟁이 끝남으로써 종식되어야 하는가?
- ④ 자결주의에 입각한 내정 불간섭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는가?
- ⑤ 개전 명분과 상관없이 전쟁 중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병: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

- ① 갑: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
- ② 을: 노동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
- ③ 병: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
- ④ 갑, 병: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 ⑤ 을, 병: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

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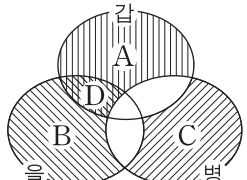
|     |                                                                                                                                                  |
|-----|--------------------------------------------------------------------------------------------------------------------------------------------------|
| (가) |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
| (나) |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 < 보 기 > —

- 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p> <p>을: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p> <p>병: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p> |
| (나) |  <p>— &lt; 범례 &gt; —</p> <p>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

— < 보 기 > —

- ㄱ. A: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일 뿐이다.
- ㄴ. B: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ㄷ. C: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 ㄹ. D: 자연 안의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그림의 강연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은 자유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 이외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은 시장 실패를 통해 그 부당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사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의 핵심은 환경오염의 처리 비용을 당사자인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래 세대 같은 제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의 책임은 해당 기업이 져야 합니다. 설령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기업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 ① 기업은 외부효과 방지를 위해 이윤 극대화 활동에 전념해야 하는가?
- ② 기업은 깨끗한 공기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책무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③ 기업은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 ④ 기업은 공공선을 위해 이윤 추구에 대한 제약을 승인해야 하는가?
- ⑤ 기업은 시장 실패가 지역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12.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기본적 권리는 문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집단 간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의 성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다문화주의는 문화 간 경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 집단 간 문화의 장벽을 영속화시킬 뿐 아니라, 소수집단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집단 간 문화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문화보다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다문화주의가 법 적용의 일반성을 따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차별화된 권리의 인정이 보편적 인권과 어긋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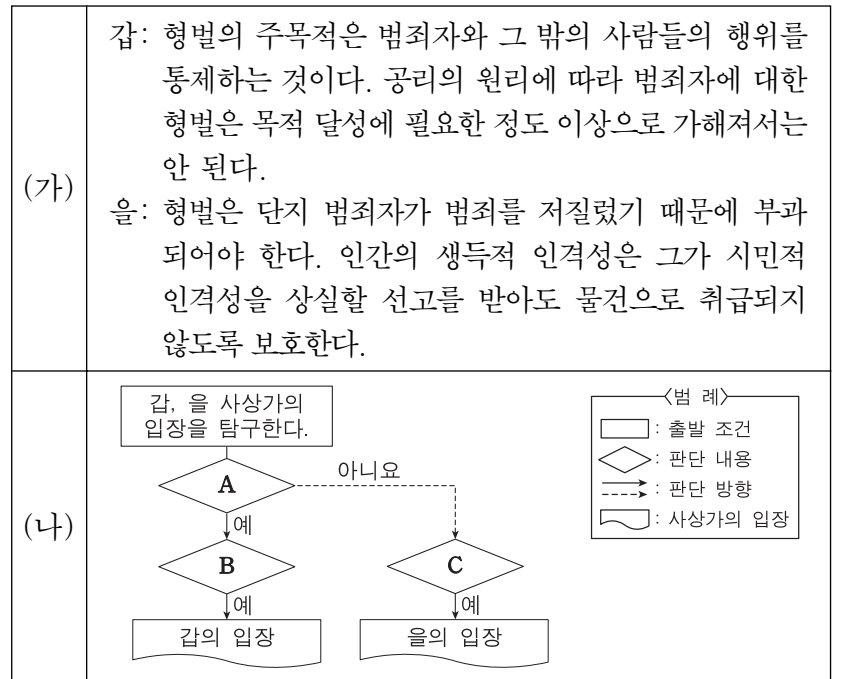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상이한 만민 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

을: 기아의 원인은 인구 과잉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대한 무관심이다.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넘쳐 나는 식량을 원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① 갑: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②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빈곤과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 ③ 을: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 ④ 을: 원조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빈곤자들에 대한 관심의 실천이다.
- ⑤ 갑, 을: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14.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하는가?
- ㄴ. B: 형벌은 일반인에게 본보기로, 범죄자에게 교화로 작용하는가?
- ㄷ. C: 형벌의 유용성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ㄹ. C: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과거보다 교묘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중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대중 예술에 투사된 세계는 갈등이 조화롭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는 기만적 대리 만족이다. 문화 산업은 대중을 통제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이념을 재생산한다. 개인은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경제적·사회적 장치의 산물이다. 문화 산업이 독점한 대중 예술은 개인의 특성을 획일화하여 자신의 논리를 관철한다.

<보 기>

- ㄱ. 대중 예술품의 주된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 ㄴ. 대중 예술의 영역과 권력의 영역은 상호 무관하게 작동한다.
- ㄷ. 대중 예술은 현실적 모순을 은폐하고 대중 의식을 조작한다.
- ㄹ. 대중 예술의 감상은 획일화되지 않은 개인의 고유한 체험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가) 사상의 입장에서 상황 (나)의 갑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 (나) | 갑은 귀금속 상인이고 을은 반지를 구입하고자 온 손님이다. 갑에게 선택 가능한 행위는 진실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자. 을에게 거짓말을 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음을 알기에 갑은 고민 중이다. |

- ① 자신의 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세요.  
 ②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따라 항상 진실만을 말하세요.  
 ③ 가능한 다른 행위만큼의 선을 산출하도록 말하세요.  
 ④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말하세요.  
 ⑤ 공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규칙에 따라 말하세요.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비종교적 인간은 성현(聖顯)의 시대에서 세속의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성스러움으로 상징화된 초월적 존재의 창조물이다. 성화(聖化)된 자연 안에서 인간은 도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을: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고 관찰 가능한 자연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 자연은 물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인간의 윤리적 행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갑은 종교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② 갑은 비종교적 인간이 자연을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고 본다.  
 ③ 을은 초월적 존재를 전제하지 않아도 자연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과학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초월적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본다.

18. (가), (나)에 나타난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드시지 않았고 간장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 고기가 많아도 곡기(穀氣)를 이기지는 않았으며 주량이 대단했으나 어지러운 정도로 마시지는 않았다.  
 (나)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의 오신채(五辛菜)를 먹지 마라. 식사는 오전 중 한 번으로 끝내라. 발우의 음식은 수많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 ① (가):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인간다운 품위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가):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생존 유지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③ (나): 음식을 통해 세상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해야 한다.  
 ④ (나):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수행과 연계시켜야 한다.  
 ⑤ (가), (나):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적절히 조절하고 절제해야 한다.

19. 다음 글의 갑~정 중 적어도 세 명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책임은 연구 과정 자체에만 한정된 책임이며, 외적 책임은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책임이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입장이 가능하다.

|   | 내적 책임 | 외적 책임 |
|---|-------|-------|
| 갑 | 있음    | 있음    |
| 을 | 있음    | 없음    |
| 병 | 없음    | 있음    |
| 정 | 없음    | 없음    |

— < 보 기 > —

- ㄱ. 과학자는 자료를 위조해서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ㄴ. 과학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 자유롭게 연구해야 하는가?  
 ㄷ. 과학자는 연구 자체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작용도 책임져야 하는가?  
 ㄹ. 과학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해서는 안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토대를 제공하고 일반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의 이론 중심 윤리학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 상황들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실제 생활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윤리적 과제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윤리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윤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윤리학은 ㉠

- ① 도덕 명제에 대한 검증 가능성과 분석적 접근을 강조한다.
- ②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
- ③ 도덕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 ④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규범 윤리 이론의 응용 가능성을 부정한다.
- ⑤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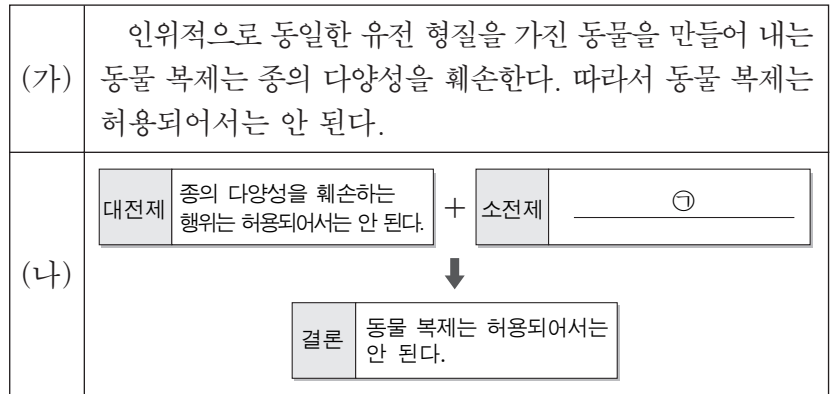
2.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윤리는 도덕적 추론이 아니라 도덕적 태도나 선에 대한 열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적 윤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고, 인간관계, 책임, 헌신 등의 여성적 특성을 지닌 윤리에 주목해야 한다.



- ① 도와주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②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행동하세요.
- ③ 동정심이 아닌 누구나 동의 가능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④ 어떤 선택이 더 많은 사회적 효용을 낳을지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보다 도덕적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세요.

3.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물 복제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한다.
- ② 동물 복제는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 ③ 동물 복제는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종의 다양성을 훼손한다.
- ④ 동물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인간 복제로 진행된다.
- ⑤ 동물 복제는 인간의 권익을 위한 특정 종만으로 생태계를 재편한다.

4.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대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몰래 훔친 것을 증언했지만, 우리 무리 중 정직한 사람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그 사실을 숨겼네. 정직은 그 속에 있다네.
- 자식은 부모가 부르시면 빨리 대답하여 늦지 않도록 한다. 부모가 연세 드시면 늦게 귀가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환 중이시면 자식은 얼굴을 환하게 하지 않고, 웃되 잇몸을 보이는 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 데 이르지 않는다.

- ①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본질은 집단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② 부자(父子) 간 정직은 친애[愛]보다 올바른[義]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자식은 부모의 의중을 살펴서 언행을 삼가며 공대(恭待)해야 한다.
- ④ 부모를 위하여 자식은 결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
- ⑤ 효의 정신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5.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①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가?
- ②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 ③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 정의 실현의 충분조건인가?
- ④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 ⑤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한가?



6.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새가 죽을 때는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죽을 때는 하는 말이 착한 법이라네. 지사(志士)는 삶을 영위하되 인(仁)을 해침이 없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인을 이룬다네.  
(나) 삶과 죽음은 인간의 운명[命]이니,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미워하지도 않네. 본래 생명도 형체도 기(氣)도 없었고, 혼돈 속에서 기가 생겨 그것이 변하여 형체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죽음이 된 것이라네.

- ① (가): 도덕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
- ② (가):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는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법이다.
- ③ (나): 진인이라 해도 그의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 ④ (나):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 ⑤ (가), (나): 해탈하여 세속의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금까지 남성은 순종이 여성의 본성이라고 여성에게 가르쳐 왔지만 누구도 남녀의 본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 지성의 차이는 사회 환경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법적 예속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능 활용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하고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맡겨야 합니다.



- ① 여성을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② 사회적 역할은 남녀의 본성에 따라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 ③ 여성의 분별력이 근본적으로 열등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④ 양성 평등은 전 인류에게 유용하므로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⑤ 남성이 독점해 온 모든 직업을 여성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 < 보 기 > —

- 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 ㄷ. 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소비의 목적은 소비자의 만족감 충족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범위 내에서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소비는 자신을 넘어 사회 및 환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소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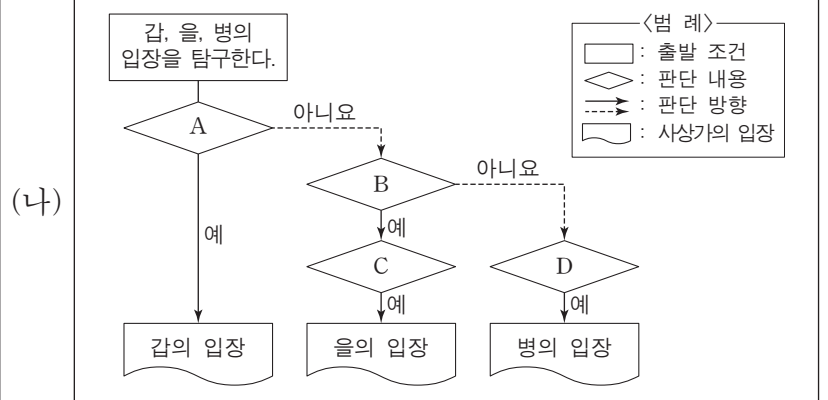
— < 보 기 > —

- ㄱ. (가): 자율적 선택권과 최적의 효용은 소비의 필수적 요소이다.
- ㄴ. (가): 개인적 선호보다 공공성을 상품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ㄷ. (나): 생태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비는 소비자의 의무이다.
- ㄹ. (가), (나): 인권과 노동의 가치는 소비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형벌은 강도, 지속성, 보편성을 근거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을: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병: 모든 사람들에게 살인범의 끝없는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 < 보 기 > —

- ㄱ. A: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살인범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하는가?
- ㄴ. B: 사형은 범죄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응보적 처벌인가?
- ㄷ. C: 사형은 살인죄에 대한 동등성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벌인가?
- ㄹ. D: 사형은 종신형에 비해 처벌의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은 사회에 저항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술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한다. 고급 예술은 상품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주장하지만, 대중 문화는 산업을 자처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그들의 의식을 속박한다.

을: 예술은 삶의 일부를 형성한다. 경험으로서 예술 작품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 오늘날 미적인 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빨리 들어가고 있다. 삶 속에서도 대중 예술에서도 미적인 것의 구현은 가능하다.

- ① 갑: 문화 산업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사회를 몰개성화한다.
- ② 갑: 예술 본연의 목적은 일상적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다.
- ③ 을: 대중 예술은 예술과 삶을 통합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킨다.
- ④ 을: 예술 작품은 삶 속에서 기능하지 않아야 미적 가치를 지닌다.
- ⑤ 갑, 을: 대중 예술은 감상자를 사유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한다.

12.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지털 익명성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선이라 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정당하게 행사되려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해.

디지털 익명성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일종의 악이라 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의 표현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회적 신뢰와 질서를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으키므로 금지되어야 해.



- ① 익명성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디지털 익명성에 기인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사이버 공간의 실명 공개가 표현의 책임성을 강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익명성 보장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함을 간과하고 있다.

1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도적이라 욕하며 원성이 드높을 것이니, 부끄러운 일이다. 청렴은 큰 장사[賈]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몰래 하지 않겠는가마는 밤에 한 일도 아침이면 드러난다. 선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신세지는 정[恩情]이 맺어지면 이미 사사로움[私]이 행해진 것이다.

- ① 청렴은 목민관의 어떤 과오도 면책시켜 주는 지혜로운 덕목이다.
- ② 청렴한 목민관에게 청백리(淸白吏) 칭호는 관직 상승의 수단이다.
- ③ 포부가 원대하고 지혜로운 목민관은 부패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 ④ 백성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다면 사사로움 청탁(淸託)은 가능하다.
- ⑤ 목민관의 청렴은 애민(愛民)과 봉공(奉公)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전쟁은 신법(神法)을 지키고 공동선과 평화를 위한 것이다.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 군주에 의해 서만 수행되어야 하며, 공격의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전쟁은 한 국가가 백성들에게 가한 나쁜 짓을 바로잡길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차지한 것을 돌려주길 거부할 경우 그 악을 징벌하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어야 하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적개심이 아닌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전 중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목적 이상의 많은 희생을 야기하는 행위는 신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 ① 무력은 평화와 정의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② 개별 국가의 폭정은 전쟁 선포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
- ③ 공동선과 평화를 위해서는 일반인도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 ④ 방어 이외에 어떠한 선제공격도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 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모든 살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을: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p> <p>병: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지와 인간의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p> |
| (나)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lt;범례&gt; —</p> <p>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p>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 <보기> —

ㄱ. A: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ㄴ. B: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ㄷ. C: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는 아니다.

ㄹ. D: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6.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한 책임이 종교에 있다. 종교들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세계 평화는 시작된다. 인류는 평화보다 전쟁을, 화해보다 광신을, 대화보다 우월성을 부추기는 종교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 차별의 윤리, 모순의 윤리, 투쟁의 윤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 < 보 기 > —

- ㄱ. 종교들이 공유하는 가르침의 실체는 화합과 공존의 토대이다.  
 ㄴ. 종교 간의 관용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ㄷ. 타 종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현실 세계의 갈등과 무관하다.  
 ㄹ. 보편 윤리의 실현과 종교의 단일화는 인류 생존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심정 윤리는 소명을 받들어 희생하는 신앙인들처럼 내면의 신념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책임 윤리는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지도자들처럼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을: 현대 문명이 초래한 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며,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자체만으로 책임을 갖는다. 이에 우리는 책임지는 행동을 통해 '윤리적 공백'을 극복해야 한다.

- ① 갑: 정치 영역에서는 책임 윤리보다 심정 윤리를 우선해야 한다.  
 ② 갑: 심정 윤리에서는 행위의 선한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한다.  
 ③ 을: 인류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할 정언 명령이다.  
 ④ 을: 자연에 대한 인류의 책임은 예방이 아닌 보상을 위한 것이다.  
 ⑤ 갑, 을: 행위의 의도가 선하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18.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 금전 등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종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것이다.

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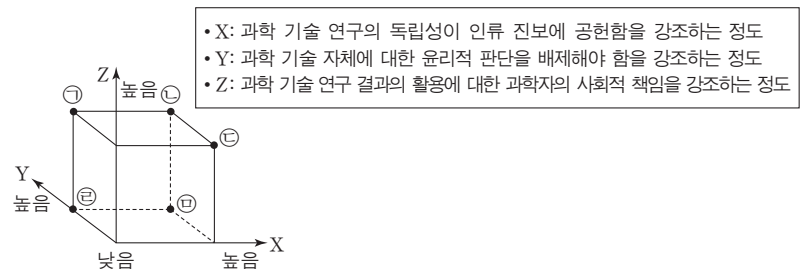
병: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

- ① 갑: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  
 ② 을: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③ 병: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  
 ④ 갑, 병: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  
 ⑤ 을, 병: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19.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과학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과학 기술 연구 및 그 결과 활용에 대한 과학자의 공적인 책임 의식과 외부 규제가 없다면, 인류는 과학 기술에 종속당하여 제어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불행한 미래에 봉착하게 된다.

(나) 과학 기술 자체에 선악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연구 성과의 활용과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과학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어서는 안 된다. 외부 간섭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전념할 때 과학 기술은 발전 가능하며, 그 결과 인류는 지속적으로 번영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정치 문화는 한 사회의 부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그 사회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유념하여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타인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치품에 돈을 쓰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도와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원조의 목적을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원조의 목적을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 개인이 아니라 국가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해외 원조에서 ㉤ 갑은 사회의 정의를, 을은 개인들의 복지를 중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문제가 올바른 대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분석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윤리학의 주된 과제는 도덕 이론을 전개하거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진술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치, 경제, 의료, 환경 등 현대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언어 분석을 통해 윤리적 딜레마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윤리적 문제 상황에 도덕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 ③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될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이론의 적용보다 도덕 언어의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⑤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인간은 행위하는 존재이므로 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행위는 인과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행위의 힘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이 갖게 되는 새로운 행위 능력을 규제할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 없이는 기술 능력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압력으로 인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 ②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③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문제를 기존의 윤리로 해결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윤리는 기술에 대하여 가치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⑤ 기술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여될 때 윤리적 공백이 발생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달리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만민법에 따라 원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영양실조와 가난으로 죽어 갈 것이다. 원조의 의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 ① 갑: 모든 빈곤국을 원조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갑: 원조 정책은 지구적 차등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 ③ 을: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민은 원조의 대상일 수 없다.
- ④ 을: 원조의 의무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 시민적 의무이다.
- ⑤ 갑, 을: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대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기술 시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술 시민권은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권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접근권만으로는 기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 정책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도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 ① 기술 사회에서는 기술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② 기술 사회에서 기술은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 ③ 기술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가?
- ④ 기술 정책은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 정책의 정당성은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가?

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속 A 공학자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 〈문제 상황〉

인간과 동등한 정신적 능력을 지닌 로봇을 제작할 수 있다면,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로봇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A 공학자

- ① 로봇이 유덕한 품성을 지니도록 개발하세요.
- ② 로봇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개발하세요.
- ③ 로봇이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니도록 개발하세요.
- ④ 로봇이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도록 개발하세요.
- ⑤ 로봇이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도록 개발하세요.



6. 다음 가상 대담 속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
|----------------------------------------------------------------------------|-------------------------------------------------------------------------------|
| <p>선생님께서서는 행정체계, 경제체계, 생활 세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p>       | <p>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 및 경제체계의 영향력이 과도해져서 시민의 의사가 공적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p> |
| <p>1</p>                                                                   | <p>2</p>                                                                      |
| <p>돈과 권력의 힘이 생활세계에서 진리, 올바름, 진실성이라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조건이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씀이죠?</p> | <p>그렇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p>                    |
| <p>3</p>                                                                   | <p>4</p>                                                                      |

- 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공론장에서 기업과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③ 공정한 담론 절차를 준수한 합의의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④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⑤ 공론장에서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진실한 말로 주장해야 합니다.

7.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체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편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 < 보 기 > —

- ㄱ.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인 공동체이다.  
 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ㄷ.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ㄹ.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을: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인 과정이다.  
 ② 갑: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③ 을: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  
 ④ 을: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근거는 내세의 행복에 있다.  
 ⑤ 갑, 을: 이상적 인간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9. 갑, 을이 <사례>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소수자들이 받은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회의 재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을: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노력이나 업적과는 무관하게 소수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 사람들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들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 < 사례 > —

유럽계 미국인 A는 미국의 B 의과 대학에 지원했다. 그런데 이 대학은 소수 집단 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입학 정원의 16%를 그들에게 할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A는 우수한 입학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다. 이에 A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① 갑: 입학 정원에서 소수자의 몫을 할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② 갑: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한다.  
 ③ 을: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입학 정책은 공정 경쟁을 해친다.  
 ④ 을: 소수자의 입학을 위해 다른 지원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소수자를 우대하는 입학 정책은 부당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

1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지만, 나의 정의론은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p> <p>을: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 위치에 두지만, 나의 정의론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p>                                                 |
| (나) |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A{A} -- 예 --&gt; B{B}     A -- 아니요 --&gt; C{C}     B -- 예 --&gt; D[갑의 입장]     C -- 예 --&gt; E[을의 입장]           </pre> <p>— &lt; 범 례 &gt;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출발 조건</li> <li>◇ : 판단 내용</li> <li>→ : 판단 방향</li> <li>▭ : 사상가의 입장</li> </ul> |

— < 보 기 > —

- ㄱ. A: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  
 ㄴ. B: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가?  
 ㄷ. B: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한가?  
 ㄹ. C: 최소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접근 능력과 정보 수용 능력을 가리킨다. 정보 격차는 주로 그러한 능력들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약자에게 정보 접근 및 수용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 매체의 쌍방향성이 강화됨에 따라 접근 및 수용 능력 이외에 정보 생산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정보 격차는 주로 정보 생산 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보 생산 능력을 제공하는 정보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 ① 갑: 정보 약자에게는 정보 접근 능력만을 제공해야 한다.
- ② 갑: 정보 격차의 주된 원인은 정보 생산력의 차이에 있다.
- ③ 을: 정보 복지의 핵심 과제는 정보 기기의 평등한 분배이다.
- ④ 을: 정보 약자가 정보 생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갑, 을: 정보 리터러시는 접근 및 수용 능력에 국한되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수에게 순응하기보다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설 때 소수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양심이 아니라 다수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정부는 정의에 입각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현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불복종의 의도를 보여 준다.

— < 보 기 > —

ㄱ. 갑: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시민을 지배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국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법 행위이다.  
ㄷ. 을: 모든 시민은 언제나 다수가 결정한 법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이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예술 작품의 존속에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예술 작품의 기술적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대중들로 하여금 개별적 상황 속에서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 예술이 기존의 제의(祭儀) 의식에 바탕을 둔 예술을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기능을 지닌 형상물이 된다.

- ① 대중 예술은 원작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 준다.
- ② 대중 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 ③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 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
- ④ 대중 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 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 ⑤ 대중 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 가치가 늘어난다.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을: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①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②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은 소명 정신, 을은 노동 착취를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채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등의 논리를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임의적이다.<br/>을: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br/>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p> |
| (나) | <div><p>— &lt; 범 례 &gt; —<br/>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div>                                                                                                                                                                          |

— < 보 기 > —

ㄱ. A: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ㄴ. B: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해야 한다.  
ㄷ. C: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ㄹ. D: 개체는 채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자는 밥을 먹을 때 다섯 가지를 살펴야 한다. 우선 밥이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와 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서 공양(供養)을 받아야 한다.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바른 처사와 좋은 약으로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 끝으로 도덕을 이루어야 먹을 자격이 있다. 즉 군자는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①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②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이다.
- ③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 ④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이다.
- 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1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된다.

을: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며,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일 뿐이다. 불가능한 평화를 얻으려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다.

병: 전쟁은 찬양되어서는 안 되지만, 도덕적 제약을 전제로 최고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선포되는 경우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① 갑: 항구적 평화는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② 을: 전쟁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③ 병: 자국의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 ④ 갑, 을: 전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권을 보장할 때 정의롭다.
- ⑤ 을, 병: 전쟁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이다.

1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주(居住)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살피며,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은 자기 공간의 중심이 되며,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사물의 연관 체계로서 공간도 함께 변화합니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함에서 사유함을 잊을 때 고향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때 거주함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공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합니다.



- ①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 ②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⑤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에게서 해방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을: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의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 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나 적합한 형벌이다.

— < 보 기 > —

ㄱ. 갑: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ㄴ. 을: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ㄷ. 을: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0.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병'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해악만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모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앎은 미래의 유전 질환을 감안하여 스스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 보 기 > —

ㄱ. 갑: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불필요한 해악을 막을 수 있다.  
 ㄴ. 갑: 자기 유전 정보에 대한 무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ㄷ. 을: 자기 유전 정보를 알아야 자율적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  
 ㄹ. 갑, 을: 미래의 불가피한 유전 질환에 대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 이론들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②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④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2. 그림의 토론 주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토론 주제: 도덕의 최종 근거를 종교에서 찾아야 하는가?



- ① 갑: 도덕적 의무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신의 명령에서 나온다.
- ② 갑: 인간 이성是不完全하므로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을: 윤리적 판단에서 종교적 권위보다 합리적 이성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⑤ 갑, 을: 명확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4.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네.  
(나) 삶과 죽음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眞人)이라 하네.

— < 보 기 > —  
ㄱ. (가): 죽음은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ㄴ. (가): 죽음보다는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ㄷ. (나):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ㄹ. (가), (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을: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갑: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 ② 갑: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을: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④ 을: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갑, 을: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6.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 환경이 불리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일정한 대학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을: 대학 입학 제도는 모두에게 형식적으로 동등한 지원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당하다.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부당하다.

병: 개인의 학업 능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필요하다.

- ①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당하다.  
 ② 을: 대학 입학 할당제는 누구의 입학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병: 성적 우수자가 할당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④ 갑, 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면 안 된다.  
 ⑤ 을, 병: 오직 학업 능력만을 대학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7.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 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恕]. |
| (나) | ㉠은/는 나와 더불어 한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 [手足之義]. 상대방이 좋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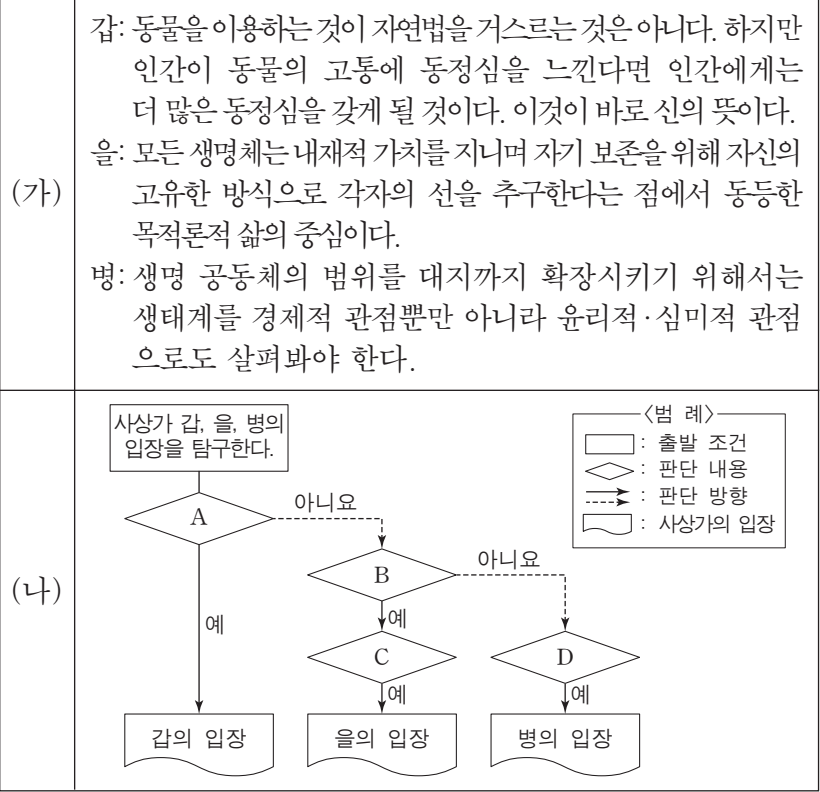
- ① 서로 간에 자애(慈愛)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② 계약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③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사랑과 공정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④ 가깝게 오래 사귄 벗으로서 우정을 중시하는 선택적 관계이다.  
 ⑤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8.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폭력 행위인가?  
 ②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③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④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9.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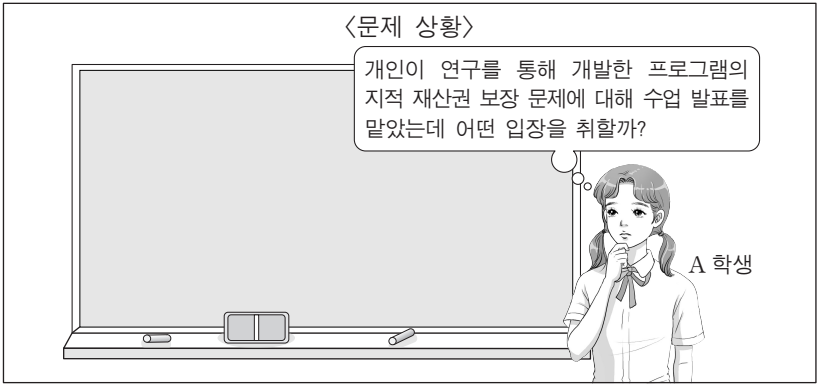


<보기>  
 ㄱ.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되는가?  
 ㄴ. B: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  
 ㄹ. D: 토양이 아닌 물[水]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학생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 라는 재산권 이론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 ①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 재산의 배타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세요.  
 ② 사회 전체의 공리 극대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의 보장을 강조하세요.  
 ③ 지적 재산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므로 공유의 대상임을 강조하세요.  
 ④ 지적 재산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강조하세요.  
 ⑤ 무형의 정신노동이 들어간 지적 재산은 공공재임을 강조하세요.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p> <p>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p> |
| (나) | <p>— &lt;범례&gt; —</p> <p>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

- <보기> —
- ㄱ. A: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ㄴ. B: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ㄷ. C: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ㄹ.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보기> —
- ㄱ.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ㄴ.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ㄷ. 환자가 회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ㄹ.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14.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記號)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 광고 속에 나오는 상품이 기호라면 행복, 풍요로움, 성공, 권력 등은 그 상품에 부여된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여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 ① 현대인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② 현대인은 생산 질서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하는가?  
 ③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가?  
 ④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은 상품의 이미지에 불과한가?  
 ⑤ 현대 사회에서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하는가?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이다. 이러한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한다.

을: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전쟁 수행 과정,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개전(開戰)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일지라도 그 수행 과정과 전후 처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 ① 갑: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 수단의 사용은 정당하다.  
 ② 갑: 모든 전쟁의 종식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③ 을: 전쟁 개시 이전에 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④ 을: 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  
 ⑤ 갑, 을: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는 어떠한 전쟁도 정의롭지 않다.



1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
| (나) |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

- 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 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갖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갑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을

- 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 ③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가?
- ④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 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을: 질서 정연한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 대상자들의 국적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② 갑: 원조는 인류의 고통 감소와 쾌락 증진을 위한 것이다.
- ③ 을: 원조는 일정한 목표를 넘어서면 중단될 필요가 있다.
- ④ 을: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⑤ 갑, 을: 원조는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20. 다음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답>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관용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타인의 불의한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악을 참는 것은 관용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 <가상 대답>

전문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porter: 그렇다면 이런 문화도 관용의 대상이 되나요? 외국에서 이민을 온 어떤 가족은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딸이 성인이 되어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전문가: 그런 문화는 ㉠

- ① 부모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한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②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므로 고유한 문화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④ 종교의 계율과 전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저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 ㉢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 ㉣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 ㉤ 보편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얼마 전 자네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다네. 공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라.”라고 말했다네. 이러한 가르침은 ㉠ 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 ㉠ 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지만, 자네가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듯 존중한다면 어찌 백년해로(百年偕老)할 수 없겠는가? …(후략)…”

< 보 기 >

- ㉠. 혼인(婚姻)을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이다.
- ㉡. 상경여빈(相敬如賓)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 향렬(行列)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이다.
- ㉣. 동기간(同氣間)으로서 배려해야 하는 가족 관계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3.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 ②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표되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행해져야 하는가?

4. 갑, 을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다. 도(道)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 보 기 >

- ㉠. 갑: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 ㉡. 갑: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哀悼)의 의무를 강조한다.
- ㉢. 을: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한다.
- ㉣. 갑, 을: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5.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나)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 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 ① (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가):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 ③ (나):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 ④ (나):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⑤ (가), (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만약 즐거움을 위한 시가 훌륭한 법질서를 갖는 국가 안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시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간 생활에 이로운 것임이 밝혀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모방을 할 경우에는,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모방해야만 한다. 반면에 그 어떤 창피스러운 것도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것을 모방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 < 보 기 > —

- ㄱ. 예술은 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 ㄴ. 예술은 진리를 왜곡할 경우 비판받아야 한다.
- ㄷ. 예술에서 미와 선의 내용은 유사할 필요가 없다.
- ㄹ. 예술은 사물의 실재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의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저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전쟁은 언제나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 판단의 근거는 효용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도덕 판단의 영역은 개시, 수행, 종결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떤 전쟁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때는 전쟁 개시의 영역이 전쟁 수행의 영역보다 우선합니다. 전쟁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명분입니다.



- ①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사회 전체의 효용에서 찾아야 한다.
- ③ 전쟁의 정당한 명분보다 전쟁 수행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⑤ 전쟁 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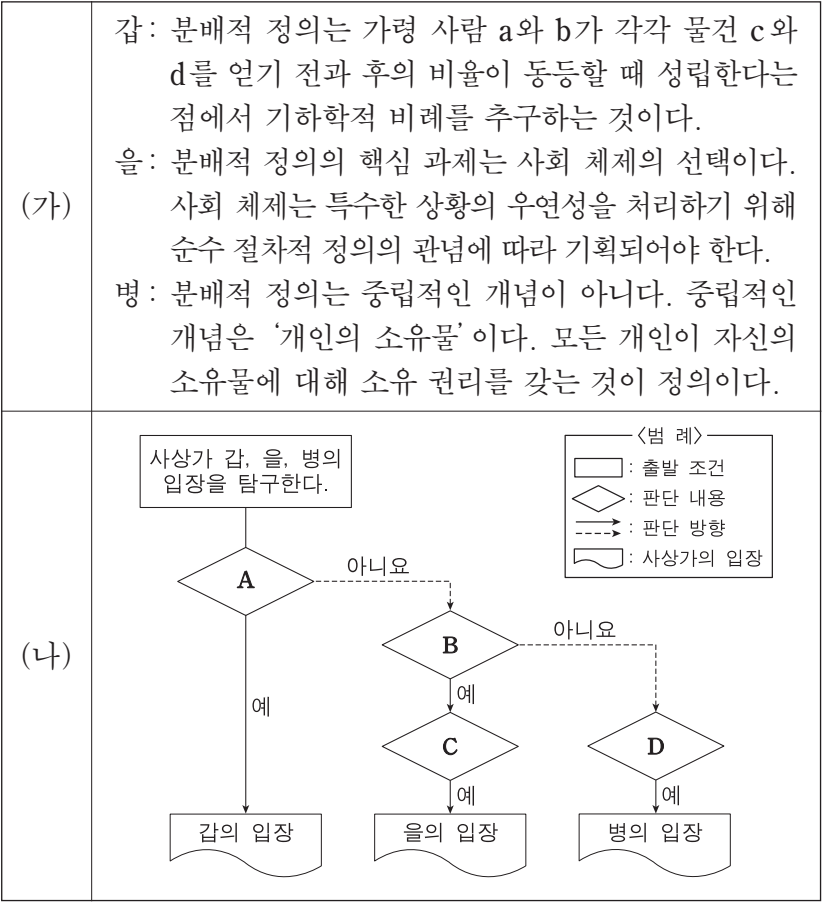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 ②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9.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A: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 ㄴ.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 ㄷ. C: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 ㄹ. D: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쾌락과 고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만약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라. 만약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하라.                                           |
| (나) | <p>고등학생인 A는 같은 반의 B와 말다툼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A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학급 채팅방에서 B를 상대로 *사이버 불링을 같이 하자고 부탁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p> <p>*사이버 불링: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p> |

- ① 사이버 불링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② 사이버 불링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③ 사이버 불링이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④ 사이버 불링이 모성적 배려를 실천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⑤ 사이버 불링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p> <p>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lt;범례&gt; —</p> <p>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

— <보기> —

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  
 ㄷ. C: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D: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백성은 향산(恒産)이 없다면 향심(恒心)도 없게 된다.

을: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 학생 답안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며, ㉡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보며,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을: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① 갑은 오직 결과를 고려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② 을은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선한 천부적 자질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1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점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 ①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②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③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④ 외부 공간은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⑤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16.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종교는 신앙을 통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혹적이고 신비한 감정의 체험이다. 세계는 신비로 가득하므로 인간 이성이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틀 속에 가둘 수 없다. 방향을 잡기 어려운 현실에서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나) 과학은 사실에 토대하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고 반증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물리적인 것 외에는 실재성이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 ① (가): 인간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
- ② (가): 신앙 없이 이성만으로는 세계의 진리를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
- ③ (나): 과학적 지식을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④ (나): 인간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실증적으로 대상을 탐구해야 한다.
- ⑤ (가), (나): 과학적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합니다.

갑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경우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입니다.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입니다.

을



- ① 살인범을 사형하는 것은 그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인가?
- ②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을 국가 구성원에서 배제해야 하는가?
- ③ 사형은 살인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되는 응당한 보복의 방법인가?
- ④ 살인범을 사형하지 않는 것은 공적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것인가?
- 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도인가?

18.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을: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떤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결정적 요인은 자원의 수준보다는 정치 문화이다.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원조해야 한다.

- ① 갑: 원조를 위해서 풍요한 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정의의 제2원칙에 따라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
- ⑤ 갑, 을: 공리의 원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합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하며, 동물 실험의 확실한 대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정당합니다.

을: 저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의 모든 전제에 대해 찬성하지만 결론에는 반대합니다. 논증에 등장하는 '동물'을 모두 '인간'으로 바꿔 보세요. 당신이 제시한 논증을 이용하면 인간 실험마저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갑: 인간 실험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판은 동물도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을: 인간은 물론 동물도 삶의 주체이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인간 실험과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도 부당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동물의 기본적인 권리를 단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 ② 동물 실험의 대안 중 확실한 것이 존재하는가?
- ③ 인간과 달리 동물은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가?
- ④ 인간 실험과 달리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 ⑤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유사한가?

20.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권은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정치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가질 권리로 국한되어야 한다. 국가가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을: 인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권리이다. 인권을 소극적 권리로 한정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 국가는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 < 보 기 > —

- ㄱ. 인권은 자유권과 참정권으로 국한되어야 하는가?
- ㄴ.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가?
- ㄷ. 인권은 자유권과 함께 복지권을 포함하는 권리인가?
- ㄹ. 인권은 사회적·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통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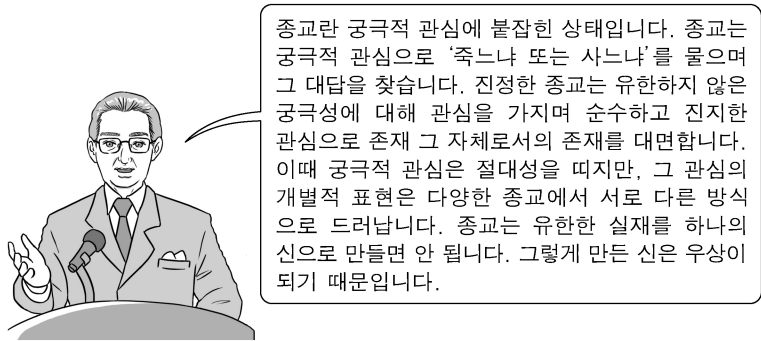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을: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 조사와 도덕적 개념 분석에 집중하기보다 윤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덕 규칙의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① 갑: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도덕적 관습 비교보다 윤리적 개념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적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을: 도덕적 명제의 논리 구조와 의미 분석이 탐구 목적이어야 한다.
- ⑤ 갑, 을: 인간의 가치 판단을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2.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종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것이다.  
 ㄴ. 진정한 종교는 유한한 실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든다.  
 ㄷ. 종교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존재와의 만남이다.  
 ㄹ. 종교적 관심은 절대성을 갖지만 종교적 표현은 다양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프로테스탄트는 자신의 구원의 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직업 노동을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여겼다. 이들의 금욕주의가 세속의 윤리를 지배하게 되면서 근대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직접 관련을 맺지 않거나 경제적 강제로 느껴질 경우 인간은 영혼 없는 전문가, 열정 없는 향락주의자로 전락할 것이다.

- ①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적 성공이 구원의 징표라고 보는가?
- ②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이 정신적 가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가?
- ③ 금욕주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④ 프로테스탄트는 직업을 신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으로 보는가?
- ⑤ 프로테스탄트는 노동을 통한 부의 추구를 영혼의 타락으로 보는가?

4.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군자는 벼를 사림에 나이도, 신분도, 재물도 내세우지 않는다. 벼를 사림은 그 덕을 베푸는 것이어서 무엇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덕으로 벼를 사귀는 것은 어진 이를 존경하는 것과 같고, 또한 귀한 이를 귀하게 대하는 것과 같다.
- 군자는 글로써 벼들을 모아 사귀고, 그 벼들을 통해 사람의 도리가 더 밝아지며, 선(善)으로 인(仁)을 보완하게 되어 덕이 점차 더 높아질 것이다. 벼는 서로 진심을 다해 충고하고 선으로 이끌어야 한다.

- ① 참된 벼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인격도 수양하게 한다.
- ② 참된 우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적 인간상을 지향하도록 한다.
- ③ 벼의 덕이 높으면 그의 조건과 처지를 불문하고 존경할 수 있다.
- ④ 참된 우정은 사람을 덕과 도리보다 구별하지 않고 사귀는 것이다.
- ⑤ 참된 벼를 사귀는 것 또한 학문을 닦는 하나의 공부 방식이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를 의식하기 때문에 정언명령을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식으로 표현된다.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인간이 미래의 위험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 ① 갑은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 ② 갑은 도덕 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준수해야 할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6.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형벌은 보편 법칙을 입법하려는 의지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형벌은 스스로가 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을: 공공 의사의 표현인 법은 살인을 증오하고 그 행위를 처벌한다. 살인범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이 범죄 억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 ① 형벌은 범죄와의 응보적 관계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가?  
② 사형은 사적 차원의 보복이 아닌 공적 차원의 형벌인가?  
③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형벌인가?  
④ 형벌로 얻는 공공 이익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하는가?  
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가 아닌 타인의 범죄 예방에 국한되는가?

7.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될 때에만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주류 사회 시민들과 동일한 언어로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동일한 사회 복지를 제공하며 국민 정체성을 고취시켜 이민자 집단을 동화시켜야 한다.  
을: 기존 시민들이 공유하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도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민자의 언어로 운용되는 자체의 법적 제도를 보장하면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사회의 결속과 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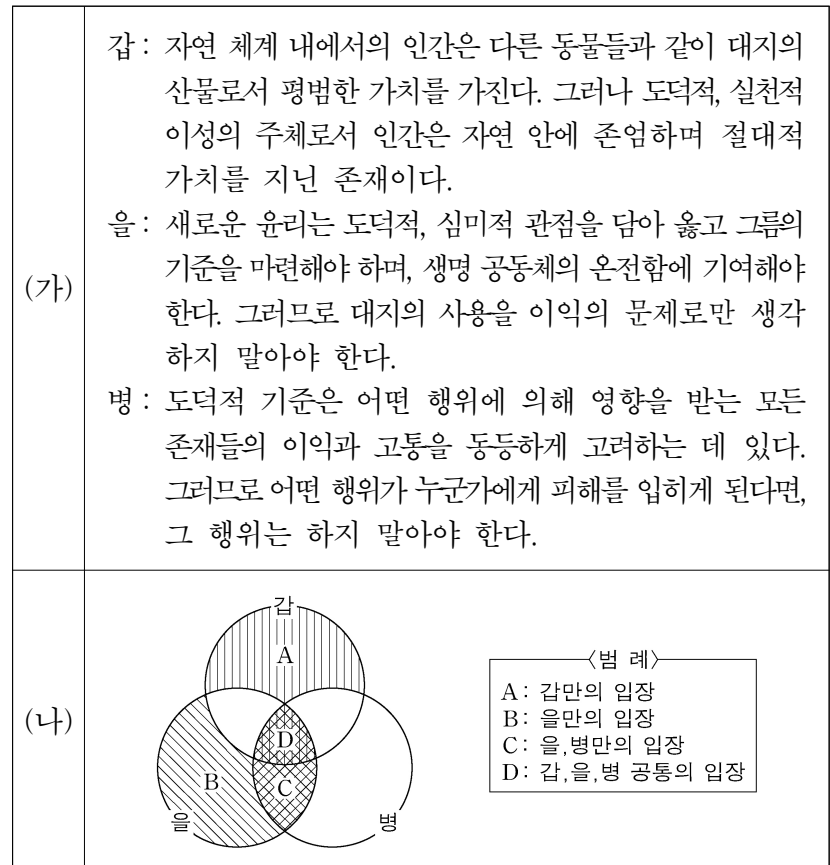
- ① 갑: 주류 문화와의 융합을 위해 소수 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② 갑: 사회권 보장으로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③ 을: 소수 문화에 대한 불관용을 통해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④ 을: 소수 집단의 자치를 승인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  
⑤ 갑, 을: 문화적 동일성에 대한 요구 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

8.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생성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가 결혼해야 자손이 태어나고 번영해서 만세에까지 이어진다. ... (중략) ... 남자가 친히 아내를 맞이할 때 선물을 가지고 상견(相見)하는 것은 공경을 통해 부부유별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가 유별한 뒤야 부자가 친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도의가 성립되며, 도의에 의해 예의가 제정되고, 그런 다음에야 만사가 안정된다. 만일 남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도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禽獸)의 도(道)이다.

- ① 부부의 예절은 성 역할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서 시작한다.  
② 금수에게도 사람의 남녀에게 볼 수 있는 분별적 도리가 있다.  
③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부부의 도리는 두 사람의 관계보다 각자의 개별성을 중시해야 한다.  
⑤ 부부 간에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절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 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한다.  
ㄴ. B: 대지 공동체 자체가 지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ㄷ. C: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ㄹ. D: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보 기>

- ㄱ.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미 활동이어야 한다.  
ㄴ.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을 제공해야 한다.  
ㄷ. 예술가는 미(美)를 추구하므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ㄹ.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삶도 내가 원하고 의로움을 또한 내가 원한다.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의로움을 취하지 어찌 구차하게 살겠는가.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죽음조차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슬픈 일인가? 생명이란 본래 자연에서 벌린 것이니 마치 티끌과 같고, 삶과 죽음의 이치는 밤낮의 변화와 같다. 이제 우리는 그 자연스런 변화를 바라보노니, 그것이 내게 왔다고 해서 어찌 싫어하겠는가.

- ① (가): 생(生) 그 자체가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다.
- ② (가): 도덕적 가치가 삶과 죽음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나):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 응보의 과정이다.
- ④ (나): 삶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상적 인간의 경지이다.
- ⑤ (가), (나): 죽음 이후를 대비하여 도덕적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여성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는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성의 도덕 발달 과정과는 다른 또 하나의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규정되는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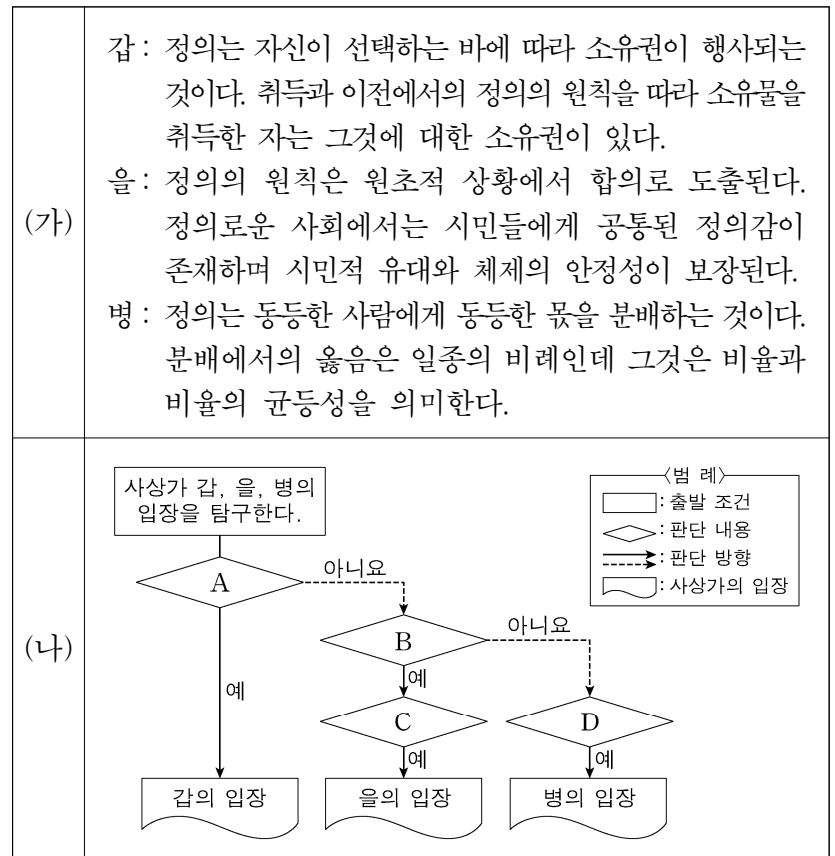
- ①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 ② 감정을 배제한 선행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높다고 봐야 한다.
- ③ 배려는 보편적 의무 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④ 성차는 존중해야 하나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같다고 봐야 한다.
- ⑤ 도덕 판단은 상황적 맥락보다 합리적 추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1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이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 ① 사회 정의 실현에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이다.
- ② 개인의 이타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한다.
- ③ 국가 간 이해 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 ④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인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든다.
- ⑤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14.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
- ㄴ. B: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한가?
- ㄷ. C: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 ㄹ. D: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또한 위험에 당면해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 비겁한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문제 상황>

A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 책임자이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A에게 고객 B의 부당 거래가 의심된다고 B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고객들과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A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인품에 비추어 판단하세요.
- ② 개인의 권익이 회사와 공동체의 이익보다 중요함을 고려하세요.
- ③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 의식에 의해 상사의 요구에 응하세요.
- ④ 개인 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을 측정해 판단하세요.
- ⑤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을: 사회의 기본 구조가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지나치지만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 ② 갑: 법률과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판별 근거로 삼아야 한다.
- ③ 을: 양심에 충실한 거부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닌 경우가 있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폭력적·공개적 저항이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1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소득 중 일부는 기부해야 한다. 원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다른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을: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의 배타적 소유권을 타인의 삶과 행복을 명목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다.  
병: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제도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해외 원조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 확립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갑은 모든 개인의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 원리는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해외 원조를 최소 국가가 강제해야 하는 의무라고 본다.
- ③ 병은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자원 빈곤국은 원조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④ 갑, 병은 국제 기구를 통한 원조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을, 병은 국가 간 부의 격차 해소 후에는 원조 의무가 없다고 본다.

18.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전쟁 종식만으로 평화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 ① 갑: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갑: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 ③ 을: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④ 을: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
- ⑤ 갑, 을: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19.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가) | *패스트 패션 산업은 경제적 측면에만 몰두하여 노동 조건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그 결과 패스트 패션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패션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도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조건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br>*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최신 유행 상품을 빠르게 공급해 상품 회전율이 빠른 패션 |
| (나) | 패스트 패션 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패스트 패션을 즐기면서 다양한 미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패스트 패션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하다.                                                                             |

<보 기>

- ㄱ.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ㄴ. 패션에 대한 개인들의 차별화된 욕구와 기호를 간과하고 있다.  
ㄷ. 욕구 충족만이 소비의 도덕 판단 기준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ㄹ.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 성향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 칼럼

고위 공직자들은 법을 제도와 별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무 의식을 스스로 내면화해야 한다. 귀족의 책무를 뜻하는 ㉠은/는 서양의 전통에서 유래하였지만 고위 공직을 담당한 지도자에게 여전히 요청되는 덕목이다. 이 덕목은 더 강한 책임 의식, 더 높은 도덕성,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이 덕목의 실현으로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연대는 강화되고 준법과 참여가 원활해진다. 나아가 국가가 내우외환에 봉착할 경우 구성원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기꺼이 나서게 된다. ... (후략)...

- ①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 ② 시민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사회 계층 간 화합에 기여한다.
- ③ 정치권력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여 국가 전반의 청렴성을 고양한다.
- ④ 전통 사회와 현대 사회 모두에 공통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 ⑤ 국가가 위기를 맞을 경우 일반 시민들의 솔선과 협력을 유도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생명 복제, 사회 불평등 등과 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②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다
-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④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 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대동강을 돈 받고 판 김선달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동강의 강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강물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하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갑

북청 물장수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강물이 아닌, 물장수가 한강에서 퍼 온 물통 속의 강물을 삽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물통 속의 물과 같아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 ② 갑: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을: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자산이다.
- ④ 을: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 ⑤ 갑, 을: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 ①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 ② 원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4. 다음 가상 대답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께서 좋은 벗은 마음이 굳건하여 잘못을 하지 않지만, 나쁜 이들은 자주 변하기에 굳건한 마음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완전한 우애는 사람 됨됨이를 사랑하여 서로를 즐겁게 합니다. 이러한 우애는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완전한 우애를 위해서는 시간과 친교가 필요하겠군요. 그렇다면 쾌락을 위한 우애는 어떻습니까?

3

쾌락을 위한 우애도 서로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애는 즐거움이 목적이기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4

- ① 쾌락을 위한 우애나 완전한 우애 모두 서로에게 즐거움을 준다.
- ② 유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애를 나눌 수 없다.
- ③ 좋은 벗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쾌락을 위한 우애는 서로 즐거움을 주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 ⑤ 완전한 우애만이 서로의 선한 성품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답>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공백’의 시대에는 구원의 예언보다 불행의 예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기술 유토피아주의를 찬양하는 ‘희망의 원칙’이 아닌,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와 관련된 ‘공포의 원칙’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 <가상 대답>

리포터: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상가: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를 가져야 합니다.

- ①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②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③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④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⑤ 행위의 직접적 영향의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서 나온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원리에 따라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연명 의료에 대한 의향서 작성을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세요.
- ② 이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④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⑤ 자연법의 원리가 아닌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하세요.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을: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 ① 갑: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한다.
- ② 갑: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③ 을: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④ 을: 노력자(勞力者)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 ⑤ 갑, 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8.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詩)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을: 예술의 사명은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애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① 갑: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 ② 갑: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 ③ 을: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
- ④ 을: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⑤ 갑, 을: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생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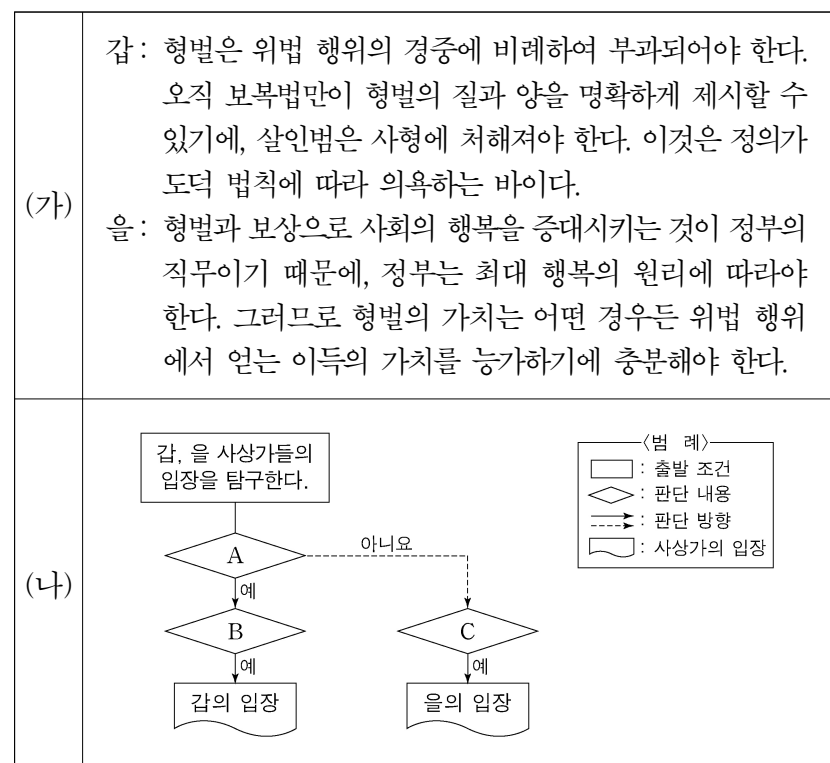
지난 편지에서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이기심이 선의지에 의해 견제되고 있어 모든 집단은 조화를 이룰 것이라 하시며, 개인의 선의지 함양을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 범위,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를 순전히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 이기보다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은 집단 간의 갈등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후략) ...

<보 기>

- ㄱ.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 ㄴ. 선의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
- ㄷ. 사회 정의는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 ㄹ.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 ㄷ. C: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 ㄹ. C: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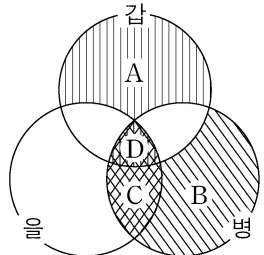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情)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p> <p>을: 무당벌레와 진딧물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種)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선을 가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은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인 동물들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lt;법 레&gt; —</p> <p>A: 갑만의 입장<br/>             B: 병만의 입장<br/>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br/>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ㄱ. A: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ㄴ. B: 인간이 동물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ㄷ. C: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인 개체도 존재한다.  
 ㄹ. D: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는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자는 입증된 방법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뿐이며, 오로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다할 뿐이다.

— <보 기> —

ㄱ.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모든 활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ㄴ. 과학자는 연구의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ㄷ.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  
 ㄹ. 과학자는 연구 주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죽음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운명이다. 사계절이 변하듯이 기(氣)의 변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이 바뀌는 것일 뿐이니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 오온(五蘊)의 새로운 구성이 태어남이고 그 해체가 죽음이다. 죽음은 현세의 업보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생멸(生滅)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생사(生死)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 ① (가): 인(仁)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② (가):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의 욕망을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③ (나): 죽음은 고통이 없는 생(生)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이다.  
 ④ (나): 중생은 그의 오온이 해체되어도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⑤ (가), (나): 참된 지혜는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후에만 얻어진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을: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국가는 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과 같은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 <보 기> —

ㄱ. 갑: 차등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  
 ㄴ. 갑: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을 안다.  
 ㄷ. 을: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  
 ㄹ. 갑,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서양 사상가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타 종교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참된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다. 참된 종교는 영혼의 내적 확신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내적 확신을 폭력과 같은 외부적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은 물론 인간 이성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을 인식해야 한다. …(후략)…

- ①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것
- ② 영혼의 내적 확신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
- ③ 종교적 박해는 불합리하므로 부당하다는 것
- ④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도 참된 종교라는 것
- ⑤ 종교적 불관용만이 이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

17.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는分別이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
| (나) |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養口體], 정신적 공경[養志],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이 있다. 그러므로 ㉠ 은/는 개나 말을 잘 먹여 기르는 것과는 다르다. |

- ①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相敬如賓)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 ②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로 완성되는 것이다.
- ③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百年偕老)로 완성되는 것이다.
- ④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 ⑤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불감훼상(不敢毀傷)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어떤 국가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국가의 어떠한 세력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 정의로운 전쟁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

을: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이다. 한 국가에 대한 폭력적 개입은 결국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① 갑: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뿐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갑: 인권 침해만으로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이 완비되지 않는다.
- ③ 을: 평화 조약이란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하다.
- ④ 을: 영원한 군비 경쟁을 통해서만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갑, 을: 전쟁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 기>

-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 ①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가?
- ② 사회 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는가?
- ③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 ④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대해 무관심한가?
- 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이상을 제안하고 올바른 판단과 행위의 근거인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실생활의 도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 주제로 삼아 환경오염, 연명 치료 중단, 사형 제도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② (가):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실태 조사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③ (나): 윤리학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증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④ (나): 윤리학은 현실 문제에 대한 도덕 원리의 적용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2. 갑 사상이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을: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②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 ④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간과한다.
- 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보 기>

ㄱ.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ㄴ.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ㄷ.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ㄹ.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 역시 부당합니다. 침묵시키려는 의견이 오류라고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오류라고 해도 그것을 침묵시키는 것은 해악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공인된 견해도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그것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가 보장돼야 합니다.



- ① 토론에서는 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은 침묵시켜야 한다.
- ② 토론의 전제 조건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하는 것이다.
- ③ 토론에서는 진리로 공인된 견해를 비판할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 ④ 토론의 자유와 인간의 완벽한 지적 능력이 진리 추구의 조건이다.
- ⑤ 토론에서 오류라고 합의된 소수 의견도 진리 탐구에 기여한다.

5. 갑, 을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詩)만을 이 나라에 받아들여야 한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을: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사례>

A는 웹툰 작가로 포털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할 예정이다. 어떤 작품을 그려야 할지 A는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 ② 갑: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 ③ 을: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도록 하세요.
- ④ 을: 독자들에게 도덕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세요.
- ⑤ 갑, 을: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세요.



6.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심장과 폐가 활동한다 해도, 뇌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상실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수 없다. 생명체의 활동에 있어서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뇌사자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공익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뇌사의 오판 가능성을 제기 하지만,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보 기>—

- ㄱ.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ㄴ.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는가?  
 ㄷ. 뇌사자 장기 이식은 사회적 유용성의 증진을 저해하는가?  
 ㄹ. 심폐 기능의 불가역적 상실만을 죽음으로 판정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종교적 인간은 탄생, 결혼, 죽음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거룩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스스로 현현(顯現)하여 이 세계를 성화(聖化)시킨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자신만을 역사의 주체로 생각하며, 초월적 존재를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탄생, 결혼,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는 종교적 현상이 관찰된다.

- ① 종교적 인간은 스스로 성스럽게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를 믿는다.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한다.  
 ③ 종교 의식과 무관한 세속적 일상 의례에도 신성성이 깃들어 있다.  
 ④ 세속적 인간은 통과 의례가 갖는 종교적 의미를 자각하지 못한다.  
 ⑤ 세속적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을: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이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단순히 다른 생물의 종말에 입각해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과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 ① 갑: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② 갑: 죽음이라는 실체를 수용해야 불멸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을: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④ 을: 현존재는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려하는 존재이다.  
 ⑤ 갑, 을: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보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p> <p>을: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p> <p>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인 대지의 구성원이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
| (나) | <p>—&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br/>         B: 병만의 입장<br/>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br/>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

—<보 기>—

- ㄱ. A: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존재는 이성적 존재뿐이다.  
 ㄴ. B: 유기체적 생명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ㄷ. C: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행위만이 옳다.  
 ㄹ. D: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 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는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생산과 유통은 국가가 규제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해악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물론 생산과 유통도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갑



을

- ① 갑: 국가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  
 ② 갑: 국가는 혐오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③ 을: 국가는 정보의 접근이 아닌 생산·유통의 자유만 보장해야 한다.  
 ④ 을: 국가는 해악 금지 원칙에 따라 정보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  
 ⑤ 갑, 을: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11.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부모님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네. 살림살이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부모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지. 다만 자네가 어버이를 섬길 때 증자(曾子)를 본받았으면 하네. 증자는 아버지께 끼니마다 반드시 고기와 술을 차려 드렸다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아버지께 여쭙었고, 아버지께서 남은 음식이 있다고 되물으시면 증자는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네.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것이지. 그런데 증자를 봉양한 증자의 아들은 남은 음식이 있냐는 증자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지. 증자의 아들은 아버지께 다시 음식을 올리려 한 것이네. 증자의 아들은 입과 몸을 봉양한 것에 지나지 않고 증자는 뜻을 봉양한 것이라 할 수 있지. …(후략).

- ① 자식은 아버지가 가진 의중을 헤아려서 봉양해야 한다.
- ② 자식은 아버지의 옳지 못한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 ③ 아버지를 봉양하는 까닭은 자식에게 봉양받기 위함일 뿐이다.
- ④ 아버지를 섬기는 방식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 ⑤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아버지보다 이웃을 더 배려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을: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기꺼이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공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것이 인간적 정의의 기초이다.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공리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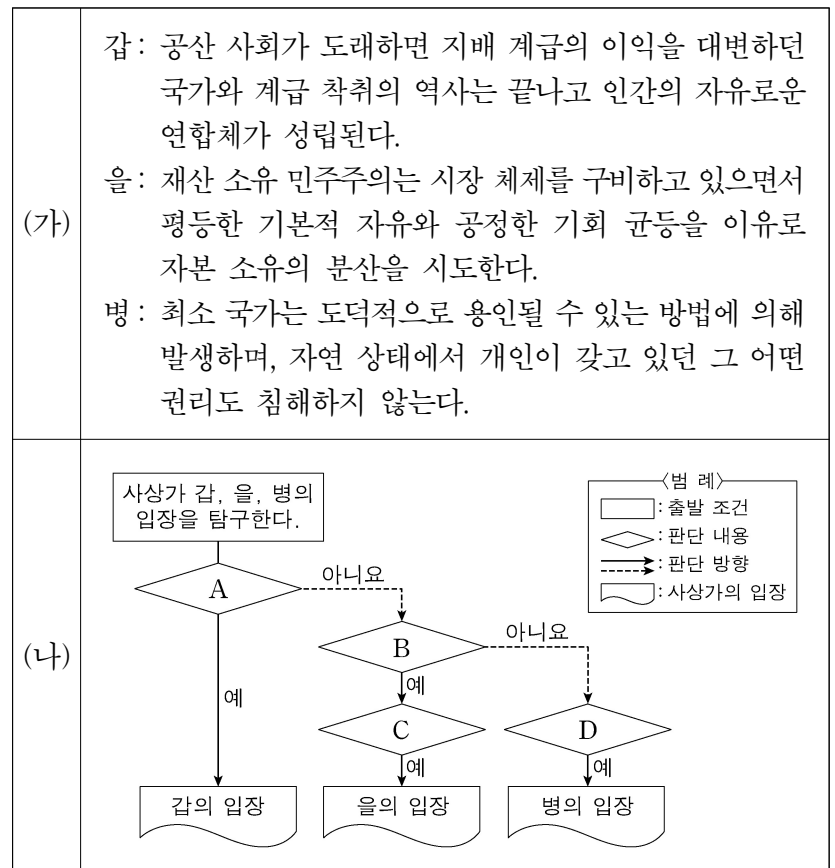
- ① 갑: 범죄자는 범행이 아닌 처벌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 ② 갑: 사형은 살인범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려는 응분의 보복 행위이다.
- ③ 을: 종신 노역형은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 ④ 을: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최대이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⑤ 갑, 을: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을 위해 수행될 뿐이다. 분업은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지만, 노동자는 생산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 이외의 다른 모든 정신적 능력들을 잃어버렸다. 이는 예외 없는 현상이다.  
을: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청교도는 철저한 노동 의무의 수행을 통해 신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시도하였다. 동시에 노동 계급에 강제된 엄격한 금욕이 자본주의의 노동생산성을 강력히 촉진시켰다.

- ① 갑은 자본주의에서 정신적 능력 회복으로 소외가 극복된다고 본다.
- ② 갑은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 쇠퇴와 소외를 심화시킨다고 본다.
- ③ 을은 금욕과 결합된 노동 의무가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
- ④ 을은 청교도가 직업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간주했다고 본다.
- ⑤ 갑은 분업 노동, 을은 소명 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14.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해야 하는가?
- ㄴ. B: 사유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한가?
- ㄷ. C: 무지의 배일 속의 사람은 자기 이익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가?
- ㄹ. D: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주관적 가치를 개입시키게 됩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또한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가 미칠 사회적 영향을 인식하여 연구 및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사회적 책임까지 다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과학자에게 그러한 책임까지 돌리면 과학의 발전이 지체됩니다. 연구 결과가 활용되어 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도 그것은 연구 결과를 활용한 사람들의 책임일 뿐입니다.  
을: 과학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지만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과학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간적 속도가 아니라 윤리적 방향입니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하는가?
- ② 과학자는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가?
- ③ 과학자는 과학 연구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어야 하는가?
- ④ 과학자에게 내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부과해야 하는가?
- ⑤ 과학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면 과학 발전이 지체될 수 있는가?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전쟁 수행 중 위험에 처한 민간인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통해 전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덕의 유용성'이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전쟁을 시작하면 정의롭게 싸우고 정의롭게 종결해야 한다.  
을: 도덕의 주체인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할 수 없으며, 국가도 한 인격체로서 타국의 한낱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독립 국가도 상속, 매매, 증여, 교환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는 영구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① 갑: 평화시와 달리 전시에는 도덕적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갑: 전쟁 결과가 정의로워야 수행 과정도 정의롭다고 판정될 수 있다.
- ③ 을: 영구 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한다.
- ④ 을: 국가 간 적대 행위가 중지되는 즉시 평화 상태가 보장된다.
- ⑤ 갑, 을: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강제 개입은 평화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체제나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으며 기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로 바뀌도록 돕는 데 있다.  
을: 인권 유린이 없거나 절대 빈곤 상태가 아니라 해서 개인을 돕는 일에 관계하지 않는 국제 정의의 원칙은 옳지 않다. 우리는 지구상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기본적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한 개인들을 도와야 한다.

- ① 갑: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분배 정의 실현이다.
- ② 갑: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원조 대상은 최대 효용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을: 원조 주체의 과도한 희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조해야 한다.
- ⑤ 갑, 을: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 간의 부의 수준 조정을 지향해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일종의 민주적 정부의 형태를 갖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보 기>—

ㄱ.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폭력으로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ㄴ.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ㄷ. 시민 불복종은 도덕적으로는 옳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위법 행위이다.  
ㄹ. 민주적 정부의 법도 부정의하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9. 다음 대화에서 스승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p>스승님, 옛 성현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하셨으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하는지요?</p> <p>1</p> | <p>대개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자와 벗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나은 자는 피하기 마련이니 이를 일러 하신 말씀일 따름이지. 선한 이만 가려 벗하려 한다면 이는 곧 치우침이니라.</p> <p>2</p> |
| <p>그렇다면 악한 이와 더불어 사귀다 휩쓸려 그 속에 빠져들면 어찌합니까?</p> <p>3</p>                               | <p>친구가 선하면 본받고 악하면 고쳐줘야 할 것이니, 선함과 악함은 모두 스승이다. 만일 악에 휩쓸려 빠져들어가기만 한다면, 학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p> <p>4</p>           |

- ① 학문을 통해 친구 관계를 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② 행실이 바르지 못한 벗과의 교제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바가 없다.
- ③ 자기보다 선한 사람만을 가려서 사귀는 것은 치우침이 아니다.
- ④ 선한 마음을 지키려는 이는 사람을 두루 사귀는 것을 삼가야 한다.
- ⑤ 옛 성현의 가르침을 현재의 인간관계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2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공용어와 공통의 문화를 강조할 경우 오히려 국가 내 집단을 다수와 소수로 갈라놓아 소수 집단이 다수에 압도당하게 된다. 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사회의 다수가 오랫동안 공유해 온 관행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민에게 기본적 시민권은 보장하되 관습과 신앙 및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할 여지를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통합은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통합의 실행 가능한 방법은 이주민의 정체성을 국가 전체의 정체성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후략).

- ① 통합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행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공용어 사용을 의무화해야 국가적 유대감이 증진됨을 유념해야 한다.
- ③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④ 동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통합 실행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 ⑤ 이주민의 삶의 양식 변화가 그들의 시민권 보장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②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기능성의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 목표이다.
- ③ (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 ④ (나): 윤리적 문제의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2.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토대이다. 배려했던 기억과 배려받았던 기억이 윤리적 행위의 초석이다.  
을: 인류는 고통과 쾌락의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도하며 의무를 결정짓는 것은 오로지 고통과 쾌락뿐이다.

- ①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우선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유용성의 계산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가 인간 고유의 성향임을 간과한다.
- ④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윤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함을 간과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뜻이 있는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을: 성인(聖人)의 삶은 자연의 운행과 같고, 죽음은 만물의 변화와 같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불행을 자초하지 않는다. 그의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휴식과 같다.

- ① 갑: 죽음은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 ② 갑: 죽음은 내세(來世)에서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 ③ 을: 죽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인 도(道)와 연관된 현상이다.
- ④ 을: 죽음은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만 하는 슬픈 일이다.
- ⑤ 갑, 을: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만 한다.

4. 다음 가상 대답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배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이 논란거리입니다. 이에 선생님께서는 치료가 아닌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수단화하기에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2. 예, 정상적인 능력을 더 강화하는 유전학적 개입은 일방적인 것이기에 세대 간의 평등성을 훼손하며, 그 존재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유전학적 강화로 태어난 인간은 부모 세대의 일방적인 결정과 당사자의 동의 결여로 인해 자신의 삶에 부당한 간섭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4. 맞습니다. 유전학적 강화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없기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① 자녀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도구화한다.
- ② 유전학적 치료에 대해서는 담론을 통한 보편적 합의가 가능하다.
- ③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전학적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유전학적 강화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온전한 자율성을 지닐 수 없다.
- ⑤ 자질 강화를 위한 배아 유전자 조작은 세대 간의 균형을 회복시킨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A, B, C의 행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이성적 능력의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집단의 이기적 충동의 힘이 이성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성의 힘만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                                                                                                         |
|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는 전제 정치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면서 사랑과 평화라는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전제 군주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li> <li>○ B는 봉건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과 결단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였다.</li> <li>○ C는 식민 지배에 반대하면서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비폭력적으로 지배국의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li> </ul> |

<보 기>

- ㄱ. A는 정치적인 힘 대신에 양심에만 호소하는 잘못을 범했다.  
ㄴ. B는 자신의 의도를 조직적인 정치적 저항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ㄷ. C는 비폭력적으로 대응하여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지 못했다.  
ㄹ. A와 B는 집단적 저항이 필요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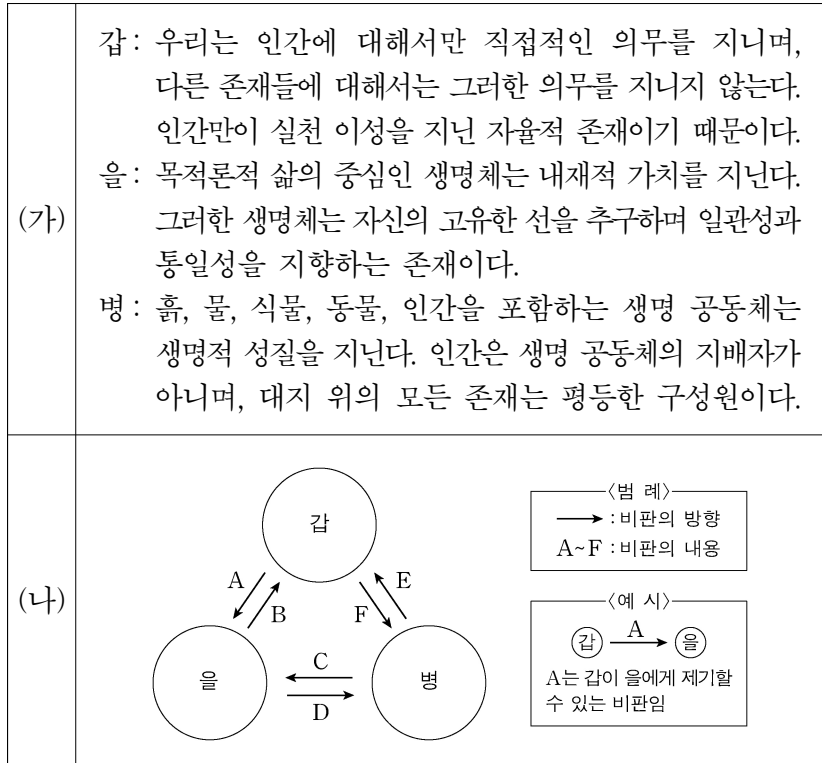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음을 간과한다.  
 ② C: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는 잘못임을 간과한다.  
 ③ A, F: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④ B, E: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⑤ D, F: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7.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에게

자네가 벼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 이이(李珥) 선생은 학문과 선(善)을 좋아하며 성실한 이를 벼으로 선택해 그가 하는 조언을 받아들여 나의 부족함을 고치되,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며 바르지 못한 이와는 사귀지 말라고 하였네. 이처럼 벼와 함께 있을 때에는 도의(道義)를 통해 공부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자세를 낮추어야지, 비루한 말들이나 남의 허물 등은 일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네. 요즘은 부드럽게 아침하는 이를 친한 벼으로 여기면서, 어깨를 치고 소매를 붙잡는 것을 의기가 투합했다고 생각하네. 그러다가 한마디 말이라도 어긋나면 화가 오고 가니, 이런 이와는 진정한 우정을 쌓기가 어렵다네. ... (후략).

〈보 기〉

- ㄱ. 가까운 벼 사이에도 지켜야만 하는 예의가 있다.  
 ㄴ. 벼의 잘못은 신의(信義)를 고려하여 묵인해야 한다.  
 ㄷ. 참된 우정은 도덕적 기준에 의한 벼의 선택을 전제하지 않는다.  
 ㄹ. 참된 벼의 권면(勸勉)을 받아들여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태아는 인간 생명체이지만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기에 부분적인 도덕적 지위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지만, 임신부의 질병 등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고 나중에 더 좋은 상황에서 임신하려는 경우라면 임신 중절은 허용됩니다.

태아가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잠재성이 중요한 이유는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태아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 기〉

- ㄱ. 갑: 태아의 권리와 임신부의 권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을: 태아는 특별한 방해가 없는 한 하나의 인격체로 자랄 것이다.  
 ㄷ. 을: 태아는 합리적·자의식적인 존재이기에 해쳐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태아를 단순한 세포 조직처럼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여러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점차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편익도 생긴다. 분단 비용은 분단에 따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지불하는 유무형의 비용으로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평화 비용은 인도적 지원, 사회 문화 교류 사업 등과 같이 통일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투자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제도의 통합, 화폐의 통합 등을 위해 통일 한국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이산가족의 고통과 외국인 투자 감소는 분단 비용에 포함된다.  
 ②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교류 사업은 통일 비용에 포함된다.  
 ③ 분단 비용은 소모적 비용으로 민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평화 비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분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경제 협력의 확대를 통해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편입시켜 자유와 평등을 확립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보 기〉

- ㄱ. 갑: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의 부가 균등할 때까지 원조해야 한다.  
 ㄴ. 갑: 원조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 한다.  
 ㄷ. 을: 자립적인 정의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ㄹ. 갑, 을: 해외 원조는 자선의 차원을 넘어 윤리적 의무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인공 지능을 통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므로 모든 상황에서 인공 지능에게 운전을 맡겨야 합니다.  
을: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 ① 인공 지능의 사용은 인간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가?
- ② 자율 주행 자동차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 ③ 자동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
- ④ 위급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가?
- ⑤ 인공 지능의 사용은 자동차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게만 생겨나는 문제이다. 시민 불복종 행위가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대상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보 기>  
ㄱ.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ㄴ. 시민 불복종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의 수용을 전제한다.  
ㄷ.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ㄹ.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복제 기술의 발달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 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을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돈으로 일원화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며, 규격품을 만들어 내듯이 인간을 획일화시켜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① 갑: 복제 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② 갑: 예술 작품의 아우라 소멸은 대중의 예술 비평 활동을 위축시킨다.
- ③ 을: 문화 산업의 확산은 인간의 상품화와 물개성화를 조장한다.
- ④ 을: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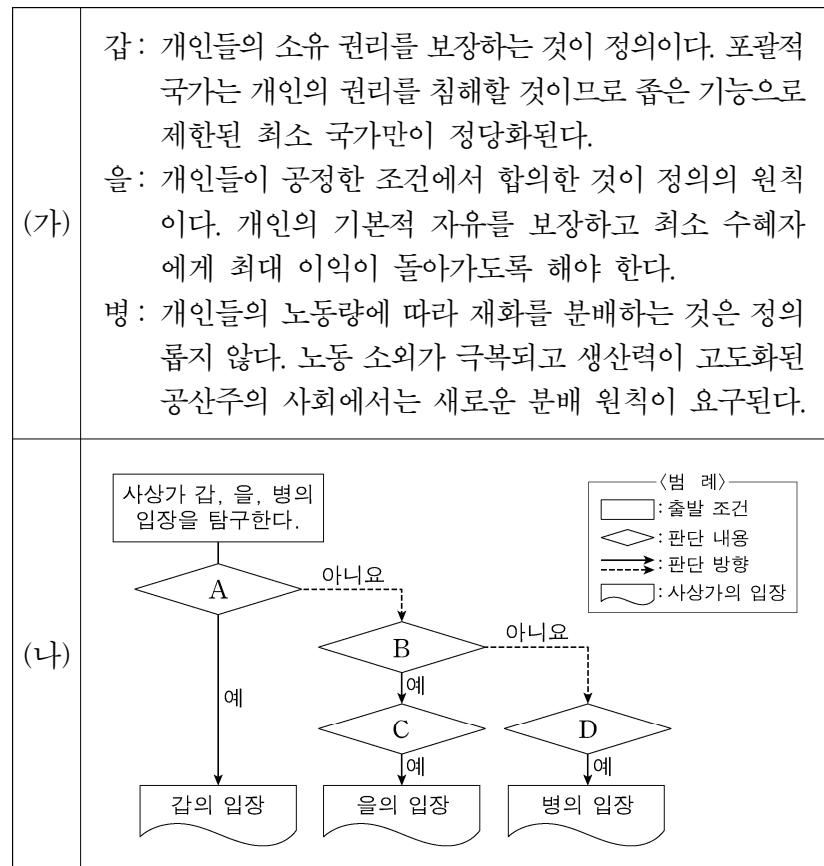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양로(養老)의 예법 중에는 노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절차가 있다. 그러므로 목민관(牧民官)은 노인에게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과 질병이 무엇 인지를 물어서 그 절차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 “윗사람이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백성들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다. 목민관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령의 노인을 위해 혜택을 베풀고, 양로의 예법을 제도화 하는 데 힘쓰면, 백성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보 기>  
ㄱ.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  
ㄴ. 윗사람의 모범을 통해 장유유서(長幼有序)를 구현할 수 있다.  
ㄷ.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ㄹ.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은 정신적·물질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A: 정형화된 재화 분배 원칙은 분배적 정의에 위배되는가?  
ㄴ. B: 경제적 불평등의 극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ㄷ. C: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되는가?  
ㄹ. D: 업적에 따른 분배 원칙은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6.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주류 문화와의 통합 여부는 소수 문화의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다. 주류 문화 구성원이 소수 문화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  
 을: 단일한 언어, 문화 전통, 교육 정책을 추구하여 소수 문화가 주류 문화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통일된 문화의 부재 때문에 집단 간 결속력이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갑: 사회 통합을 위해 소수 문화가 억압받아서 안 된다.
- ② 갑: 소수 문화 구성원에게 문화적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③ 을: 사회적 유대의 강화를 위해 단일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을: 사회 발전을 위해 주류 문화가 문화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의 교육 정책으로 통일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전쟁 중에는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합하여 세계 시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을: 전쟁 개시가 정당화되면 전쟁의 동기와 목표가 정의로워야 한다. 전쟁의 목적은 다른 국가를 섬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것이다.

- ① 갑: 국가 간 적대 행위 중단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국가들의 통치 형태와는 상관없이 완전한 영구 평화는 가능하다.
- ③ 을: 타국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쟁은 모두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 ④ 을: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 개시 명분의 정당성에 따라 결정된다.
- ⑤ 갑, 을: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18.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년 ○○월 ○○일

**칼럼**

남성과 여성 간 지적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 속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 대해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후략).

- ① 여성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 ②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여성의 자유권 확대와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은 양립 가능하다.
- ④ 남녀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이지만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⑤ 여성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갑: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br>을: 모든 형벌 자체는 해악이지만 공리의 원칙에 따르면 형벌이 주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을 제거하여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이 허용될 수 있다.<br>병: 사형은 범죄자를 교정하기보다는 죽여서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 범죄자의 지속적인 불행을 본보기로 보여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형보다 강력한 인상을 준다.                           |
| (나) | <div style="margin-top: 1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lt;법 레&gt;<br/>                     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br/>                     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br/>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iv> |

<보 기>

- ㄱ. A: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ㄴ. B: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ㄷ. C: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형벌은 정당하다.  
 ㄹ. C: 범죄자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

20. 갑, 을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자신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계획을 세워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효용이 큰 제품을 선택하여 소비해야 한다.  
 을: 자신의 소비 생활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사회, 자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소비를 해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아보카도가 슈퍼 푸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보카도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또한 재배에 많은 물이 소모되어 동식물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 A는 그 사실을 알고 아보카도를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갑: 자신의 처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소비인지를 고려하세요.
- ② 갑: 충동적 소비나 과시적 소비가 되지 않는지를 고려하세요.
- ③ 을: 생산 지역의 주민의 삶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 ④ 을: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결정하세요.
- ⑤ 갑, 을: 다른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실천의 학으로 도덕 이론을 응용하여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실제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이론과 도덕 문제 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 ②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③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④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 ⑤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간과한다

2.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사례>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A는 평소 남을 돕는 일에 기쁨을 느끼며 봉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런데 A는 최근 겪은 슬픈 일로 인해 봉사 활동에 계속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공동체의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행위해야 합니다.
- ②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 ③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 ④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위해야 합니다.
- 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며,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혼인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적인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 ① 갑: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갑: 성의 생식적인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
- ③ 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모두 비도덕적이다.
- ④ 을: 상호 동의만 전제되면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⑤ 갑, 을: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4.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소인은 한가롭게 지낼 때는 거침없이 불선(不善)을 행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불선함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군자는 반드시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
| (나) | 몸과 마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마음 가운데 온갖 이치[理]가 갖추어져 있으니, 만약 한 가지 이치라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흠과 모자람이 있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는 ㉠을/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 ①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 ② 항상 동기간(同氣間)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 ③ 인(仁)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 ④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立身揚名)에서 시작된다.
- ⑤ 상호 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5.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문○○○○년 ○○월 ○○일

칼럼

명품 소비는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의 명품 소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일부 계층의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모조품을 찾으면서까지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 성향은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욕구와 연관되어 명품 소비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든다. 그 결과, 명품 구매를 통해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일시적으로 충족되지만, 자신의 개성은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명품 소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  
...(후략).

<보 기>

- ㄱ. 동조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한다.
- ㄴ.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
- ㄷ. 모방 소비를 지양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야 한다.
- ㄹ.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과시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을: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 헌법의 의도에 어긋나는 항거이다.  
ㄴ. 갑: 정의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ㄷ. 을: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하나의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을: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 ① 갑: 예(禮)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갑: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 ③ 을: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 ④ 을: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恒産)에 앞서 항심(恒心)을 지녀야 한다.
- ⑤ 갑, 을: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의사는 질병에 관한 전문 지식을 지니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의 선을 위해 간섭하듯이, 의사도 환자의 선을 위해 온정적으로 간섭해야 합니다.  
을: 물론 전문 지식은 차이가 있고 의학적인 온정적 간섭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갖기 때문에, 그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갑: 환자 역시 인간입니다. 하지만 환자는 치료에 있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의견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의 사명은 질병 치료이니깐요.  
을: 질병 치료가 의사의 사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건강 이외에도 다른 여러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 보다는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① 질병 치료가 의사의 본질적 사명인가?
- ② 의사의 온정적 간섭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 ③ 치료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 ④ 의사와 환자는 의학적 전문 지식에 있어서 비대칭적인가?
- 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가?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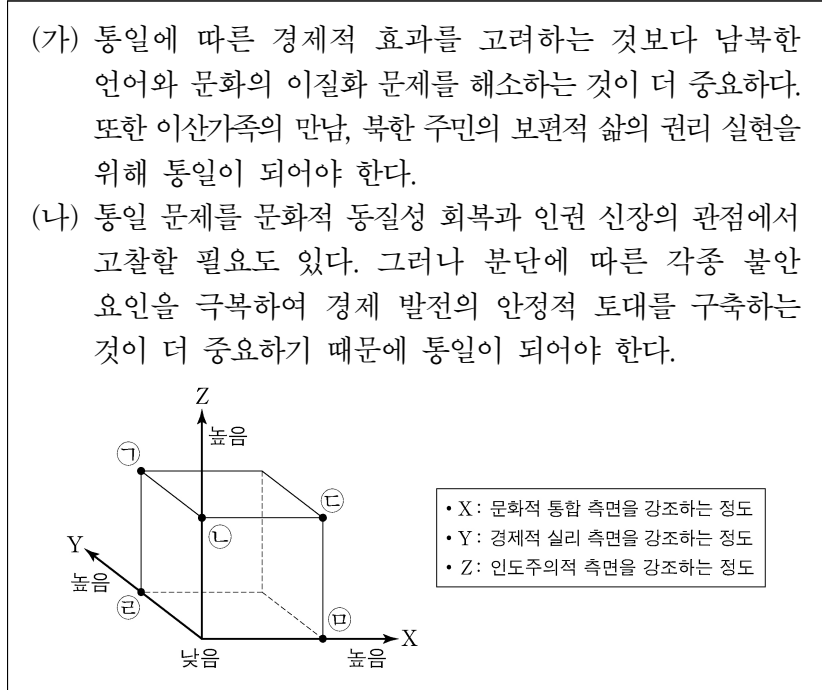
|     |                                                                                                                                                                                                                                                                         |
|-----|-------------------------------------------------------------------------------------------------------------------------------------------------------------------------------------------------------------------------------------------------------------------------|
| (가) | <p>갑: 대지 윤리는 생태 윤리를 반영한다. 생태 윤리는 각 개인이 대지의 건강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는 무조건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이지 중간은 없다.</p> <p>병: 생명체가 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을 실현하려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다.</p> |
| (나)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lt;범 례&gt;—</p> <p>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br/>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보 기>—

ㄱ. A: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닌다.  
ㄴ. B: 한 살 이상의 정상적인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ㄷ. C: 생태계의 선이 개체의 선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ㄹ. D: 인간 상호 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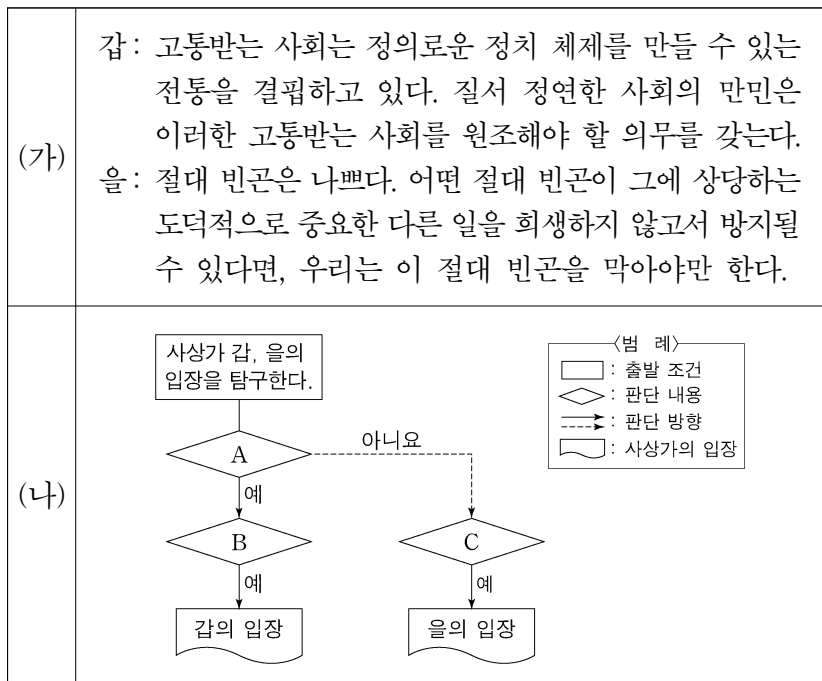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A: 원조는 국가 간 복지 수준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가?  
 ㉡. B: 원조는 국가 간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윤리적 의무인가?  
 ㉢. C: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은 원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C: 원조 주체와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3.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다.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긍정적 측면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나, 여러 자아를 실험하며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체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의 위험에 유의한다면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

- ①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의 반영에 불과하다.  
 ② 사이버 자아의 익명성은 위험하기에 실명화해야 한다.  
 ③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 도덕적 책임에 민감하다.  
 ④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⑤ 사이버 공간의 다중 자아를 금지해 정체성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시(詩)란 사람의 마음이 세상 사물이나 풍속과 감응하여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으니, 시에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여,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자신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보 기>

- ㉠.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시를 감상할 때에는 윤리적 성찰을 겸해야 한다.  
 ㉢. 시는 그 사회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 올바르지 못한 시도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평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빈곤, 차별과 같은 간접적 폭력이 없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을: 전쟁은 항상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전쟁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전쟁의 정당성은 개시, 수행, 종식 등의 전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 ① 갑: 평화는 어떤 경우라도 평화적 수단으로만 성취되어야 한다.  
 ② 갑: 진정한 평화는 인간 안보가 확장된 국가 안보를 통해 완성된다.  
 ③ 을: 빼앗긴 영토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④ 을: 불간섭 원칙에 따라 타국의 인권 문제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⑤ 갑, 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기업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공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힘써야 한다. 그러한 기업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헌신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시장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

—<보 기>—

ㄱ. 기업은 모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ㄴ. 기업은 자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경영되어야 하는가?  
 ㄷ. 기업은 공익의 증진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ㄹ. 기업은 기업 이익 증진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 하다.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지도록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을: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하였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해도 이 또한 정의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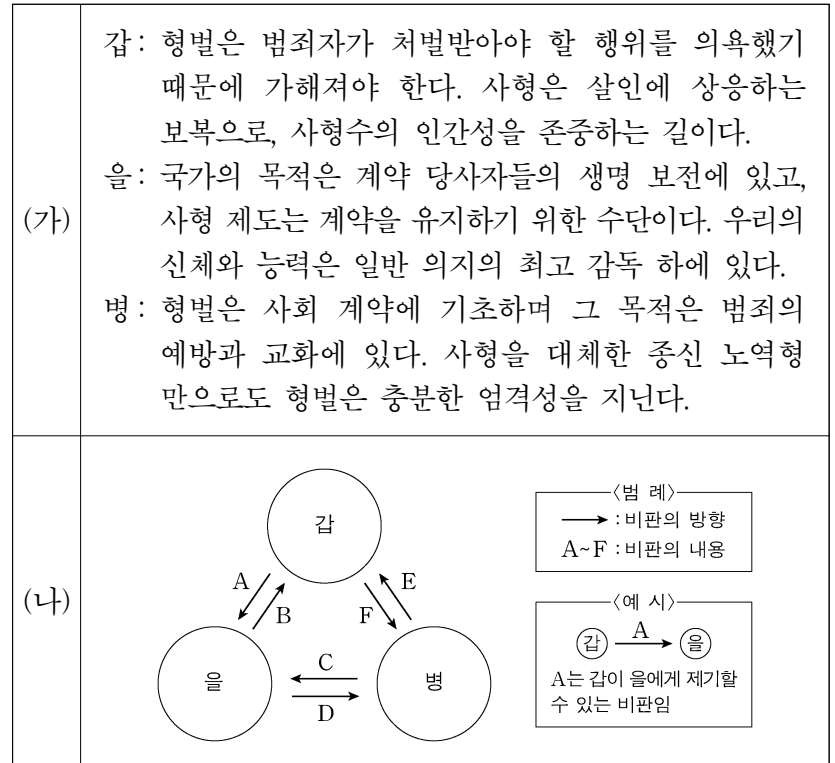
- ① 갑: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는 부정의하기에 보상되어야 한다.  
 ②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이다.  
 ③ 을: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던 재화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정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⑤ 갑, 을: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부당하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 흩어지는 자연의 과정이다. 생명을 얻음은 때를 만나서 태어난 것이요, 생명을 잃음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때에 맡겨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운명에 순응한다면 슬픔과 즐거움이 들어올 수 없으니,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풀어줌'이다.

- ① 연기(緣起)의 이치를 깨달아 고락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삶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도(道)를 따라야 한다.  
 ③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업(善業)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④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인의(仁義)의 삶에 힘써야 한다.  
 ⑤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상례(喪禮)를 통해 애도해야 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C: 국가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② B: 살인자도 인간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무시한다.  
 ③ D: 형벌적 정의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④ E: 처벌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라 응보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⑤ F: 형벌은 공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20. 그림은 어느 사상가의 강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나타나는 원시적인 성현(聖顯)에서부터 예수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높은 수준의 성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스러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재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세계의 부분을 이루는 대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종교적 인간은 ㉠



- ① 성스러움이 드러난 돌이나 나무 자체를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②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③ 세속의 세계 안에서 성현을 체험하며 그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④ 세속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⑤ 세속의 세계를 성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제 [    ] 선택 |
|----|--|-------|--|--|--|--|--|--|--|--|--|--|--|--|--|-------------|

1.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은 윤리 이론의 탐구보다는 실제 삶에서 만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 이론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생명공학, 법학 등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을: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사람들이 따랐거나 따르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기술하고 설명해야 한다.

- ① 갑: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② 갑: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
- ③ 을: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한다.
- ④ 을: 윤리학은 도덕 문제에 응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⑤ 갑, 을: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거룩한 것의 총체이다. 종교의 역사는 성현(聖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 인간은 우리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실재가 자연의 대상 속에서 현현(顯現)되는 사건에 마주칠 때, 예컨대 한 그루 나무를 우주적 생명의 이미지로서 접할 때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달리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부하는 인간 실존의 탈신성화 과정의 결과이다.

- ① 비종교적 인간도 세계를 성(聖)의 드러남으로 인정한다.
- ② 성(聖)이 현현되는 이 세계는 초월적 존재 그 자체이다.
- ③ 인간은 체험이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성(聖)을 만나게 된다.
- ④ 어떤 인간도 현실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정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
- ⑤ 인간이 성(聖)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연물에 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권력으로 정의된 이익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전쟁은 국익을 위한 국가 간의 불가피한 권력 투쟁으로부터 발생한다.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개입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이다.

을: 전쟁은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지만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이 심각하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해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도덕적으로 필요하다.

- ① 갑: 전쟁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이다.
- ② 갑: 국가 간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칙은 합의될 수 없다.
- ③ 을: 전쟁 결과의 정의를 위해 전쟁 수행의 정의는 유보해야 한다.
- ④ 을: 인권 침해국에 대한 군사 개입은 주권 침해로 예외 없이 부당하다.
- ⑤ 갑, 을: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해야만 전쟁 종식은 가능하다.

4.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악(樂)은 ‘같음’을, 예(禮)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며, 그 용모를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나)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 기>—

ㄱ. (가):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ㄴ. (가):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ㄷ. (나):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ㄹ. (가), (나):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원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사례>—

고등학생 A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가 TV에서 ‘난민 돕기 운동’ 광고를 보고 모은 용돈을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정언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 ②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행동하세요.
- ③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행동하세요.
- ④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 배려심을 발휘하여 행동하세요.
- ⑤ 공익은 사익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기증의 권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는 몸의 부분이고 몸은 인간 존엄성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을: 몸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돼야 합니다. 몸 자체와 달리 몸의 부분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면 존엄성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갑: 전체도 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몸 자체와 몸의 부분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의 이식은 존엄성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증의 허용은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을: 물론 존엄성을 훼손하는 장기 매매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몸의 소유권은 장기를 기증할 자기 결정권을 당연히 함의합니다.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① 장기 이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 ② 장기 매매는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 ③ 개인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가?
- ④ 몸 자체는 인간 존엄성의 중요한 토대인가?
- ⑤ 개인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자유를 지니는가?

7. 다음 신문 칼럼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기업은 고용인(雇傭人)\*과 고용주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계약 관계로 유지된다. 기업의 결속력도 서로의 이윤 창출을 위한 행위에 의해 생길 뿐이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충성까지 구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해치는 기업의 행위를 알게 된 고용인이 이를 사회에 알리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사회는 고용인에게 기업의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를 외부에 적극 알려야 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인은 특정 조직에 속한 개인인 동시에 정의롭고 행복하게 유지되어야 할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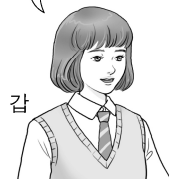
\* 고용인(雇傭人):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

- ① 고용주는 기업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용인과 고용주는 상호 협력과 결속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③ 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신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
- ④ 조직에 충성하기를 포기한 고용인은 그 조직에서 떠나야 한다.
- ⑤ 고용인은 조직에 대한 책무와 함께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8. 다음 대화에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민자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고 기존 사회와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① 갑: 주류 문화 우위를 전제로 이민자 문화의 특수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② 갑: 주류 문화를 수용하는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③ 을: 사회 조화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간 문화 위계를 인정해야 한다.
- ④ 을: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 ⑤ 갑, 을: 사회적 연대를 위해 주류와 비주류 문화 간 공존과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9.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옛 성인(聖人)이 세금 제도를 만든 것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자기를 봉양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갈등과 투쟁이 생겨 서로 죽이기까지 하거니와, 통치자가 법으로 다스려 평화롭게 해 주어야만 민생이 편안해진다. 그러나 이 일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할 수 없으므로, 백성은 수확의 10분의 1을 세(稅)로 바쳐 통치자를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통치자가 백성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 큰 만큼, 백성에 대한 보답도 무거운 것이다. 후세의 통치자는 세금 제도를 만든 의의를 모르고 ‘백성이 나를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혹하게 수취하니,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아 서로 싸워 국가가 혼란해진다.

- ① 공직자는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며 나랏일에 충실해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 ③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 ④ 공직자는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봉사로서 보답해야 한다.
- ⑤ 공직자의 탐욕과 수탈은 국민의 반목과 국가의 분란을 야기한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이용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차등 원칙은 운명의 우연성을 공정하게 다루는 정의로운 방식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 낸다.

- ① 갑: 정의로운 사회에서 우연성으로 취한 이득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갑: 사유 재산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을: 자연물에 대한 최초 취득의 자유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을: 분배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론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1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뒤,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더 절실히 요구되는 소비는 생산, 유통, 구매 그리고 사용 이후의 처리와 재생에 이르기까지 사회, 환경, 미래 세대 등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소비할 때 우리는 ㉠

—<보 기>—

- ㄱ. 생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 ㄴ.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ㄷ. 지속 가능한 소비보다는 현세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ㄹ.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의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 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며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병행되어야 견제가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 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 ②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 ③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 ④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 ⑤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빅 브라더(Big Brother)는 소셜 속 존재로, 사회를 철저히 장악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빅 브라더’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해, 실질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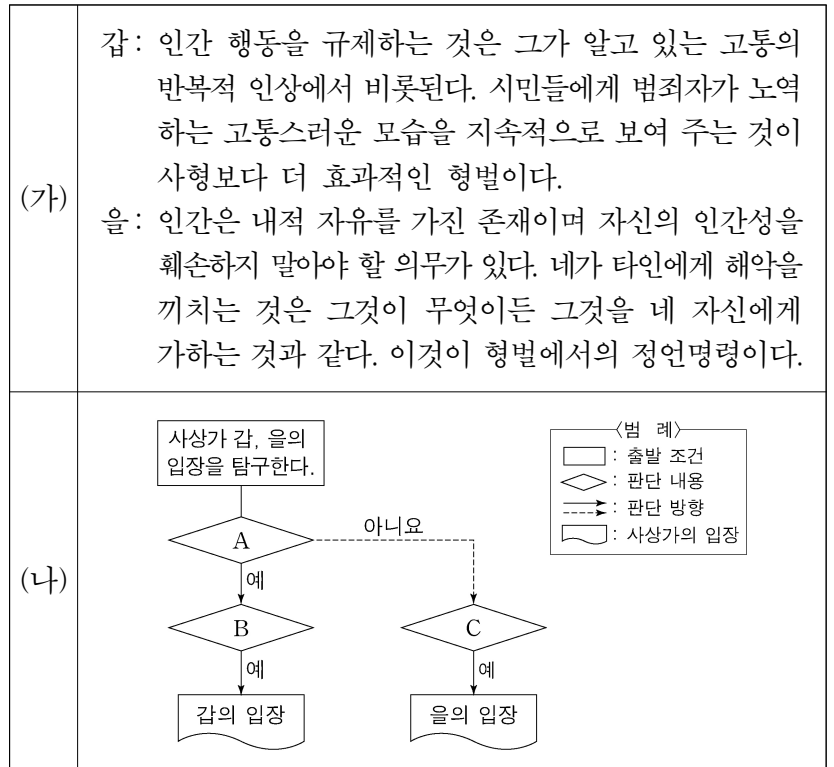
을: 아고라(agora)는 고대 아테네의 광장으로, 자유민들은 이곳에서 민회에 참여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이 아고라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현실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고 있다.

—<보 기>—

- ㄱ.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사생활권과 익명성이 보장된다.
- ㄴ. 갑: 정보 통신 기술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한다.
- ㄷ. 을: 사이버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ㄹ. 갑, 을: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도 증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의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가?
- ㄴ. B: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인가?
- ㄷ. B: 과도한 형벌은 효용 원리와 사회 계약 모두에 위배되는가?
- ㄹ. C: 인도적 동정심에서 사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른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사치품을 구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의 무한정 지속되는 현실에 무관심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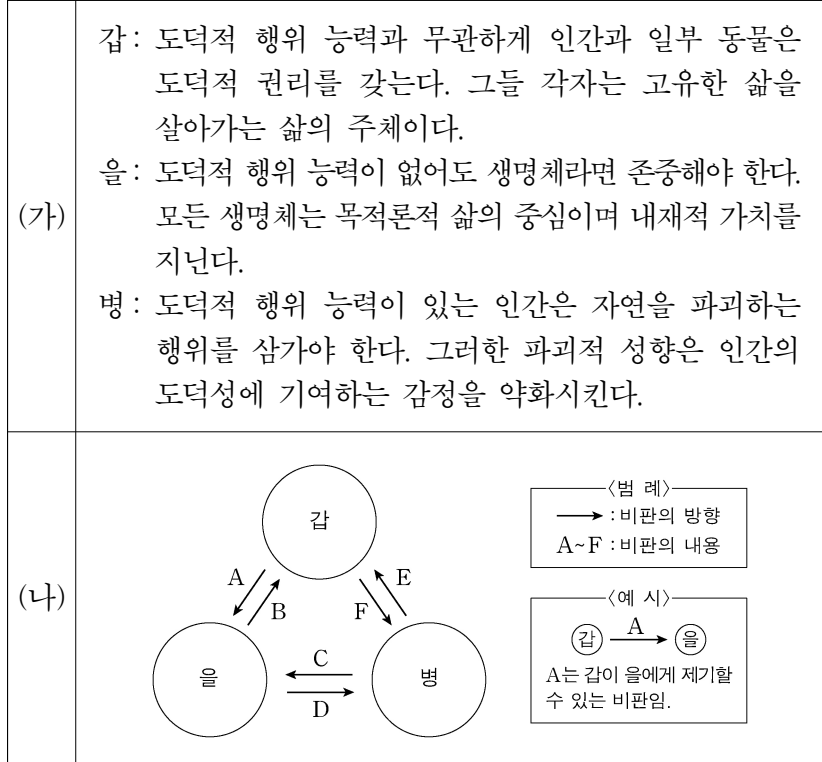
—<보 기>—

- ㄱ. 갑: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다.
- ㄴ. 갑: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동등한 부담을 져야 한다.
- ㄷ. 을: 적정 수준의 제도 확립에 막대한 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ㄹ. 갑, 을: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함을 간과한다.
- ③ D: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님을 간과한다.
- ④ 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 아님을 간과한다.
- ⑤ C, E: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도덕적 지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17. 다음 강연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통일은 분단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 역사의 창조 작업입니다. 통일은 평화와 민족의 공동 번영,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신장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은 성취해야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되지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급진적 방식의 통일은 사회적 갈등과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평화적 방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급진적 방식의 통일보다 통일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통일 편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 예술 등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분야로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① 점진적 평화 통일이 급진적 통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 ② 통일을 위해 비정치적 협력보다 정치적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 ③ 인도적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
- ④ 통일은 이유와 방식을 불문하고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업이다.
- ⑤ 통일은 민족의 번영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해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은 체제의 불가피한 결함을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 물론 사회의 부정의가 구성원에게 주는 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

- ① 공유된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공공적일 필요는 없다.
- ② 법이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라진다.
- ③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 행위는 체제의 안정을 해친다.
- ④ 정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하에서는 부정의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 ⑤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인간의 의도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을 경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다.

을: 현대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된다.

- ① 갑: 관찰과 실험으로부터 유용한 지식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 ② 갑: 과학의 목적은 삶의 개선이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이다.
- ③ 을: 현대 기술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④ 을: 현대 기술은 인간의 자율적 의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 ⑤ 갑, 을: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20. 다음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게

오늘은 너에게 참된 우정에 대해 말해 주고 싶구나. 너도 잘 알겠지만, 인생길에는 뜻을 같이하고 고향을 함께하는 친구가 꼭 필요하단다. 누구나 친구를 사귀지만, 모두가 참된 우정을 나누는 것은 아니란다. 우정은 사람됨에 따라 격이 달라지는데, 옛 사람들은 이를 '군자(君子)의 우정'과 '소인(小人)의 우정'으로 구분했단다. 소인이란 이익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이익이 될 때 잠시 서로 벗이 되는데, 이는 사실 속임수일 뿐이라서 이로움을 보면 앞을 다투고, 이로움이 사라지면 소원해지며, 심지어 서로 해치기도 한단다. 군자란 도의(道義)를 지키며 명예와 절개를 아끼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사귀면서 도(道)가 같아져 서로 도움이 되고, 마음이 같아져 함께 돌봐 주어 오래도록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단다.

- ① 참된 우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 수양이 필요하다.
- ② 소인의 우정은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 ③ 가까워질수록 서로 뜻을 존중하고 권면을 삼가야 한다.
- ④ 군자의 우정은 올바른 신념을 공유하여 호혜 관계를 형성한다.
- ⑤ 이익에 기초한 우정은 잠시지만 도의에 기초한 우정은 지속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④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⑤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2.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갑: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을: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5.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 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운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보 기>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을: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자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펴야 한다.

\* 책객: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① 갑: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 ③ 을: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 ④ 을: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진다. 이 제도의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을: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자연적 자산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① 갑: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② 갑: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을: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④ 을: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⑤ 갑, 을: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쏙아 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9.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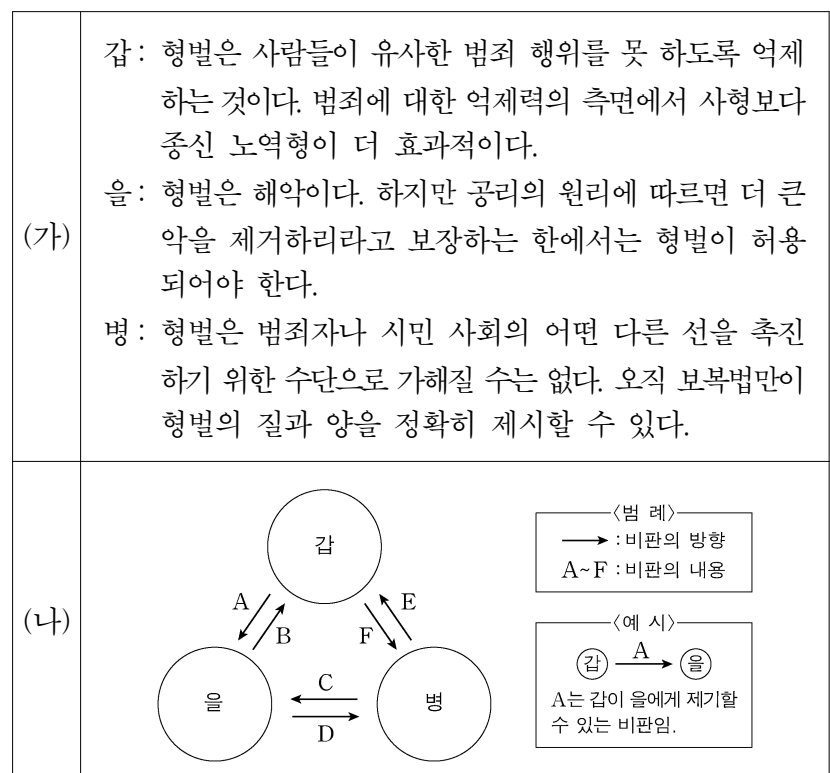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의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추기 때까지 유효합니다.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적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 ① 갑: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한다.
- ③ 을: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D: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 ④ F: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⑤ C, E: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을: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갑: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 ③ 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④ 을: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1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 ① (가):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② (가):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 ③ (나):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 ④ (나):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 ⑤ (가), (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14.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일탈 행위로서 해당 개인과 집단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
- ③ 표현의 자유보다 해악 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p> <p>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p> <p>병: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p> |
| (나) | <p>〈범례〉</p> <p>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

〈보 기〉

ㄱ. A: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ㄴ. B: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ㄷ. C: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  
ㄹ. D: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을: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 ① 갑: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 ② 갑: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 ③ 을: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 ④ 을: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18.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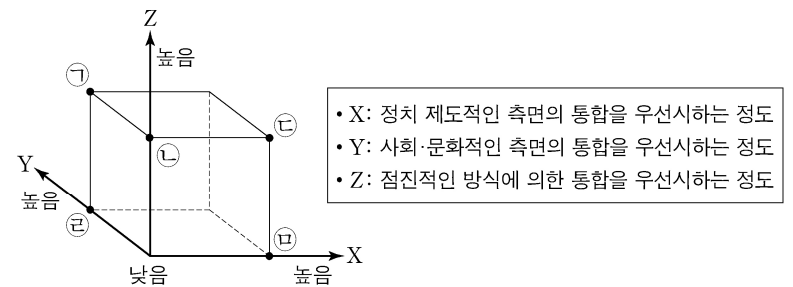
(나)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① (가):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가):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③ (나):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④ (나):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⑤ (가), (나):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19.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을: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보 기>

- ㄱ. 갑: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 ㄴ. 갑: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 ㄷ. 을: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ㄹ. 갑, 을: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제 [    ] 선택 |
|----|--|-------|--|--|--|--|--|--|--|-------------|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도덕적 신념과 관습은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 ② (가):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나): 도덕 규칙이나 평가의 표준이 되는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④ (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⑤ (가), (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2.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윤리적 성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 그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이켜 자기 본성을 비춰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①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參禪)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좌망(坐忘)해야 한다.
- ③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居敬)해야 한다.
- ④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慎獨)해야 한다.
- ⑤ 도(道)에 따라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기 위해 심재(心齋)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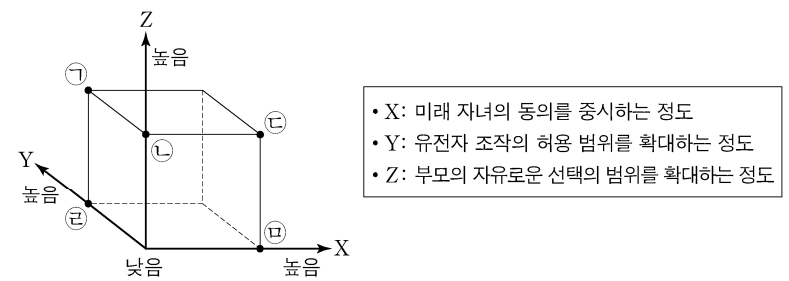
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의 삶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 내는 공동체 속에 편입되어 있다. 나는 다양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도덕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실천 이성에 의해 정립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가 ㉠ 고 생각한다.

- ①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임을 강조했다
- ② 인간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③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임을 간과했다
- ④ 도덕 법칙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음을 간과했다
- ⑤ 도덕이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을 간과했다

4.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미래 자녀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 자녀가 동의하지 않은 자질 강화를 통해 부모가 선택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나)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뿐만 아니라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도 허용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출산에 있어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미래 자녀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더라도 부모의 선택은 자녀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혼례는 서로 다른 두 성(姓)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위로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 후세를 이어 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며 정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친밀한 사랑이 생긴다. 이것이 예(禮)의 본질이다. 남녀의 구별(別)이 있으니 부부의 도리가 세워지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며,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다.

<보 기>

- ㄱ.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  
 ㄴ.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한다.  
 ㄷ. 부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ㄹ.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美)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을: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 준다. 예술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 ① 갑: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 ② 갑: 미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일체의 이해관심 없이 내려진다.
- ③ 을: 예술 작품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 ④ 을: 미적 가치는 무질서한 리듬과 운율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 ⑤ 갑, 을: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도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개인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 자연적 의무를 지니므로 정의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부정의한 법을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시민 불복종 이론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정당한 시민 불복종을 규정하는 조건들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②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행위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부정의에도 저항할 것을 합의한다.

8.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 ①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 ②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③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④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9.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 칼럼

최근 들어 개인적 취향만이 아니라 여행자의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공정 여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 만족과 여행 비용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기존 여행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행지에 도움을 주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을 지향한다. 공정 여행을 통해 여행자들은 현지 주민이 제공하는 숙소와 음식을 접하고 특산물, 기념품 등을 구입하며, 현지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나아가 여행지의 동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 여행을 자제하는 결정까지 내린다. 이처럼 공정 여행은 ㉠

- ①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는 여행이다.
- ② 여행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여행이다.
- ③ 사회적 책임보다 비용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여행이다.
- ④ 개인적 선호만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도 중시하는 여행이다.
- ⑤ 여행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도 배려하는 여행이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p> <p>을: 일부 포유동물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p> <p>병: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을만의 입장</p> <p>C: 병만의 입장</p> <p>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

### <보 기>

- ㄱ. A: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 ㄴ. B: 사유 능력 여부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 ㄷ. C: 살아 있는 모든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인 공동체의 일원이다.
- ㄹ. D: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 한정된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각기 다른 재료들이 섞여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여 각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수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다양한 고명들이 첨가됨으로써 맛이 풍부해 지듯이,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문화를 허용함으로써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갑



을

<보 기>

- ㄱ. 갑: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ㄴ. 을: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ㄷ. 갑, 을: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간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ㄹ. 갑, 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군자는 근본을 추구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잘 못해도 큰 일은 맡을 수 있으며, 소인은 생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큰 일을 잘 못해도 작은 일은 맡을 수 있다. 임금·신하·부모·자식이 각자 맡은 바 직분[名]을 올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  
 을: 성왕(聖王)은 예(禮)를 제정하여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람의 덕(德)을 논하여 각자의 위치를 정하고 그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부여하였다. 그런 연후에 사람들이 예에 따라 각자 직무를 수행하여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

- ① 갑: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 외에도 모든 분야에 능통해야 한다.  
 ② 갑: 자기 본분을 올바르게 행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③ 을: 사람들의 사회적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④ 을: 올바른 직분 수행을 위해 예법에 따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⑤ 갑, 을: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13.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을: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양도할 수 없다. 사형은 결코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시민 한 사람과 벌이는 전쟁이다.  
 병: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 ① 갑: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② 을: 사형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가장 큰 공포감을 주는 형벌이다.  
 ③ 병: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정당한 형벌이다.  
 ④ 갑, 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⑤ 을, 병: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14.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최대 행복의 원리는 모든 윤리적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례>

A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직장 동료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그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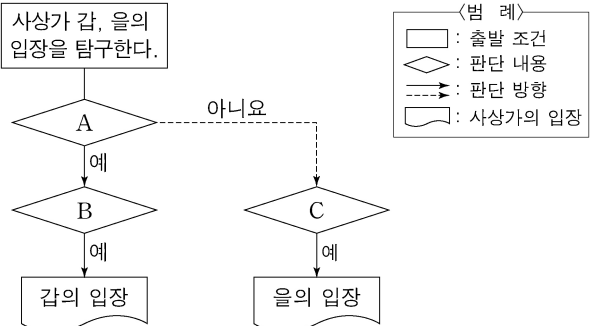
- ①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② 가상 공간에서도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심하세요.  
 ③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를 고려하세요.  
 ④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⑤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심하세요.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돕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사회가 스스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을: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익의 평등성을 고려하여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나)



<보 기>

- ㄱ. A: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은 원조의 근거인가?  
 ㄴ. B: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가?  
 ㄷ. B: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에 자유를 확립하는 것인가?  
 ㄹ. C: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가) 요즘 사람들은 조문할 때, 자기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해 한다. 그러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도(道)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은 본성을 망각한 것이다.
- (나) 세상 사람들의 생사(生死)는 중대한 일인데, 그대들은 하루 종일 공양(供養)하면서 다음 생의 복(福)만을 구하려 하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신의 본성 [自性]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 ① (가): 죽음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輪廻)의 과정이다.  
 ② (가):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이다.  
 ③ (나): 죽음은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④ (나): 죽음은 깨달음을 통해 벗어나야 할 고통들 중 하나이다.  
 ⑤ (가), (나): 죽음은 괴로운 인간 삶에서 벗어난 지극한 경지이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적·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타자를 단지 도구화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합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 ① 행위 규범으로서의 올바름은 비판과 논증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  
 ② 이상적 담화에서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④ 타당한 규범은 대화에 참여한 다수에 의해 동의를 얻은 규범이다.  
 ⑤ 상호 인정의 자세는 타자를 나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위해 요구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그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은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 을: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는, 소유물 취득의 원리, 소유물 이전의 원리, 이 두 원리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리이다.

—<보 기>—

- ㄱ. 갑: 사유 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ㄴ. 을: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한다.  
 ㄷ. 을: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ㄹ. 갑, 을: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을: 동의합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고, 이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갑: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스스로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 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 을: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적극적 개입은 한반도에 긴장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와 내정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북한도 요구할 것입니다.

- ① 인간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지니는가?  
 ②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③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④ 북한의 인권 문제는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⑤ 북한 스스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공화 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 을: 물리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규정되던 기존의 폭력 개념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는 소극적 평화 상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보 기>—

- ㄱ. 갑: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ㄴ. 갑: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ㄷ. 을: 폭력의 예방 없이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ㄹ. 갑, 을: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제 [    ] 선택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 원리를 탐구하기 보다는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고 추론의 규칙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문화적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 탐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② 도덕 문제 해결보다 도덕 논증의 타당성 분석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③ 도덕 현상은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할 사실의 집합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④ 도덕 문제 해결에는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이론의 연구만으로는 삶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도덕적 판단에서 성(性)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가 존재한다.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을: 도덕적 판단에서 성행위를 여타 행위와 구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율성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이외에 성행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추가적 원칙은 없다.

- ① 갑: 서로의 인격이 존중된 성행위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갑: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행위 정당화의 충분조건이다.
- ③ 을: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제약은 없다.
- ④ 을: 쾌락적 가치보다는 생식적 가치가 성의 목적에 부합한다.
- ⑤ 갑, 을: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의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 ① 담론 참여자는 논의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야 한다.
- ②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나 욕구를 발언해서는 안 된다.
- ③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 ④ 담론 참여자는 정당한 담론의 결과와 그 부작용까지 수용해야 한다.
- ⑤ 담론 참여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수단으로만 담론을 활용해야 한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어떤 사회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통치된다면, 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을: 원조는 극단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종과 국적의 구분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보 기>

- ㄱ. 갑: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ㄴ. 갑: 원조하는 나라는 원조받는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 ㄷ. 을: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대한 고려 없이 원조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다른 나라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원조의 의무를 정당화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예술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아름다운 리듬과 화음은 영혼에 들어가 우아함을 심어 주고, 미추(美醜) 감각을 키워 준다. 품위 없는 리듬과 화음은 나쁜 말씨나 고약한 성질과 연결되니, 작품 속에 선(善)의 원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해야 한다.  
을: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예술가의 창작 행위를 떠나서는 아름다움의 원형이 존재할 수 없고, ㉡ 예술가는 미적 가치를 통해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을은 ㉢ 예술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 예술은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예술은 미적 가치를 다루는 활동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전적 결함이 있는 환자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혜택으로 자신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 이 기술의 활용은 개인의 유전자 선호에 달려 있다. 인류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

을: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는 생명체를 지적(知的)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전자의 좋고 나쁨을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정은 좋은 것이 있음을 전제하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유전자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① 유전자 교정 기술은 인간의 정체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가?
- ② 유전자 교정 기술에 의해 생명체의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가?
- ③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개인의 유전자 선택을 금지해야 하는가?
- ④ 유전자 교정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 ⑤ 유전자 교정 기술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7.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앞서 '나는 어떤 이야기 또는 이야기들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나의 삶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고, 나의 도덕적 정체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속에서 발견된다.

을: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공리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원리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계산하여, 구성원들의 이익 총합으로서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 ①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의 유용성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공동체가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로 간주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개인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도덕 판단에서 역사적 특수성보다 행위 결과를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8.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부는 백성을 낳는 시작이며 모든 행복의 근원이다. 남편은 바깥채에 거처하며 안채의 일을 말하지 않고, 아내는 안채에 거처하며 바깥채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임하여 하늘의 건실한 도리를 실천하고, 아내는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바로잡아 땅의 순응하는 도리를 실천한다면, 집안이 바르게 될 것이다. 부부가 서로 공경하여 집안이 화목하고 순조로워야 부모께서 편안하고 즐거우실 것이다.

- ① 화목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한 방법이다.
- ② 부부는 서로 의존하면서 보완하는 관계이다.
- ③ 부부는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④ 부부의 의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 ⑤ 부부의 관계는 옳고 그름이나 예절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본분이 있다.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신하는 신하의 본분을,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자식은 자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정명(正名)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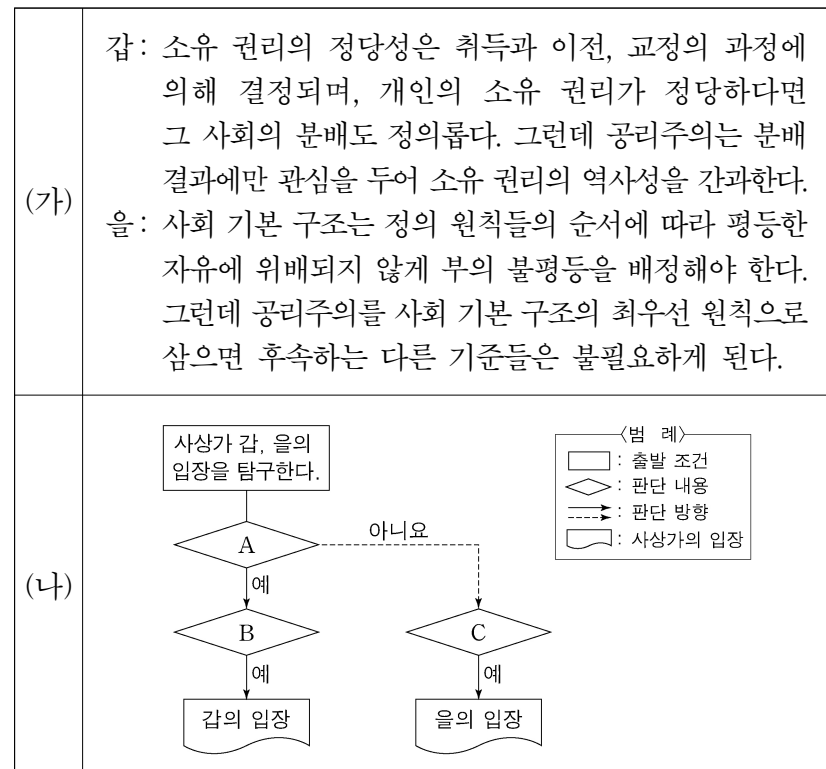
을: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보 기>

- ㄱ.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된다.
- ㄴ.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
- ㄷ. 각자는 역할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실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할 권리가 허용될 수 있는가?
- ㄴ. B: 분배받는 사람의 도덕적 공과(功過)를 기준으로 삼는 분배는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가?
- ㄷ. C: 공리의 원리는 구성원 일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을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는가?
- ㄹ. C: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학은 희망보다는 두려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행해야 할 것과 관련된 책임 개념에 따르면, 현재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사태의 의존자인 미래 세대는 명령자가 되고, 권력자인 현재대는 의무자가 된다.

<보 기>

- ㄱ. 선의 탐구에서 악의 인식보다 선의 인식이 더 효과적이다.
- ㄴ. ‘할 수 있다’는 능력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책임이 발생한다.
- ㄷ. 인간의 힘이 자연으로 확장될수록 자연 파괴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 ㄹ. 현재세대와 미래 세대는 삶의 지속을 위해 상호 간에 의무를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갑: 특정한 법에 불복종하기 전에 효용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불복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 을: 특정한 법이 다수의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반하면 이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법은 굴종이나 반항을 초래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성패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② 갑: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  
 ④ 을: 다수가 믿는 종교적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⑤ 갑,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지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

1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북한 주민은 통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동포입니다. 이념을 떠나 고통 받는 사람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을: 고통 받는 이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지만, 북한 사회의 특성상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갑: 북한 사회의 투명성이 낮아 그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증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을: 물론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물품이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선행된 이후에 행해져야 합니다.

- ① 북한 사회는 투명성이 낮은가?  
 ② 고통 받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하는가?  
 ③ 북한 사회의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④ 대북 지원은 조건부로 행해져야 하는가?  
 ⑤ 대북 지원은 남북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가?

14.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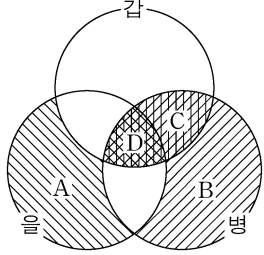
- (가)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므로 국가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국제 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 (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듯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동맹이나 비밀 외교 등으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한다.

<보 기>

- ㄱ. (가):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  
 ㄴ. (가): 국제 관계에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이다.  
 ㄷ. (나): 국제 정치의 불완전한 제도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ㄹ. (가), (나): 국제 분쟁은 각국의 도덕성 증진으로 해결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쾌고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만약 한 존재가 쾌고를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p> <p>을: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p> <p>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의 본능은 공동체 내에서 경쟁할 것을 추구하지만 그의 윤리는 협동도 하라고 추구한다.</p> |
| (나) |  <p>&lt;범례&gt;<br/>                 A: 을만의 입장<br/>                 B: 병만의 입장<br/>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br/>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

<보 기>

- ㄱ. A: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니다.  
 ㄴ. B: 인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연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  
 ㄷ. C: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ㄹ. D: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가)~(다)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가)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뜻있는 선비는 살아남고자 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다.  
 (나)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착한 일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하지도 말고, 악한 짓을 행하여 형벌을 가까이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 전생(前生)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① (가): 죽음은 슬픈 일이지만 의로운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② (나): 인의(仁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③ (다):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④ (가), (나):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⑤ (나), (다):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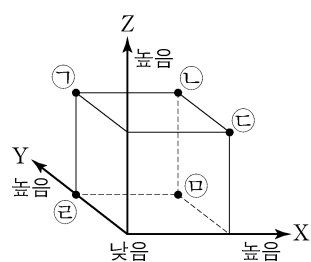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관례적인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체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할 정도의 웅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낼 것입니다.



- ①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계층이 존재하는가?  
 ②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인간의 허영심을 제한하는가?  
 ③ 자분을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가?  
 ④ 과시 소비는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가?  
 ⑤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자기 보존 본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인가?

18.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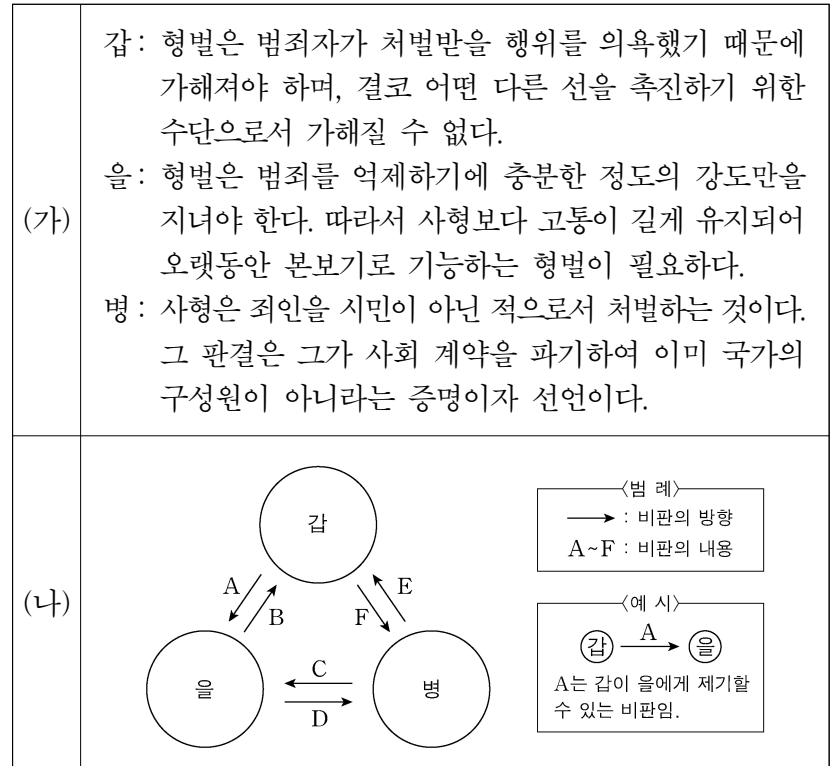
- (가) 국가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주민은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 국가는 이주민의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각기 다른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이 유지되면서 이주민의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 X: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 보존을 강조하는 정도
- Y: 문화 간 대등한 방식의 공존을 강조하는 정도
- Z: 단일한 문화 중심의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同害) 보복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함을 간파한다.  
 ② B, D: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음을 간파한다.  
 ③ C: 사회 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간파한다.  
 ④ E: 사형은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어야 함을 간파한다.  
 ⑤ F: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함을 간파한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충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물이나 명성과 명예는 최대한 많아지도록 마음을 쓰면서도 지혜와 진리, 자신의 영혼이 최대한 훌륭해지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 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피고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악마 같다고 비난했으나,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자신이 비난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 ① 영혼의 훌륭함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추구해야 한다.  
 ② 자신의 행동에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③ 옳음보다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  
 ④ 직위와 결부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자신이 속한 국가가 정한 규범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② 가치 판단을 위해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 ③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 ④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⑤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무사 공평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을: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그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국가는 모든 좋음들 중에서 최고의 좋음을 목표로 한다.

- ① 갑: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② 갑: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 ③ 을: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 ④ 을: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⑤ 갑, 을: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화자의 의사소통의 의도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화자가 자신과 청자 사이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상호 관계가 성립하도록 규범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화자가 자신의 지식을 청자가 받아들이며 공유하도록 참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셋째, 화자가 자신이 말한 것을 청자가 믿도록 생각, 의도, 감정, 소망 등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를 지향해야 한다.
- 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도 담론에 부칠 수 있다.
- ㄷ. 발화(發話)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된다.
- ㄹ. 규범의 타당성은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확보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사 례>

상인 A는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여 많은 단골손님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직한 행동이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이익을 위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덕적인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 ① 꾸준한 도덕적 실천으로 얻어진 덕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② 당신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손님들을 정직하게 대하세요.
- ③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 ④ 당신의 정직한 행위가 도덕적 의무에 맞기만 하면 됩니다.
- ⑤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세요.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 (가) 자신의 성(性)적 이미지를 제품과 연결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권리 행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
- (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성을 도구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나)는 ㉢ 성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성 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 (나)는 모두 ㉤ 자신의 성적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대도(大道)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어진[賢]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재물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이 없다.  
을: 나라는 작아야 하고 백성은 적어야 한다.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중히 여겨 멀리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는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꺼내서 늘어놓는 일이 없다.

—<보 기>—

ㄱ. 갑: 인(仁)의 출발점인 무차별적 사랑[兼愛]을 행해야 한다.  
ㄴ. 갑: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ㄷ. 을: 인위적인 통치가 없는 소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ㄹ. 갑, 을: 예법을 통해 본래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정의의 일차적 주체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 ① 갑: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② 갑: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③ 을: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을: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백성은 윗사람을 섬기는 자이고, 수령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다. 수령 노릇을 잘하려면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한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므로 백성을 위해 크게 탐하는[大貪] 자는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수령이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쓰는 방법을 몰라 실효(實效)가 없으면 안 된다. 수령이 경비를 남용하면 재정이 부족해져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게 된다.

- ① 수령은 공무 수행 시 재정 지출의 효과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② 수령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 아니라 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③ 수령은 백성과 자신이 직분상 동등한 관계임을 자각해야 한다.  
④ 수령은 검소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⑤ 수령은 공무 수행에서 인(仁)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억제해야 한다.

9.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문화 산업은 확실적인 상품만을 생산할 뿐이다. 문화 산업의 기술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 산업은 어떠한 문화 상품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이로 인해 문화 상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
| (나) | 문화 산업은 '스타'를 제조한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스타를 철저한 전략에 따라 기획한 뒤 최대한 많은 매체에 출연시켜 돈을 번다. 그리고 대중이 싫증을 느끼면 유사한 새로운 스타를 내놓는다. 수많은 반짝 스타들이 소모품처럼 사라진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            |

- ① 문화 산업이 대중문화를 규격화된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② 문화 상품이 작품 창작자의 독창적 견해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이다.  
③ 문화 산업이 이윤보다는 지속적 창작 활동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④ 문화 산업의 생산자가 소비자의 고유한 체험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⑤ 문화 상품이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갑: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br>을: 인간만이 아니라 일부 동물도 삶의 주체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른 존재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개별적 복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br>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활동으로만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실제로는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 |
| (나) | <br><범례><br>A: 갑만의 입장<br>B: 을만의 입장<br>C: 병만의 입장<br>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

—<보 기>—

- ㄱ. A: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부여되지 않는다.  
ㄴ. B: 인간은 동물 종(種)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  
ㄷ. C: 인간은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ㄹ. D: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권리를 지닌 존재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신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령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동물 실험은 불가피하다. 다만, 고통은 악(惡)이므로 연구자는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나) 질병은 극복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이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질병의 종류와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인간처럼 채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보 기>

- ㄱ. (가): 동물 실험은 그 목적이 선행돼 허용될 수 없다.  
 ㄴ. (가): 인간의 복지가 동물들의 이익 관심보다 우선한다.  
 ㄷ. (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동물과 공유한다.  
 ㄹ. (가), (나):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하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이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을: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사회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국제 사회에 적용될 이유는 없다.

병: 자국민을 돕는 것이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

graph TD
    Start[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Ja[갑의 입장]
    A -. 아니요 .-> B{B}
    B -- 예 --> C{C}
    B -. 아니요 .-> D{D}
    C -- 예 --> Jb[을의 입장]
    D -- 예 --> Jc[병의 입장]
    
```

〈법 레〉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 : 판단 방향
- ⌋ : 사상가의 입장

-<보 기>

- ㄱ. A :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ㄴ. B :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하려는 것인가?  
 ㄷ. C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하는가?  
 ㄹ. D : 원조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①  $\neg, \perp$                       ②  $\perp, \sqsubset$                       ③  $\sqsubset, \sqsupset$   
④  $\neg, \perp, \sqsupset$                       ⑤  $\neg, \sqsubset, \sqsupset$

13.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를 조사하고 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어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서 검색되거나, 기업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언론 역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정당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 정보의 활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③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하여 공익을 증진해야 한다.
- ④ 모든 정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⑤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14.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심폐사는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판정 기준으로, 죽음의 시점을 확실하게 적시할 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 뇌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결국 수일 내에 심폐사에 이르게 된다. 뇌사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억지로 지속하는 것은 뇌사자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 자원을 소모하면서 장기를 기증할 기회도 잃게 하므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 ①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② 뇌사가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라는 것을 간과한다.
- ③ 뇌사 인정은 뇌사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④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⑤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15. 그림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은 공허한 힘일 뿐입니다.

기술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지는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갑



-〈보기〉

- ㄱ. 갑: 기술의 활용 결과는 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ㄴ. 을: 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ㄷ. 을: 기술에 대해 무관심할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ㄹ. 갑, 을: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perp, \sqsupset$     ⑤  $\sqsubset, \sqsupset$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에 근거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면 성립할 수 없다.
- ③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④ 시민 불복종은 비민주적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감은 개인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권력 획득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유, 안전 보장, 번영 등으로 다양해도, 그들이 국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력을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을: 이성은 도덕적으로 법칙을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 ① 갑: 권력 투쟁 현상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 ② 갑: 국제적인 도덕적 합의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③ 을: 영구 평화를 위해 정치 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는 없다.
- ④ 을: 영구 평화는 공고한 평화 조약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세계 공화국을 수립하여 영구적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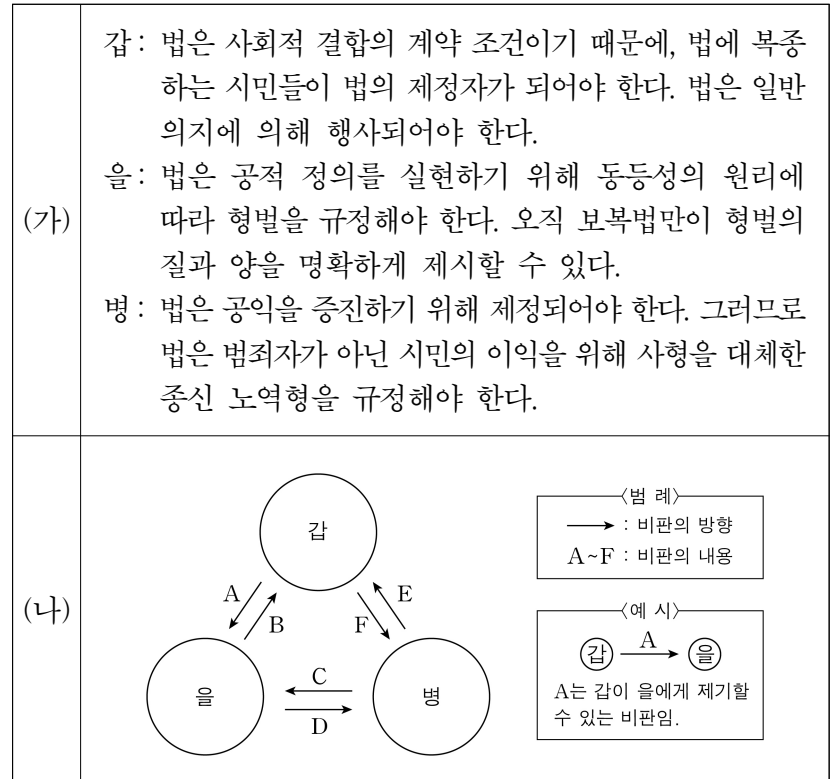
- 집의 담장은 체험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며 두 영역은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 인간은 안정의 영역인 집에 거주함으로써만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 거주는 공동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진정한 집에는 가족이 필요하다. 집과 가족은 인간의 안전과 편안함을 조성하는 과제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 있다.

—<보 기>—

- ㄱ. 인간은 거주 공간에서 유대감을 형성한다.
- ㄴ. 집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 ㄷ. 집은 외부 세계와 구분될 수 없는 열린 공간이다.
- ㄹ. 인간은 거주함으로써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F: 범죄와 형벌 간에 비례 관계가 성립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③ C: 사형은 범죄 억제력이 전혀 없는 잔혹한 형벌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④ D: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사형제 존폐를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종교는 윤리를 수용하지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한 영원한 삶을 본질로 합니다.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을: 물론 종교는 절대자의 힘을 빌려 영원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종교이기에 윤리적 삶을 강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윤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갑: 아닙니다. 윤리는 인간 이성에 토대를 두는데, 이성은 절대자와 달리 한계를 갖습니다. 또한 윤리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점에서도 종교적 진리가 윤리를 넘어섭니다.

을: 문화에 따라 윤리가 다르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윤리의 토대가 되는 이성 역시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윤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 ① 윤리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가?
- ② 윤리는 이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 ③ 종교는 윤리적 가르침을 지닐 수 있는가?
- ④ 종교는 절대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가?
- ⑤ 윤리와 상충하는 종교적 진리는 허용될 수 있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제 [    ] 선택 |
|----|--|-------|--|--|--|--|--|--|--|--|--|--|--|--|--|--|-------------|

1.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의 목적은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 ② (가)는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를 필요로 한다.
- ③ (나)는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 ④ (다)는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 ⑤ (다)는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나)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이를 연기(緣起)라 한다.  
(나)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고 분별적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가 된다.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진다.

<보 기>

ㄱ. (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ㄴ. (가):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ㄷ. (나):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도(道)에 따라야 한다.  
ㄹ. (가), (나): 인의(仁義)를 통해 도덕적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그 행위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을: 모든 쾌락을 합산하고 모든 고통을 합산하여 이 둘을 비교하였을 때, 쾌락의 양이 더 크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이것이 행위의 옳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① 갑: 좋은 결과를 산출한 행위도 옳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
- ② 갑: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 ③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결과의 유용성이다.
- ④ 을: 정신적 쾌락은 감각적 쾌락과 달리 양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보편적 원칙은 존재한다.

4.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을: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에 대해서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더 나은 지식이 만들어지면 과학 기술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이다.

- ①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인간의 책임 범위가 자연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 기술의 사용은 제한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 호혜적 책임이 있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과학 기술로 해결 가능함을 간과한다.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유전 공학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유전 공학의 발전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을: 질병 극복은 선(善)이므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 공학 연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강화 연구는 치료를 넘어 자연적 형질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지속되면 안 됩니다.  
갑: 치료가 소극적 선이라면 강화는 적극적 선입니다. 유전자 강화를 통해 우리의 자연적 능력은 확연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을: 유전자 강화 기술이 설령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높은 차원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라도, 이 기술은 인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 ① 유전 공학 연구는 선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②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 공학은 발전해야 하는가?
- ③ 유전자 강화 기술의 궁극적 목적은 질병의 치료인가?
- ④ 유전자 강화 기술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변화시키는가?
- ⑤ 유전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 공학 연구는 중단되어야 하는가?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백성은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지닐 수 있다.  
성인(聖人)이 천하를 다스리면 곡식이 물이나 불과 같이 풍족해질 것이다. 만일 곡식이 물이나 불과 같이 풍족해지면 백성에게 어찌 불인(不仁)함이 있겠는가?  
을: 왕공(王公)과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禮義)를 힘써 행할 수 없다면 서인(庶人)으로 귀속시킨다. 서인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쌓아 몸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힘써 행할 수 있다면 사대부로 귀속시킨다.

- ① 갑: 성인(聖人)은 백성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중시한다.
- ② 갑: 경제적 안정은 백성에게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
- ③ 을: 사회적 역할은 능력보다는 선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을: 예(禮)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적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사회적 분업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에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국가는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여야 한다.
- ㄴ.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계약에 의해 수립된다.
- ㄷ.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공동체이다.
- ㄹ.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을: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도 가난한 사람의 복리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쾌락 증진과 고통 감소를 추구하는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원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보 기>—

- ㄱ. 갑: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을: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ㄷ. 을: 원조는 도덕적 구속력이 배제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다.
- ㄹ. 갑, 을: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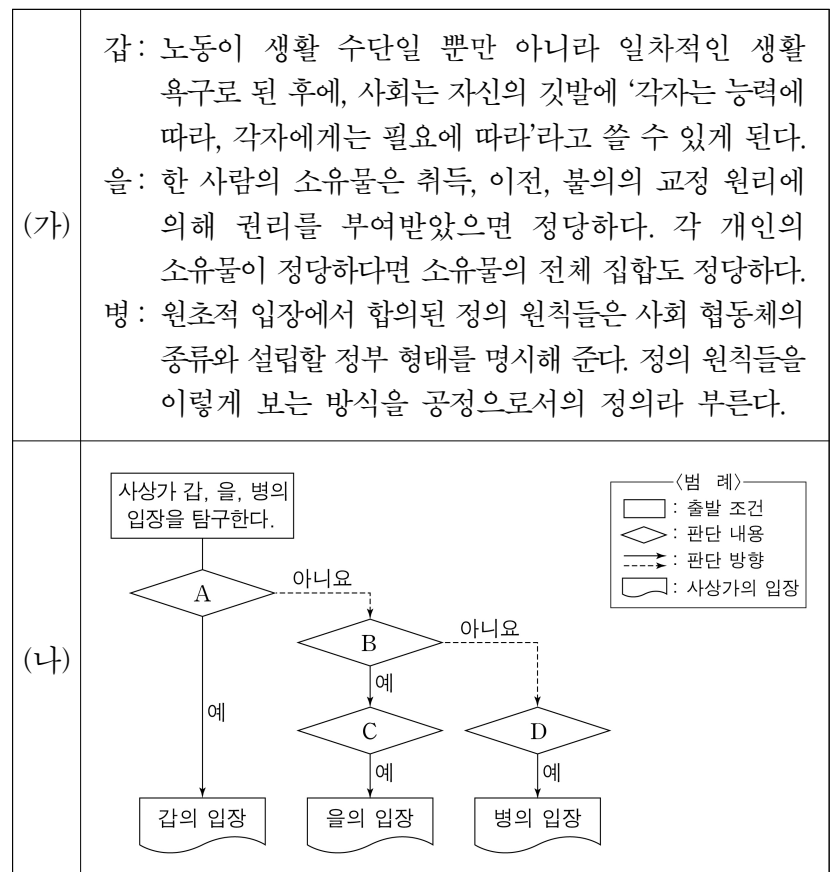
9.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건강과 맛을 위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질이 낮은 음식을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 덜 먹더라도 질 좋은 재료로 만든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맛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유기농 먹거리는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서 얻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산업화된 유기농 식품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식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유기농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은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만, 농부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너무 저렴해도 안 됩니다.



- ① 가난한 사람들도 유기농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가?
- ② 맛의 즐거움과 건강을 위해 음식의 질보다 양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③ 대량 생산으로 음식 재료 가격을 낮추는 게 언제나 바람직한가?
- ④ 유기농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배제해야 하는가?
- ⑤ 가까운 지역의 유기농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소비인가?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가장 바람직한 분배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가?
- ㄴ. B: 자기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만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가?
- ㄷ. C: 최소 국가는 정의 실현을 위해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가?
- ㄹ. D: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려 한다.  
을: 혼돈 속에 뒤섞여 있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 기(氣)가 드러나고, 그 기가 변화하여 형체를 이루며, 다시 이 형체가 변화해서 생명이 생긴다. 생명은 다시 한 번 변화해서 죽음으로 돌아간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모두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 ③ 을: 자연스러운 과정인 죽음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
- ④ 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인(仁)을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왕(聖王)은 사람의 본성이 악하여 사회가 어지러울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예의(禮義)와 법도를 만들어 사람의 성정(性情)을 교화하였다. 악(樂)이란 성인이 즐겼던 바이고, 악(樂)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선도할 수 있다.  
을: 사람은 시(詩)에서 감흥이 일어나고, 예(禮)에서 바로 서고, 악(樂)에서 완성된다. 도에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仁)에 의지하고, 예(藝)에서 노닐어야 한다.

- ① 갑: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 ② 갑: 음악은 사람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③ 을: 음악은 재물을 낭비하게 하여 백성에게 해가 된다.
- ④ 을: 음악은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 ⑤ 갑, 을: 음악은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모든 입법은 근원적 계약의 이념에서 나오는 공화 정체에 기초해야만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들은 국제법의 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맹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호란 외국인이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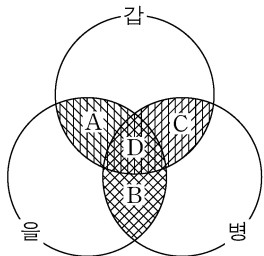
- ①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국제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 ③ 평화 조약을 통해 모든 전쟁들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다.
- ④ 국가 간 분쟁의 해소가 영원한 평화 실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 ⑤ 정치 체제의 개선이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14.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독일의 통일 사례는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은 통일 전 많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 주민들과 구 서독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서 통일 이후에 사회를 통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

- ① 교류와 협력보다는 체제의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 ②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흡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 ③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④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 ⑤ 이념적 통합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
| (가) | <p>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p> <p>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행위는 일종의 중 차별주의적 태도이다.</p> <p>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우리는 대지 윤리를 통해 이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동식물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p> <p>B: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p>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div> |

<보 기>

ㄱ. A: 자연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ㄴ. B: 이성적 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ㄷ. C: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ㄹ. D: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학생 A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군자는 화합하지만[和] 주체를 잃지 않고 남들과 같아지지[同] 않으며, 소인은 주체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같아지며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두루 포용하고[周] 파벌을 이루지[比] 않으며, 소인은 파벌을 이루고 두루 포용하지 않는다.

—<사 례>—

학생 A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의 독특한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학생 A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에 동화되도록 설득해 보세요.
- ② 그 친구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조화롭게 지내세요.
- ③ 친하게 지낼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을 계산하여 행동하세요.
- ④ 다수가 즐기는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세요.
- ⑤ 선악의 분별없이 그 친구의 행동을 모두 포용하도록 하세요.

17.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립니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 시킨다기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합니다.



갑



을

—<보 기>—

- ㄱ. 갑: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ㄴ. 갑: 매우 부정적인 입헌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할 수 없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ㄹ. 갑, 을: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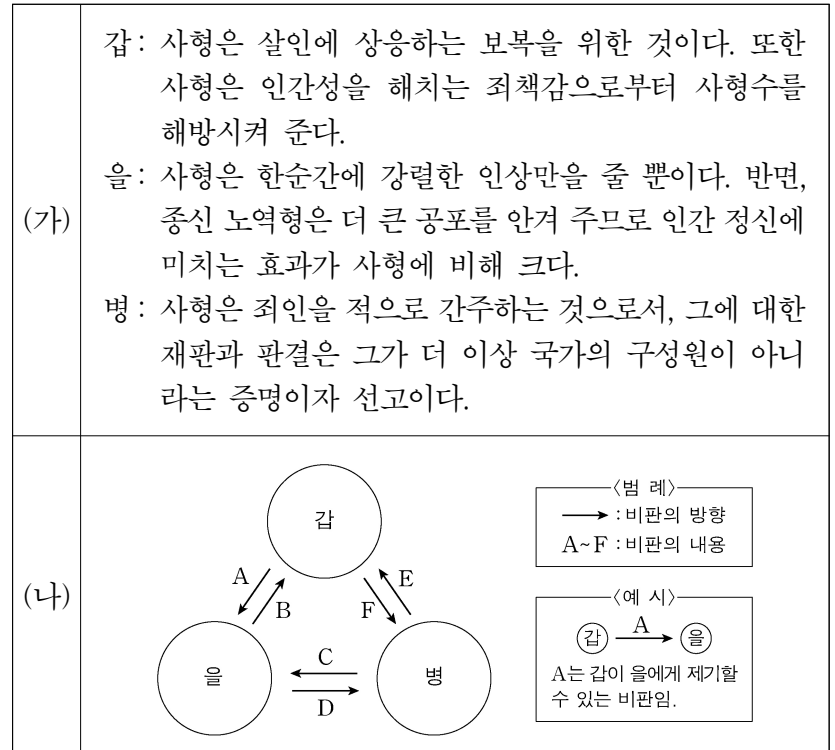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理性)을 통해 명확해진다.

- ①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②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 ③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④ 인격적 만남을 통한 성관계는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정당하다.
- ⑤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C: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움을 간과한다.
- ② B: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③ D: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E: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⑤ F: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년 ○○월 ○○일

### 칼럼

㉠

뉴 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유통되는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유통의 구조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정보에 손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반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다양한 정보가 임의적으로 조합되어 실체가 없는 거짓 정보가 양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났다. 단순히 수용적인 태도로 미디어가 보여 주는 정보에 접근한다면 편견에 사로잡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뉴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시민성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요청되는 이유이다.

- ① 뉴 미디어 시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 ② 뉴 미디어 시대, 빅 데이터 처리 기술이 요청된다.
- ③ 뉴 미디어 시대, 계층 간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
- ④ 뉴 미디어 시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진다.
- ⑤ 뉴 미디어 시대,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    |  |       |  |  |  |  |  |  |  |             |
|----|--|-------|--|--|--|--|--|--|--|-------------|
|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제 [    ] 선택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윤리학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한다
- ②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현실의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과 인과 관계의 설명을 강조한다
- ⑤ 도덕 추론의 논리적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간과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이 정치의 시작이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니 예악이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니 형벌이 제멋대로 된다.  
을: 도(道)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내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간다.

- ① 갑: 인간이 제정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無爲)를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행해야 한다.
- ③ 을: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걸맞는 예법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④ 을: 시비선악(是非善惡)을 구분하여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 ⑤ 갑, 을: 인(仁)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사랑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의 원칙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발적인 협동의 기본 조항으로서 공공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고자 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개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할 수 있다.
- ③ 정의로운 시민에게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
-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 ⑤ 헌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제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권력은 국제 정치에서 최상이라고 인정되는 가치이다. 정치적인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을: 국제 사회의 평화는 국제 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국제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만 관여한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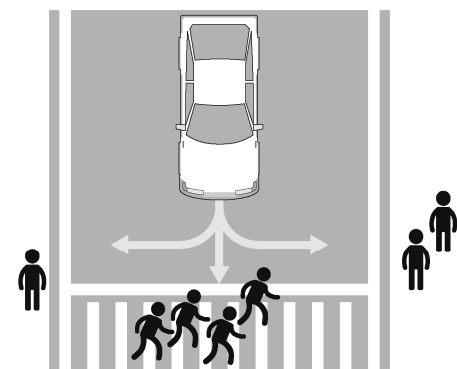
- ㄱ. 갑: 국가 간 힘의 균형으로 국력 경쟁이 종식될 수 있다.
- ㄴ. 을: 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
- ㄷ. 을: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 ㄹ. 갑, 을: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유용성의 원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개별 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옳은 행위란 다른 어떤 가능한 행위보다 더 큰 유용성을 갖는 행위이다.

<문제 상황>



자율 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는 엔지니어 A는 위 그림과 같이 자율 주행 자동차가 고속 주행 중 제동을 시도해도 보행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주행하도록 설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반영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 ② 탑승자와 보행자의 고통의 총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세요.
- ③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행하도록 설계하세요.
- ④ 보행자의 인격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설계하세요.
- ⑤ 사회적 관습에 내재한 선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세요.



## 2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사람의 삶은 기(氣)가 모인 것이라서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네. 따라서 만물은 하나니라. 좋아하면 멋진 것이라 하고 싫어하면 역겨운 것이라 하지만, 역겨운 것이 멋진 것이 되고 멋진 것이 다시 역겨운 것이 되네. 따라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기로 통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일세. 성인(聖人)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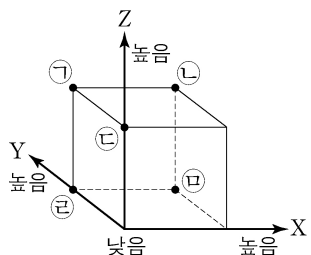
- ㄱ. 삶에 얽매이지도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ㄴ.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행해야 한다.  
 ㄷ.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ㄹ. 죽음은 윤회의 일부이며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결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므로 개인은 감각적인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적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자발적 동의와 자율성이 존중되기만 하면 정당화된다.

(나)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 인격 존중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성행위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에 정당화된다.



- X: 성의 가치를 감각적 쾌락에서 찾는 정도
- Y: 성행위의 전제로서 사랑을 강조하는 정도
- Z: 사회적 관점에서 성행위에 수반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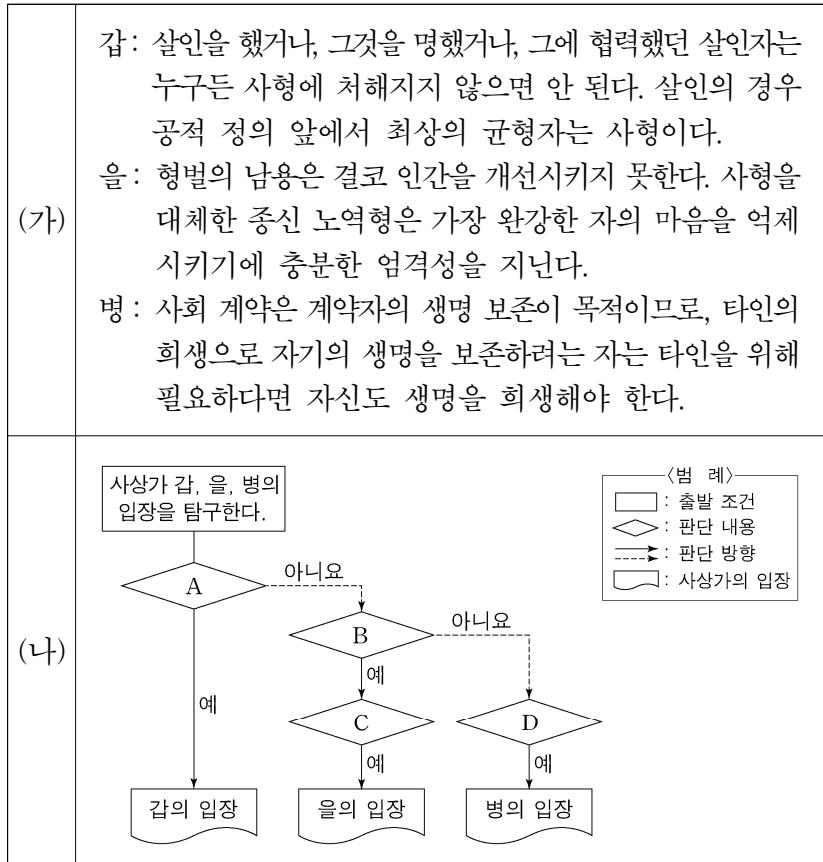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공직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인 의무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목민관이 욕심을 부려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다 보면 민생고가 심해진다.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도 칭송할 만한 것이 못된다. 아울러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 ① 애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절용과 청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②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해야 한다.  
 ③ 남품을 받을 때 생산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사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⑤ 국민에게 미치는 실효성을 따져 국가 재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ㄴ. B: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  
 ㄷ. C: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가?  
 ㄹ. D: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소유 권리를 갖는 것들을 주지 않는 분배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소유 권리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  
 을: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고 직위와 직책의 기회가 공정하다면 재산 및 소득의 분배는 균등할 필요가 없다.

—<보 기>—

- ㄱ. 갑: 도덕적 공과(功過)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다.  
 ㄴ. 을: 차등 원칙은 모든 성원을 고려한 상호 이익의 원칙이다.  
 ㄷ. 을: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ㄹ. 갑, 을: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배아에 대한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배아의 사물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유전적 간섭으로 프로그램 되어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유일한 저자이자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인간 몸의 자연 발생성은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지만 우생학적 접근은 바로 그런 조건을 뒤흔들고 말 것이다. 다만, 유전적 간섭은 치료라는 규제 이념에 인도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 기>

- ㄱ. 유전적 간섭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ㄴ.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인간의 미래를 위해 권장되어야 한다.  
 ㄷ. 인간의 유전적 자연성은 평등한 도덕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이다.  
 ㄹ. 부모는 적극적인 유전적 간섭으로 자녀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은 기술 문명의 힘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다. 이성과 결탁한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동반한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간 상호 간에는 자명한 일이었다. 인간의 책임이 종전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물계의 상태와 인간 종족의 미래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권력의 확장과 연관되어 있다.

- ①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비례하는가?  
 ② 과학 기술의 비의도적 결과는 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③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책임을 도출해야 하는가?  
 ④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 외에도 현세대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있는가?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되는가?

13.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터넷을 활용한 뉴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유통과 생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허위 정보 내지 유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숨겨도 IP 추적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활동해야 한다.

- ①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다.  
 ② 우리는 정보의 소비뿐 아니라 정보의 유통에서도 주체이다.  
 ③ 표현의 자유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④ 거짓 정보의 생산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⑤ 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한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외적 활동뿐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p> <p>을: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p> <p>병: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p> |
| (나) | <p>&lt;범례&gt;<br/>                 A: 갑만의 입장<br/>                 B: 을만의 입장<br/>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br/>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

<보 기>

-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ㄷ. C: 채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ㄹ.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을 떼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구속한다.

을: 모든 인간은 자기 신체와 소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 권리의 향유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인간은 공동체를 결성하고 공통의 재판관을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국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 학생 답안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고 보고, ㉡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을은 ㉢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 ㉣ 국가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위임받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조건 아래에서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은 인간이 사는 체험 공간의 구체적인 중심이며, 이런 중심을 창조해야 하는 과제는 거주함으로써 실현된다. 거주한다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 속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집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특히 거주는 분리된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 즉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개인 공간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위한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쏘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편안함의 영역을 필요로 한다.
- ② 거주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③ 집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개인이 활동하는 세계의 중심이다.
- ④ 거주 공간의 소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 ⑤ 인간은 거주를 통해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숙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

- ① 세계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대상일 뿐 아니라 성(聖) 그 자체이다.
- ② 성스러움과 세속은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 대상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④ 종교적 인간에게 돌이나 나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다.
- ⑤ 신은 자연을 통해 성스러움을 다양한 양태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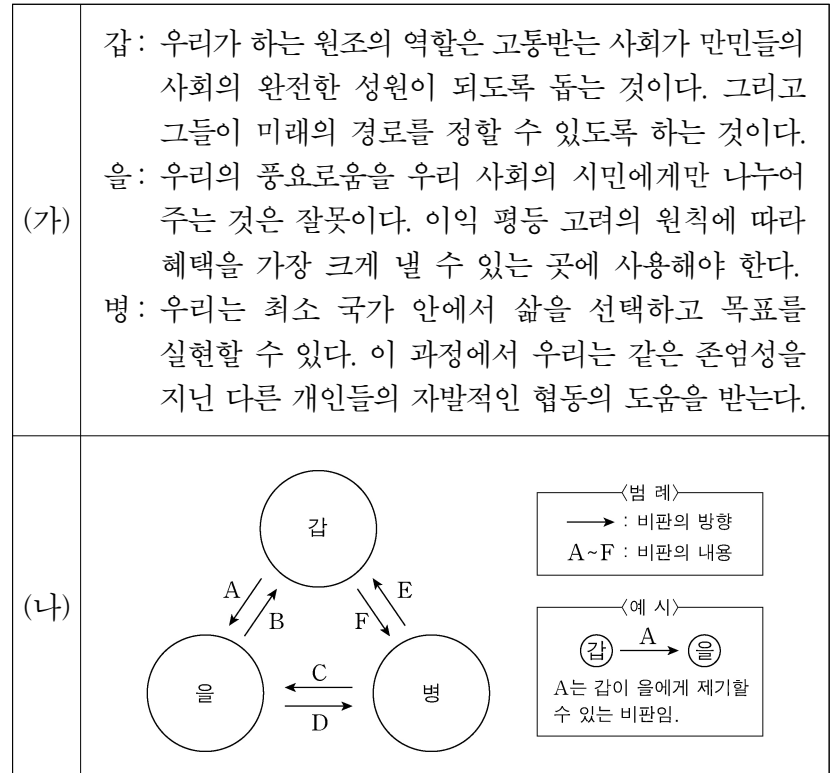
18. 다음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선생에게

당신은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先王)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천하의 혼란이 생긴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아울러 서로 사랑하지[兼愛] 않아 자신과 남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임금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악기를 만들게 하고 연주를 일삼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될 것이고, 백성은 먹고 입을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 당신의 견해는 ㉠ 고 생각합니다. …(후략).

- ① 음악과 예의의 조화를 통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인간의 본성을 교화하여 화합하는 데 음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③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음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음악이 이상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위정자가 선왕의 음악을 장려하는 것이 백성에게 무익함을 간과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원조의 중단 지점을 두는 것은 원조 목적에 위배됨을 간과한다.
- ② B: 원조 대상을 선정할 때 상대적 빈곤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간과한다.
- ③ C, E: 자신의 이익을 먼저 돕는 것이 정당한 경우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자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F: 원조 대상국이 자국의 부정을 교정하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한다.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재의 분단 상황은 정전 상태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을: 맞습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필요합니다. 종전 선언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 정책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갑: 종전 선언으로 남북 교류가 확대될 수 있지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선언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을: 종전 선언이 북한만을 위한 시혜는 아니므로 상호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전 선언이 정전 상태를 명분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① 북한은 현재 대남 적대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 ② 분단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가?
- ③ 종전 선언을 통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 ④ 종전 선언은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인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